



연구보고서 18-13



#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세르게이 루코닌  
올가 쿠즈네초바

#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세르게이 루코닌 · 올가 쿠즈네초바

연구보고서 18-13

##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인 쇄 2018년 12월 24일  
발 행 2018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경성문화사 T. 02-786-2999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1712-3 94320  
978-89-322-1072-8(세트)



## 서언

최근 들어서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정부도 중대한 대내외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일부 거대기업의 특정 제품에 대한 지나친 수출의존도, 철강과 조선 등 주력산업의 성숙단계 진입에 따른 성장 한계, 심화되는 고용위기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완화 및 대외경제관계 다변화,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 신경제협력은 전략적 측면뿐 아니라 시기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 등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환경을 고려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시점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한반도와 북방유라시아지역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 증진,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 남·북·러 3각협력,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북극항로 개척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극동지역에서의 한국과 러시아 간 신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본고는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를 한국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특징, 각 지방의 산업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극동지역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분석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푸틴 집권 3기와 4기 극동개발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주요 특징, 핵심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의 극동진출전략 비교에 많은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극동지역 진출전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박정호 신북방경제실장이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강부균 전문연구원, 민지영 전문연구원, 세르게이 루코닌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가 쿠즈네초바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교수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질적인 완성도 제고를 위해 생산적인 조언을 해주신 정여천 선임연구위원, 이권형 연구위원, 김영진 한양대 교수,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연구진 여러분의 노고와 더불어, 연구 지원과 편집에 도움을 준 김민제 연구조원과 연구 진행과정에서 협조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 경제협력방안 마련에 정책적으로 의미 있게 기여하길 바랍니다.

2018년 12월

원장 이재영



## 국문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중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었다. 신북방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한국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새로운 극동개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 러시아 정부의 실제적인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등을 반영하고, 이에 기초한 상생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가 새롭게 설정한 극동지역 개발과 경제현대화 정책의 핵심 목표인 '에너지 및 자원 중심의 수출 기반 경제'에서 '혁신 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한국과 러시아 간 신경제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과 풍부한 자원 보유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높은 생활비, 열악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저하는 극동 연방관구의 만성적인 인구감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재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한국과 극동지역 간 협력은 기간산업과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첨단기술 또는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푸틴 3기 극동개발정책은 지역발전, 투자 유치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들 수 있겠다. 향후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기반과 구체적인 발전전략 마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라 확대 등이다. 푸틴 4기의 극동개발정책은 전반적으로 3기의 기초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푸틴 대통령이 사회·경제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극동개발정책은 지역의 빈곤 퇴치,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다만 극동지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입한 각종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개발혜택이 주민에게 분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다.

중국은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별 펀드와 위안화 펀드 등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반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금융협력의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제조업, 농업, 관광 등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대러 접근을 강화한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다. 반면 일본의 극동진출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고, 지금까지 극동과의 교역·투자 협력이 사할린 주에 편중된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는 ‘8개항 협력 구상’을 토대로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과 노하우에 기초한 중소 규모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등을 활용하여 극동에서 협력의 공간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극동진출이 기본적으로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둔 확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비즈니스 모델을 극동에 적용하는 일종의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푸틴 3기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 투·융자 플랫폼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냉동창고사

업, 자루비노항 개발사업, 나훗카 비료플랜트 사업, 러시아 최대 선사인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오일탱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방의 대러 제재, 사업여건 미성숙, 사업경험 및 투자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푸틴 3기 한국의 극동진출은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점진적인 진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이 9개 다리 전략을 제시한 후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푸틴 4기 출범을 전후해 한국은 극동에서 러시아와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는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반도·동북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의 극동진출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두 가지 협력 방향은 9개 다리 플러스 알파(+ α) 협력과 남·북·러 3각협력이다. 전자는 한·러 간 합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후자는 극동 지역에서 한·러 협력 활성화 촉진 및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남·북·러 3각협력은 가스, 철도, 전력, 산업단지, 농업 등 9개 다리 협력의 가시성과 효용성 확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 등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환경을 고려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시점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되었던 양자(한·러) 및 다자(남·북

· 리)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과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 간에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신뢰구축 및 공동번영을 이룩함과 동시에, 미래 통일한국 건설에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작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관련한 신경제협력방안 마련이 신북방정책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나 마찬가지인 이유다.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 신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세부적 경제협력방안 마련 및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등) 실행전략 수립, '나인 브리지 플러스 알파(9-Bridge+α)' 전략 추진, 한국의 고유한 극동지역 협력전략 수립,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 마련, 극동지역 대상 새로운 형태의 남·북·러 3각 협력사업 발굴, 한·러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작업, 지속가능한 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효율적인 활동 등이 있다.



서언 ..... 3

국문요약 ..... 5

제1장 서론 ..... 1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6

    2. 선행연구 검토 ..... 20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2

제2장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분석 ..... 25

    1.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 26

    2.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경제적 특징 ..... 33

    3. 극동 연방관구의 산업구조 ..... 40

제3장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평가 ..... 53

    1.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 54

        가. 선도개발구역 프로그램: 생산거점 투자환경 개선책 ..... 65

        나. 자유항 프로그램: 물류 투자환경 개선책 ..... 70

        다.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인구유입책 ..... 73

        라. 주요 투자촉진제도 ..... 76

    2.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성과와 과제 ..... 78

제4장 동북아 주요국의 극동진출전략 비교 ..... 89

    1. 중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 93

        가. 푸틴 3기 이후 중·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 93

나. 푸틴 3기 이후 중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97
다. 푸틴 4기 중국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107
2. 일본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109
가. 푸틴 3기 이후 일·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109
나. 푸틴 3기 이후 일본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112
다. 푸틴 4기 일본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119
<b>제5장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평가와 신경제협력 방향</b>	<b>121</b>
1.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122
가. 푸틴 3기 이후 한·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122
나. 푸틴 3기 이후 한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126
2. 한국의 극동 신경제협력 방향	136
가. 9개 다리 플러스알파 협력	137
나. 남·북·러 3각협력	142
<b>제6장 결론: 극동 신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제언</b>	<b>155</b>
<b>참고문헌</b>	<b>164</b>
<b>Executive Summary</b>	<b>183</b>



## 표 차례

표 2-1. 러시아 연방관구 비교(2016년) .....	27
표 2-2. 극동 연방관구 인구 추이 .....	31
표 2-3. 극동 연방관구 주요 거시경제지표 .....	32
표 2-4. 극동 연방관구 삶의 질 평가 결과(2017년) .....	33
표 2-5. 지역별 평균 명목월급 수준 .....	34
표 2-6. 지역별 일정 재화 및 서비스 패키지의 물가수준 비교 .....	35
표 2-7. 1인당 평균 주거면적 .....	36
표 2-8. 지역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주택비용 .....	37
표 2-9. 극동 연방관구 인프라 순위 및 부문별 지수(2017년) .....	38
표 2-10. 극동 연방관구 철도 밀집도 .....	39
표 2-11. 극동 연방관구 공용 포장도로 밀집도 .....	39
표 2-12. 극동 연방관구 사회·경제 상황 평가 결과(2017년) .....	40
표 2-13. 극동지역의 산업구조(GRP 구성비) .....	44
표 2-14. 극동 연방관구 특화계수 .....	46
표 2-15. 극동지역의 GRP 구성비 변화(2010~16년) .....	47
표 2-16. 부가가치 기준 극동 연방관구 지역별 특화계수 .....	48
표 2-17. 극동지역 협력 유망산업 .....	49
표 2-18. 극동 연방관구 지방별 사회·경제 특징을 고려한 한국과의 협력방안 .....	50
표 3-1.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 개정본 비교 .....	61
표 3-2. 극동지역 18개 선도개발구역 개요 .....	67
표 3-3. 선도개발구역 부문별 순위 .....	68
표 3-4. 자유항 부문별 순위 .....	72
표 3-5. 2014년 러시아 연방구성체의 투자환경 순위 .....	79
표 3-6. 2018년 러시아 연방구성체의 투자환경 순위 .....	80

표 3-7. 극동 연방관구 지방별·분야별 직접투자액 .....	82
표 3-8. 2015~20년간 러시아 연방 예산안 .....	86
표 3-9. 극동개발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	87
표 3-10. 극동 연방관구 최저생활비 계층 비중 .....	88
표 4-1. 푸틴 3기 이후 중·러 주요 고위급회담의 성과 .....	95
표 4-2. 일대일로 전략의 5대 추진과제와 대러 협력 .....	97
표 4-3. 일대일로 전략 중 동북지역의 주요 대극동 협력 계획 .....	98
표 4-4. 푸틴 3기 이후 신설된 주요 중·러 협의체 .....	100
표 4-5. 중·러 간 주요 투자펀드 .....	101
표 4-6. 극동의 지역별 대중국 교역 현황(2017년) .....	102
표 4-7. 중국의 극동 인프라 사업 현황 .....	104
표 4-8. 중국의 선도개발구역 진출 현황 .....	105
표 4-9. 중국의 자유항 진출 현황 .....	106
표 4-10. 푸틴 3기 이후 일·러 주요 정상회담의 성과 .....	110
표 4-11. 일본의 대러 8개 항 협력 구상 .....	113
표 4-12. 푸틴 3기에 신설된 주요 일·러 협의체 .....	115
표 4-13. 일·러 투자펀드의 주요 투자 성과 .....	116
표 4-14. 극동의 지역별 대일본 교역 현황(2017년) .....	117
표 4-15. 일본의 선도개발구역 진출 현황 .....	118
표 4-16. 일본의 자유항 진출 현황 .....	119
표 5-1. 푸틴 3기 이후 한·러 주요 고위급 회담의 성과 .....	124
표 5-2. 신북방정책의 주요 내용 .....	128
표 5-3. 푸틴 3기 이후 한·러 간 주요 실무 협의체 논의내용 .....	130
표 5-4. 한·러 간 주요 투자 플랫폼 .....	132
표 5-5. 극동의 대한국 지역별 교역 현황(2017년) .....	133

표 5-6. 한국의 선도개발구역 진출 현황 ..... 135  
표 5-7. 한국의 자유항 진출 현황 ..... 136  
표 5-8. 한국의 대극동 협력 방향과 '9개 다리 플러스알파' 전략 ..... 138  
표 5-9. '9개 다리 플러스알파' 협력의 추진 현황 ..... 140



## 그림 차례

그림 2-1.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산업 .....	28
그림 2-2.	극동 연방관구 지도 .....	30
그림 2-3.	극동 연방관구 산업구조(2016년) .....	41
그림 2-4.	극동 연방관구 지역별 GRP 비중(2016년) .....	42
그림 2-5.	극동 연방관구 지역별 산업구조(2016년) .....	43
그림 3-1.	러시아 연방 극동개발 담당 조직도 .....	55
그림 3-2.	극동지역 18개 선도개발구역 위치 .....	66
그림 3-3.	선도개발구역 부문별 투자 비중 .....	69
그림 3-4.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위치 .....	71
그림 3-5.	자유항 부문별 투자 비중 .....	73
그림 3-6.	극동 헥타르 초기 제공 지역과 2017년 2월 이후 확대된 범위 .....	74



## 글상자 차례

글상자 4-1.	한·중·일과 극동의 교역 현황 .....	91
----------	------------------------	----

# 제1장



#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들어 세계경제 환경과 국제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영국의 탈퇴를 상징하는 브렉시트(Brexit)의 혼란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에 근거한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을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첨예한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안화 하락,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 지속, 미국 증권시장의 불안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터키의 금융위기 발발로 신흥국 경제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일부 거대기업의 특정 제품에 대한 지나친 수출의존도, 철강과 조선 등 주력산업의 성숙단계 진입에 따른 성장 한계, 심화되는 고용위기와 함께 경제성장률이 하락 추세에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경제적 도전과제들(새로운 경제성장동력 창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완화 및 대외경제관계 다변화,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 마련 등)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의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했다.<sup>1)</sup>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었다. 신북방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확보

---

1)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 북핵 위기 넘어설까」,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13001103> (검색일: 2018. 8. 10).

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북방지역 및 유라시아 경제협력 공간 창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위기(Ukrainian Crisis)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2014년을 기점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관계는 상당히 경색된 상태에 있었다.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와 저유가에 따른 러시아의 경기침체를 비롯해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기인한 나진·하산 프로젝트 무산,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량 급감과 투자 부진 등이 양국 관계발전의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북방경제협력 공간의 창출,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 증진을 목표로 러시아와의 관계 재조정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집권 3기 및 4기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특히 극동지역 개발)의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집권 3기 들어서 푸틴 정부는 극동개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갔다. '2025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 프로그램' 수립, 극동개발부 설립,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동방경제포럼 창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과거의 동방정책을 뛰어넘는 푸틴 3기의 이 신동방정책은 지역균형 발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및 심화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것이었다.<sup>2)</sup> 이런 흐름을 배경으로 동북아 주요국인 중국과 일본의 대러시아 접근도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보다 큰 틀에서 미국의 단일패권 추구에 대한 견제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전략적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지도부는 동북 3성과 극동시베리아지역의 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체상태에 빠진 이 지

---

2) 「러시아, 신동방정책 추진… 미·중 경쟁 균형자될 수도」, <http://unikorea21.com/?p=5263>(검색일: 2018. 8. 10).

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일본의 기술, 자본, 에너지 공급의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에서 상호 이해가 일치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은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작동하는 미국의 대러 제재와 북한 핵문제 등의 요인에 의해 현저한 차이를 보여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악화,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지속, 북한 핵 실험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상황 고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한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은 사실상 정체상태에 빠졌다. 이는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 목표가 유라시아, 북방 또는 대륙이라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 규정과 더불어, 북한 핵문제 등 대외적 변수에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극적인 정세 변화는 경제협력 등 새로운 대러시아 정책의 방향성 모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관계의 주요한 변화를 적극 반영한 신러시아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기존의 정책 방향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에서 제시한 대러시아 경제협력 과제들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함은 물론이고, 신북방정책 기초에 입각하여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전략적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에 전략적인 접점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접점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산업협력과 남·북·러 3각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바실리 미헤예프(Vasily Miheev) 프리마코프 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경제는 시장경제의 부재와 경제적 폐쇄성으로 인해 러시아나 남한의 기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협력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

치·외교적으로는 3각협력이라는 표현이 남·북·러 3국 모두에 더 적합한 표현임에도 ‘남·북·러 3각협력’이 아닌 ‘북한에 대한 한·러 경제협력’이라 정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접근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sup>3)</sup>

2018년 3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집권 4기(2018~24년)가 시작되었다. 특히 푸틴 집권 4기 새로운 극동지역개발전략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정부도 극동진출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대러시아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인 ‘나인 브리지(9-Bridge)’ 정책<sup>4)</sup>을 추구함과 동시에, 극동지역 개발을 포함한 보다 실질적인 대러시아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새로운 극동개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 러시아 정부의 실제적인 대한국 경제협력 수요 등을 반영하고, 이에 기초한 상생 및 호혜적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가 새롭게 설정한 극동지역 개발과 경제 현대화 정책의 핵심 목표인 ‘에너지 및 자원 중심의 수출 기반 경제’에서 ‘혁신 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틀이 필요한 상황이다.<sup>5)</sup>

본 연구는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푸틴 집권 4기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신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푸틴 집권 3기(2012~18년)와 4기(2018~24년)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특성을

---

3) 이재영 편(2018),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러 3각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96.

4) 2017년 9월 7일 제3차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나인 브릿지’ 전략을 제시했는데, 이는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부문에서 협력을 증진하자는 제안이다. 「文대통령 “한·러 ‘나인 브릿지 전략’으로 동시다발적 협력 제안”」,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7\\_000008923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7_0000089234)(검색일: 2018. 8. 11).

5)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201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p. 1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신동방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극동진출전략에 대한 비교분석작업 등을 토대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푸틴 집권 4기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신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해볼 것이다. 이 연구는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협력 관계 증진작업에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시의성을 갖는다.

## 2. 선행연구 검토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극동지역 개발은 매우 중요한 러시아 이슈 중 하나였다. 그런 이유로 이 연구 주제와 관련성 있는 선행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국내외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선행연구이다. 2015년 이재영은 「푸틴의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점과 협력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부상 배경과 함의,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극동개발정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국의 유라시아 전략 방향을 제안했다.<sup>6)</sup> 2016년 강명구는 「러시아의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TASED) 지정과 시사점」이라는 글에서 선도개발구역의 지정 배경과 의의, 극동지역의 투자매력도와 주요국 투자 동향, 선도개발구역의 지정 현황과 주요 특징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참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sup>7)</sup> 2016년 변현섭은 「러시아 자유항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와 협력방안: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을 중심으로」

---

6) 이재영(2015), 「푸틴의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점과 협력 방향」, 한·러정책포럼 발표문, pp. 65~84.

7) 강명구(2016), 「러시아의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TASED) 지정과 시사점」, *Weekly KDB Report*, pp. 1~11.

라는 논문에서 자유항 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설립 배경과 의미, 주요 내용과 특징들을 고찰하면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방안을 제안했다.<sup>8)</sup> 상기 연구들은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극동지역 경제특구에 대한 유용한 기본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최근 한반도의 정세 변화 등 새로운 대내외 핵심 변수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해외 선행연구이다. 2016년 모시코프(Moshkov)는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라는 논문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면서 극동지역의 산업구조와 산업발전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제시했다.<sup>9)</sup> 2016년 루진(Luzin)은 “Putin’s Far-Eastern Plan”이라는 글에서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둘러싼 중국, 일본, 한국의 이해관계를 투자와 교역 측면에서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북방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sup>10)</sup> 2016년 카시나(Kashna)는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овый инструмент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선도개발구역에 대한 개념 정의와 주요한 제도적 특성, 기존 러시아 경제특구와의 차별성을 지적하면서 이 제도가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새로운 투자 유치방안이라고 강조했다.<sup>11)</sup> 2017년 자우사예프(Zausaev) 외는 “Новая модель рос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라는 글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선도개발구역의 지정 배경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고찰했다.<sup>12)</sup> 이 연구들

8) 변현섭(2016), 「러시아 자유항 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와 협력방안: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32권 1호, pp. 1~30.

9) A. V. Moshkov(2016),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The Social Sciences* 11(5), pp. 6896-6904.

10) P. Luzin(2016), “Putin’s Far-Eastern Plan” Intersection, <http://intersectionproject.eu/article/russia-world/putins-far-eastern-plan>(검색일: 2018. 8. 21).

11) Н. В. Кашина(2016),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овый инструмент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Финансы Региона* 12(2), с. 569-585.

12) В. К. Зausaев, Н. А. Кручак, В. П. Бежина(2017), “Новая модель рос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은 공통적으로 극동지역 개관과 역내 경제발전의 역사적, 제도적 측면에 치중하면서 선도개발구역 등 새로운 경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국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첫째,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및 통계조사와 더불어, 체계적인 현지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했다. 둘째, 연구 내용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의 이슈들을 포함시켰다. 특히 집권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극동 연방관구의 지정학적 가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극동개발전략의 주요 정책과 내용, 극동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성과와 과제 등)뿐 아니라 동북아 주요국(중국, 일본, 한국)의 극동진출전략과 대러 경제협력을 비교 분석했다. 셋째, 최근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와 집권 4기 푸틴 정부의 새로운 극동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자가 '나인 브리지(9-Bridge)' 구상과 산업협력, 남·북·러 3각협력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 후자는 새로운 극동개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이다.

###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상술했듯이, 본 연구는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신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및 2차 문헌연구와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철저히 검토하여 유용한 정보를 파악함과 동시에, 본 연구 주제에 관련된 러시아 정부의 제반 공식문서를 종합

---

a.” ЭКО 2, с. 27-35.

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둘째, 현지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또는 설문조사)를 최대한 활용했다. 특히 현지 학계 전문가, 정부 관리(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전략이니셔티브청 등), 기업인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함은 물론, 각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들을 직접 확인(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방문 등)하고 경제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

셋째,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 자문 및 외부 위탁을 추진했다. 특히 푸틴 집권 3기 극동개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집권 4기 극동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내용을 러시아 현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내실화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를 고찰했다. 극동 연방관구는 9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방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요인(인구, 교통, 임금 및 물가 수준, 주택비용 등)과 지역별 산업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극동 연방주체들의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했다. 특히 극동지역의 산업경쟁력 평가를 토대로 한국과 극동지역 간 산업협력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둘째, 푸틴 집권 3기부터 본격화되었던 신동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했을 뿐 아니라, 푸틴 집권 4기 극동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과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극동개발정책의 추진 배경과 전략적 함의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함과 동시에, 집권 3기 푸틴 정부가 추진한 신동방정책의 기본 방향과 특성, 구체적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자 했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정책의 양대 사업인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에 대한 분석을 시

도했다.

셋째, 동북아 주요국(중국, 일본)의 극동진출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푸틴 집권 3기 중국과 일본의 극동진출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 내용, 협력 현황과 주요 특징, 푸틴 집권 4기 극동진출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동북아 주요국의 러시아 극동진출 동향과 주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극동개발협력 추진체계, 산업별 경제협력 현황, 주요 협력 펀드 조성 내역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극동진출정책을 위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넷째, 한국의 극동진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과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다음의 두 가지 중점협력과제, 즉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나인 브리지 플러스알파(9-Bridge+α)’ 연계방안, 동북아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러 3각협력방안 등을 고찰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과 러시아 신정부 간 지속가능하며 미래지향적 형태의 극동 신경계협력 방향 수립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기여도이다. 본고는 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증진시킴과 더불어, 한국정부의 북방경제협력 및 대러시아 경제협력 방향 수립, 극동개발협력 참여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학술적 기여도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현황과 극동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증진에 필요한 유용한 학술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제2장



#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분석

- 
1.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2.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경제적 특징
  3. 극동 연방관구의 산업구조

# 1.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대륙과 단절되고 주로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양세력과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기존 한국의 성장모델은 한계에 다다랐다.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대륙을 통한 새로운 활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제시되었으며, 극동지역은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협력 대상지역 중 하나이다.

사실 시장규모 면에서 보면, 극동지역은 경제협력의 매력도가 다소 떨어지는 곳이다. 러시아 내 8개 연방관구와 비교했을 때, 극동 연방관구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반면, 가장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규모 자체가 작고 적은 인구가 광활한 영토에 흩어져 있어 운송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진출동기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극동지역의 풍부한 자원, 성장잠재력,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극동지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극동지역은 타 연방관구들과 비교할 경우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인 대외개방도, 즉 대외수출의존도와 대외투자 의존도가 8개 연방관구 중에서 각각 2위와 3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표 2-1 참고). 이는 이 지역이 비교적 성장잠재력, 즉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 요건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극동지역의 현황, 관련 정책, 협력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극동지역은 한국에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공간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먼저 극동지역은 유럽으로 가는 ‘대륙의 관문’이며, ‘자원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에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지대나 다름 없다. 극동지역의 산업·교통 인프라가 확대·정비될 경우 대륙을 통해 해양항로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이를 대비하

표 2-1. 러시아 연방관구 비교(2016년)

구분	시장규모				성장잠재력			
	영토 (1,000km <sup>2</sup> )	인구 (백만 명)	GRP (조 루블)	1인당 GRP (천 루블)	GRP 성장률 (%)	수출/ GRP(%)	FDI/ GRP(%)	인프라 지수
러시아 연방	17,087	146.8	69.3	417.2	0.8	25.0	13.2	5.70
중앙 연방관구	653	39.2	24.1	616.4	1.3	34.5	8.9	5.97
북서 연방관구	1,678	13.9	7.8	562.4	1.7	24.8	1.4	5.92
남부 연방관구	428	16.4	4.9	298.6	1.3	15.9	0.2	5.34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171	9.8	1.8	184.5	0.9	3.3	0.0	5.00
프리볼시스키 연방관구	1,038	29.6	10.4	349.9	0.0	18.4	0.3	5.72
우랄 연방관구	1,789	12.3	9.4	758.9	0.3	17.4	0.7	6.04
시베리아 연방관구	5,115	19.3	7.1	369.2	0.3	21.8	0.7	5.53
극동 연방관구	6,216	6.2	3.8	607.0	0.3	30.1	0.9	5.70

주: 인프라지수는 2017년.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www.gks.ru(검색일: 2018. 11. 23); InfraONE Research(2018b),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рынк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pp. 20-45, https://infraone.ru/#analitika(검색일: 2018. 10. 26).

여 한국은 극동지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의 원자재에 편중된 산업구조는 한국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그림 2-1 참고). 이러한 점은 2017년 기준 극동의 대한민국 수출액에서 에너지연료가 74.4%를, 수입액에서 기계·기기가 47.8%를 차지하는 무역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따라서 에너지 수입대국인 한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극동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어 경제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동지역은 한국에 시장다변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한국의 무역은 2017년 기준 중국 22.8%, 미국 11.3%, EU 10.6%로 주요 시장에 의존되어 있다.<sup>14)</sup> 따라서 한국경제는 이 시장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다

13)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форма 6-ТС страна-товарные группы(5).xls," <http://dvtu.externalzone.portal.customs.ru/statistic/2017/opera/document/165097> (검색일: 2018. 11. 27).

14)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검색일: 2018. 11. 27).

그림 2-1.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산업



자료: “Федеральные округа России,” [http://russgk.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132:2013-02-21-17-32-43&catid=12:2010-08-03-15-47-39&Itemid=16](http://russgk.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132:2013-02-21-17-32-43&catid=12:2010-08-03-15-47-39&Itemid=16)(검색일: 2018. 11. 19)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 확대가 시장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극동지역이 한국에 새로운 시장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지려면 가치사슬 형성을 통한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양측간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러시아의 동쪽에 위치한 극동 연방관구의 면적은 616만 9,329km<sup>2</sup>로 러시아 전체 영토의 36%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약 61.9배에 달한다. 이 지역은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주, 캄차트카 변경, 마가단 주, 프리모리예 변경, 사하 공화국(야쿠티야), 사할린 주, 하바롭스크 변경, 추코트카 자치구 등 9개 지방으로 구성된다(그림 2-1 참고).<sup>15)</sup> 이 지역은 위도 40~80도 사이에 위치하여 냉대 또는 한대 기후를 보인다. 북쪽에는 북극해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 위치

15) 2018년 말 극동 연방관구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11월 3일 러시아 연방관구 목록에 수정이 가해지면서 시베리아 연방관구의 구성 지방이었던 부랴티야 공화국과 자바이칼리에 변경이 극동 연방관구에 편입되었으며, 12월 13일에는 행정수도가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되었다.

한 사하 공화국의 일부 지역, 추코트카 자치구는 북극지역으로 구분된다.<sup>16)</sup>

극동 연방관구는 다양한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에 석유·가스, 금, 다이아몬드(러시아 전체의 약 80%)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 또한 러시아 연방 전체로 보면, 안티모니·붕소·주석(95%), 형석·수은(60%), 텅스텐(24%), 철광석·납·원황·아파타이트(10%) 등이 매장되어 있다. 극동 지역의 삼림자원 보유고는 110억㎡에 달하며, 러시아 삼림자원의 약 35%를 차지한다. 레나강, 아무르강 등 다양한 강과 호수가 위치하여 수자원에 풍부하다. 동쪽으로 태평양에 접해 있는 추코트카 자치구, 캄차트카 변경, 사할린 주 등은 많은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sup>17)</sup> 이는 극동 연방관구의 경제발전 잠재력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이 지역의 산업은 천연자원에 기반한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남쪽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대규모 시장을 접하고 있어 시장진출기지로써의 이점도 있다.

그러나 이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한 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620만 명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4.2%에 불과하다. 당연히 인구밀도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편이다. 2017년 전 세계 평균 인구밀도는 km<sup>2</sup>당 58.1명이고,<sup>18)</sup> 러시아의 평균 인구밀도도 km<sup>2</sup>당 8.58명인데, 극동 연방관구의 평균 인구밀도는 km<sup>2</sup>당 1명으로 매우 희박하다. 극동 연방관구 내 지방별 인구밀도 차이도 큰 편으로 프리모리예 변경이 km<sup>2</sup>당 11.6명으로 가장 높으며, 추코트카 자치구는 km<sup>2</sup>당 0.07명으로 가장 낮은 인구밀도를 기록하고 있다.<sup>19)</sup>

---

16)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 296 (2014), “О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Ф,” <http://static.kremlin.ru/media/events/files/41d4d8e8206d56fc949d.pdf>(검색일: 2018. 7. 24).

17)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в ДФО,” Департамент Росгидромета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http://dalgidromet.ru/index.php/o-sluzhbe/44-spravoc-hnaya-informatsiya/243-kharakteristika-prirodnikh-resursov-v-dfo>(검색일: 2018. 8. 21).

18) World Bank, Population Density(people per sq. km of land are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N.POP.DNST>(검색일: 2018. 11. 1).

19)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2018f), “Численность и миграция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7 году,” Площадь территории и плот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по суб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http://www.>

그림 2-2. 극동 연방관구 지도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2017),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p. 1,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138625359016](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138625359016)(검색일: 2018. 7. 13)을 바탕으로 저자 편집.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감소이다. 러시아 정부는 2000년대 들어와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왔으며, 그 결과 러시아 전체 인구는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극동 연방관구에서는 이 정책의 효과가 인구감소세 둔화에 그치고 있다(표 2-2 참고). 지방별로 살펴볼 때, 사하 공화국, 사할린과 같이 2017년 미세하게 인구증가를 나타낸 지역이 존재하나 프리모리예 변경, 아무르 주, 마가단 주, 유대인 자치주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인구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극동 연방관

[gks.ru/bgd/regl/b18\\_107/Main.htm](http://gks.ru/bgd/regl/b18_107/Main.htm)(검색일: 2018. 7. 25).

표 2-2. 극동 연방관구 인구 추이

(단위: 천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러시아 연방	142,961	143,202	143,507	146,091	146,406	146,675	146,842
극동 연방관구	6,275	6,259	6,239	6,219	6,203	6,189	6,174
사하 공화국(야쿠티아)	957	956	955	956	958	961	964
캄차트카 변경	321	320	320	319	317	315	315
프리모리예 변경	1,952	1,949	1,943	1,936	1,931	1,926	1,918
하바롭스크 변경	1,343	1,342	1,341	1,339	1,336	1,334	1,331
아무르 주	825	819	814	811	808	804	800
마기단 주	156	153	151	149	147	146	145
사할린 주	496	494	492	490	488	487	489
유대인 자치주	175	174	172	169	167	165	163
추코트카 자치관구	51	51	51	51	50	50	50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검색일: 2018. 7. 13).

구의 시장성을 떨어뜨리며, 노동인구의 부족으로 인해 비용을 상승시키기에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극동 연방관구의 GRP는 24조 루블(약 4,000억 달러, 달러당 60루블 기준)로 러시아 GDP의 5.4%를 차지한다.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2012~13년에 감소했는데,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시설투자가 활성화되다가 이후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2014년 말부터 나타난 유가급락, 서방제재 등의 외부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경제가 2015~16년간 감소한 반면, 이 지역 경제는 둔화되는 것에 그쳤으며, 2017년에는 회복되었다(표 2-3 참고). 2017년의 경우 유가반등,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고정투자 및 소매거래가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확대되면서 경기회복세가 나타났다.<sup>20)</sup> 극동 연방관구에서 고정투자는 대개 석유가스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었는데, 최근에는 주택건설에 대한

20) O.M. Прокапало, A.Г. Исаев, M.Г. Мазигтова, Д.В. Суслон(2018),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НЬЮНКТУР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В 2017 г.,” p. 93.

표 2-3. 극동 연방관구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 십억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러	극동	러	극동	러	극동	러	극동	러	극동	러	극동	러	극동
GRP	5.4	5.3	3.1	-1.4	1.8	-0.9	1.3	1.9	-0.6	0.7	0.8	0.3	1.5	1.2
산업생산증가율	4.1	2.9	2.8	4.9	0.4	10.6	3.9	-2.1	-4.5	-11.0	2.2	2.3	2.1	2.2
고정투자증가율	10.8	26.5	6.8	-11.9	0.8	-16.8	-1.5	-6.6	-10.1	-1.1	-0.2	-1.2	4.4	17.1
소매거래증가율	7.1	5.3	6.3	4.8	3.9	5.7	2.7	5.0	-10.0	-1.5	-4.6	-2.3	1.3	2.0
소비자물가상승률	6.1	6.8	6.6	5.9	6.5	6.6	11.4	10.7	12.9	12.0	5.4	5.4	2.5	2.1
생산자물가상승률	12.0	17.7	5.1	8.8	3.7	1.5	5.9	10.4	10.7	16.5	7.5	17.2	8.4	3.1
실질수입증가율	5.6	5.1	5.3	7.7	5.3	5.2	-7.2	-5.7	1.6	-3.0	-6.1	-3.9	-5.6	-2.6
실업률	6.5	7.4	5.5	6.7	5.5	6.5	5.2	6.4	5.6	6.3	5.5	5.8	5.2	5.6
수출	516.7	25.2	524.7	26.0	527.3	28.2	497.8	28.7	343.5	20.6	285.8	18.6	357.8	22.2
수입	305.8	9.2	317.2	10.5	315.0	12.3	286.7	10.7	182.7	5.9	182.3	5.8	227.5	6.3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검색일: 2018. 7. 13); O.M. Прокапало, A.G. Исаев, M.G. Мазитова, Д.В.Суслов(2018),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НЬЮНКТУР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В 2017 г.," p. 94.

투자가 나타났다. 산업 생산에서 채굴업은 1.9%로 완만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제조업이 7.0%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프리모리예 변강과 하바롭스크 변강에서 제조업 생산이 각각 22.1%와 21.4%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소비가 회복되는 한편, 2014년부터 추진된 수입대체정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기업이윤과 가계실질수입은 감소했다. 실업률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러시아 전체 평균치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2.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경제적 특징

이 절에서는 극동 연방관구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는 임금, 물가, 주거비, 인프라 등 생활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극동지방들의 삶의 질은 다른 지방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러시아 순위조사기관인 리아레이팅(Riarating)이 발표한 ‘2017년 러시아 지방의 삶의 질 평가’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극동 연방관구 소속 지방들의 삶의 질은 중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되었다(표 2-4 참고).<sup>21)</sup> 주로 비좁고 낙후된 주거시설, 열악한 치안과 기후여건, 취약한 주민건강상태, 부족한 도로인프라 등이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2-4. 극동 연방관구 삶의 질 평가 결과(2017년)

극동 연방관구	2017년 점수	전년 대비 점수 변화	2017년 순위	전년 대비 순위 변화
하바롭스크 변경	47.91	+ 2.25	30	-
캄차트카 변경	46.41	+ 0.50	35	- 3
마가단 주	45.26	+ 0.33	44	- 5
프리모리예 변경	44.19	+ 1.93	48	+ 3
사할린 주	42.74	+ 0.78	53	-
아무르 주	39.96	+ 2.84	61	+ 6
사하 공화국(아쿠티야)	35.61	+ 1.62	71	-
추코트카 자치구	27.72	- 1.22	78	+ 1
유대인 자치구	27.17	+ 1.36	80	+ 1

주: 1위를 차지한 모스크바시는 76.92점을, 2위에 오른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75.88점을 받았다.

자료: РИА Рейтинг(2018a),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РФ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 2017,” pp. 21-22, <http://riarating.ru/infografika/20180214/630082471.html>; РИА Рейтинг(2017a),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РФ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 2016,” pp. 24-25, <http://riarating.ru/regions/20170220/630056195.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0. 26).

21) РИА Рейтинг(2018a),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РФ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 2017,” pp. 1-59, <http://riarating.ru/infografika/20180214/630082471.html>(검색일: 2018. 10. 26). 러시아의 각 지방을 대상으로 11개 부문, 72개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1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와 순위를 매겼다. 평가되는 11개 부문은 △소득수준 △고용률 및 노동시장 상황 △주거환경 △치안 △인구변화 △환경 및 기후 여건 △주민건강 및 교육수준 △사회인프라 △경제발전수준 △소기업 활성화 수준 △토지 및 교통인프라 개발로 구성된다.

표 2-5. 지역별 평균 명목월급 수준

(단위: 루블, 연말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러시아 연방	32,809	36,450	39,648	42,136	43,408	47,554	51,197
중앙 연방관구	40,699	44,865	48,792	52,708	55,152	61,183	65,683
북서 연방관구	35,630	39,096	43,466	46,242	47,714	52,372	57,675
남부 연방관구	23,297	26,830	29,473	30,906	31,242	34,277	36,124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20,205	23,708	26,323	27,226	27,257	29,241	31,413
프리볼시스키 연방관구	24,140	26,837	29,302	31,427	32,114	34,355	37,163
우랄 연방관구	39,144	42,592	45,545	47,308	49,152	53,179	55,130
시베리아 연방관구	28,422	31,693	34,376	35,674	36,529	39,699	42,989
극동 연방관구	41,638	48,150	52,051	53,960	55,946	61,016	64,822
사하 공화국(아쿠티야)	51,668	61,296	78,413	80,008	81,751	90,982	94,353
캄차트카 변경	56,684	61,103	66,313	68,829	71,270	76,437	84,855
프리모리예 변경	33,148	38,951	40,030	40,735	41,735	44,955	49,466
하바롭스크 변경	37,808	43,668	45,351	45,750	47,734	53,869	54,656
아무르 주	32,574	36,987	38,746	40,631	39,901	42,113	47,361
마가단 주	66,638	72,889	79,864	83,226	85,685	86,509	98,211
사할린 주	51,789	61,775	59,026	68,427	77,098	79,338	81,689
유대인 자치주	30,083	33,573	35,512	36,829	38,251	41,470	43,950
추코트카 자치구	82,970	90,760	93,444	97,495	99,592	115,093	122,231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2018a),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ведения мониторинг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номинальная начислен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работников организаций,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246601078438](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246601078438)(검색일: 2018. 8. 22).

극동 연방관구의 명목 임금수준은 러시아의 8개 연방관구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표 2-5 참고). 채굴업 비중이 높은 추코트카 자치구, 사하 공화국, 마가단 주, 사할린 주는 임금수준이 러시아 연방 평균 수준의 두 배 가까이 된다. 그러나 이 지역의 물가수준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표 2-6 참고). 특히 캄차트카 변경, 추코트카 자치구, 마가단 주, 사하 공화국, 사할린 주 등은 타 지역 물가수준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2-6. 지역별 일정 재화 및 서비스 패키지의 물가수준 비교

(단위: 루블, 기간 말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러시아 연방	9,174.2	9,868.0	10,737.0	12,034.9	13,404.3	14,212.1	14,789.4
중앙 연방관구	10,182.1	10,985.5	11,986.0	13,481.6	14,978.2	15,769.4	16,678.9
북서 연방관구	9,525.6	10,220.3	11,046.6	12,537.9	14,106.0	15,084.0	15,771.4
남부 연방관구	8,528.3	9,099.6	9,834.9	11,362.3	12,735.0	13,353.6	13,898.8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8,220.8	8,987.5	9,572.1	11,073.8	12,359.1	13,324.0	13,832.0
프리볼시스키 연방관구	8,180.7	8,874.9	9,671.5	10,959.3	12,169.5	12,959.0	13,341.4
우랄 연방관구	9,393.6	10,122.4	10,954.7	12,029.5	13,406.8	14,136.5	14,641.8
시베리아 연방관구	8,446.9	9,185.5	10,023.4	11,116.4	12,382.5	13,177.6	13,568.2
극동 연방관구	11,958.6	12,840.3	14,022.5	15,427.0	16,857.6	17,650.1	17,929.3
사하 공화국(아쿠티야)	12,056.9	12,772.7	13,715.8	14,901.9	16,747.5	17,874.2	18,692.0
캄차트카 변경	15,875.7	16,853.3	17,841.7	19,501.4	22,970.5	24,385.3	24,445.5
프리모리예 변경	11,188.6	11,895.0	13,012.1	14,636.0	16,118.1	16,925.9	17,119.4
하바롭스크 변경	12,162.2	13,254.8	14,292.5	15,436.6	17,206.9	17,627.0	17,848.0
아무르 주	10,552.6	11,179.0	12,120.4	13,318.5	14,742.1	14,930.5	15,162.1
마가단 주	13,597.6	14,800.5	16,323.3	17,527.7	19,692.2	20,576.2	21,380.3
사할린 주	13,374.0	14,044.3	14,787.6	16,337.4	17,001.2	17,975.2	17,985.4
유대인 자치주	10,845.1	12,020.4	13,621.1	14,445.3	15,681.2	16,259.5	16,898.5
추코트카 자치구	16,157.7	17,580.6	18,694.8	19,481.8	21,005.7	23,101.6	23,173.9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2018b),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ведения мониторинг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оимость фиксированного набор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для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опоставлений покупатель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246601078438](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246601078438)(검색일: 2018. 8. 22).

그리고 극동지역은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주택 부족으로 인해 주택비용이 높다. [표 2-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 극동 연방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3.5㎡이며, 8개 연방관구 중 공동 5위로 하위권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서 주거면적의 증가속도가 매우 느리며, 이 지역 주민들의 전체 지출에서 주택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중이 제일 높다(표 2-8 참고).<sup>22)</sup> 극동 연방관구에서 주택비의 비중은 주로 인구가 적은

22)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номинальная начислен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работников организаций; Стоимость фиксированного

표 2-7. 1인당 평균 주거면적

(단위: m<sup>2</sup>, 기간 말)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러시아 연방	20.8	22.6	23	23.4	23.4	23.7	24.4	24.9
중앙 연방관구	22	24	24.4	24.8	24.3	25.1	26.1	26.5
북서 연방관구	22.6	24.7	24.9	25.4	24.6	24.4	25.7	26.3
남부 연방관구	19.7	21.9	22.2	22.6	22.9	22.4	22.9	23.4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18	18.1	18.6	19.1	19.7	20	20.3	20.7
프리볼시스키 연방관구	20.7	22.7	23.2	23.6	24	24.5	25.1	25.6
우랄 연방관구	20.3	22.3	22.6	22.9	23.2	23.7	24.2	24.6
시베리아 연방관구	19.8	21.4	21.7	22.1	22.2	22.6	23	23.5
극동 연방관구	20.4	21.8	22.1	22.4	22.4	22.9	23.2	23.5
사하 공화국(아쿠티야)	19.4	20.2	20.4	20.7	20.6	21.1	21.5	21.7
캄차트카 변경	22.4	24.2	24.4	24.7	24.6	25	25.2	25.5
프리모리예 변경	19.4	20.8	21.1	21.4	21.7	22.1	22.4	22.6
하바롭스크 변경	20.4	21.8	22.1	22.3	22.4	22.8	23.1	23.3
아무르 주	20.6	22.2	22.5	23	23.2	23.8	24.3	24.6
마가단 주	26.6	28.4	28.6	29	29	29.3	29.7	29.8
사할린 주	21.6	23.6	24.2	24.7	24.1	25.3	25.2	25.8
유대인 자치주	20.8	22.1	22.6	23	21.2	21.6	22	22.4
추코트카 자치구	27.9	30.4	30	29.7	25.9	25.4	25.5	25.6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2018d),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БЩАЯ ПЛОЩАДЬ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ПРИХОДЯЩАЯСЯ В СРЕДНЕМ НА ОДНОГО ЖИТЕЛЯ, [http://www.gks.ru/free\\_doc/new\\_site/region\\_stat/sep\\_region.html](http://www.gks.ru/free_doc/new_site/region_stat/sep_region.html)(검색일: 2018. 11. 2).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마가단 주, 아무르 주, 캄차트카 변경, 추코트카 자치구 순이다.

인프라원 리서치(InfraONE Research)에서 발표한 2017년 러시아 연방의 구성체별 인프라 종합평가지수에 따르면, 극동 연방관구의 인프라 종합평가지수는 5.7로 러시아 연방의 종합평가지수와 같으나, 8개의 연방관구 중 5위를 차지했다.<sup>23)</sup> 즉 극동 연방관구의 인프라 현황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열악한 편

набор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для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опоставлений поку- патель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Удельный вес расходов домашних хозяйств оп- лату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http://www.gks.ru>(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8. 22).

표 2-8. 지역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주택비용

(단위: %)

구분	2005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러시아 연방	8.3	9.2	8.8	8.8	8.9	9.5	10.1
중앙 연방관구	8.1	8.7	8.6	8.6	9.2	10.5	10.5
북서 연방관구	8.7	9.9	9.6	10.0	9.0	9.2	10.0
남부 연방관구	8.3	9.5	9.6	9.7	9.3	8.8	10.2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	7.6	8.5	7.7	7.7	7.9	8.5
프리볼시스키 연방관구	8.7	9.1	8.5	8.3	8.3	9.2	9.5
우랄 연방관구	7.9	9.5	8.7	8.9	9.3	10.0	10.8
시베리아 연방관구	7.9	9.3	8.5	8.3	8.5	9.0	9.4
극동 연방관구	9.5	10.7	9.9	9.6	9.5	10.1	11.1
사하 공화국(아쿠티야)	6.7	8.6	7.6	7.8	8.0	9.2	9.7
캄차트카 변경	10.2	14.9	13.3	12.7	12.6	12.6	13.5
프리모리예 변경	10.5	9.4	9.0	8.8	8.8	9.0	10.4
하바롭스크 변경	9.0	10.5	9.2	9.2	9.4	9.6	10.4
야무르 주	11.0	16.0	13.6	12.9	11.3	12.8	14.0
마가단 주	9.6	14.3	12.7	13.9	12.6	13.6	15.8
사할린 주	11.8	9.1	10.6	9.2	9.1	9.7	11.3
유대인 자치주	8.2	11.3	8.3	8.8	9.3	9.6	10.9
추코트카 자치구	6.6	8.1	9.9	8.9	10.5	12.0	12.4

주: 2017년 데이터는 아직 게재되지 않음.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2018e),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Удельный вес расходов домашних хозяйства оплаты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http://www.gks.ru/free\\_doc/new\\_site/region\\_stat/sep\\_region.html](http://www.gks.ru/free_doc/new_site/region_stat/sep_region.html)(검색일: 2018. 8. 22).

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문별로는 교통부문이 가장 열악하며, 공공부문도 러시아 평균치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부문에서는 러시아 평균치와 비슷하거나 약간 웃돌았다(표 2-9 참고). 지방별로 살펴볼 때, 캄차트카 변경이 모든 부문에서 평균치를 상회하여 비교적 무난한 인프라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사하 공화국은 모든 부문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하여 가장 열악한 인프라

23) 인프라원 리서치(InfraONE Research)는 투자계획 및 다양한 부문의 인프라 사업을 분석한다. 인프라 평가지수는 △교통 △에너지 인프라 △사회(학교, 병원 등) △공공(전기, 수도 등) △통신 부문의 평가지수를 종합한 것이다.

표 2-9. 극동 연방관구 인프라 순위 및 부문별 지수(2017년)

순위	지방명	인프라 종합평가지수	교통	에너지	사회	공공	통신
	러시아 연방	5.70	3.24	5.23	5.75	6.89	6.48
	극동 연방관구	5.70	2.99	5.32	6.15	6.67	6.48
8	추코트카 자치관구	<b>6.14</b>	3.15	4.63	<b>7.54</b>	<b>7.38</b>	<b>6.79</b>
12	마가단 주	<b>6.03</b>	2.67	5.13	<b>6.84</b>	<b>7.24</b>	<b>7.03</b>
14	캄차트카 변경	<b>6.01</b>	<b>3.38</b>	<b>5.75</b>	<b>6.15</b>	<b>7.20</b>	<b>6.84</b>
24	사할린 주	<b>5.92</b>	<b>3.36</b>	<b>5.54</b>	<b>6.11</b>	5.85	<b>7.86</b>
36	하바롭스크 변경	<b>5.83</b>	<b>3.41</b>	4.96	5.68	<b>7.36</b>	<b>6.89</b>
48	프리모리예 변경	5.66	3.13	<b>6.27</b>	5.36	6.56	6.25
60	아무르 주	5.52	3.10	<b>5.41</b>	<b>6.29</b>	6.34	5.78
71	유대인 자치주	5.39	2.87	<b>5.27</b>	<b>6.05</b>	6.28	5.76
82	사하 공화국(아쿠티야)	4.82	1.87	4.91	5.36	5.79	5.15

주: 1) 지수는 0~10 사이로 측정되며, 10이 최고치임.

2) 굵은 글씨는 러시아 연방 평균보다 높은 지수를 의미함.

3) 2017년 종합평가지수 1위는 모스크바 시로 7.78점, 85위 다게스탄은 4.35점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극동 연방관구 종합평가지수는 러시아 연방의 종합평가지수와 같이 5.70임.

자료: InfraONE Research(2018a),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России: индекс развития," pp. 1-24; InfraONE Research(2018b),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рынк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pp. 20-45, <https://infraone.ru/#analitika>(검색일: 2018. 10. 26).

라 여건을 가진 곳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프라 측면에서 캄차트카 변경, 사할린 주가 비교적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된다.

극동 연방관구에서 가장 열악한 교통인프라부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역의 철도 밀집도는 1만km<sup>2</sup>당 14.0km로 러시아 연방의 평균 철도 밀집도인 1만km<sup>2</sup>당 50km보다 훨씬 낮다(표 2-10 참고). 프리모리예 변경, 아무르 주, 사할린 주, 유대인 자치주의 철도 밀집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사하 공화국은 매우 낮아 사실상 다른 지방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추코트카 자치구, 캄차트카 변경, 마가단 주에는 철도 자체가 없다.

극동 연방관구 공용 포장도로의 밀집도도 1만km<sup>2</sup>당 9.5km로 러시아 연방 평균 1만km<sup>2</sup>당 62.0km에 비해 매우 낮다(표 2-11 참고). 극동 연방관구에서 공용 포장도로의 밀집도가 러시아 연방 평균보다 높은 곳은 프리모리예 변경, 유대

표 2-10. 극동 연방관구 철도 밀집도

(단위: 1만km<sup>2</sup>당 km)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러시아 연방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극동 연방관구	13.0	13.0	14.0	14.0	14.0	14.0	14.0	14.0
사하 공화국(야쿠티아)	0.5	2.0	2.0	2.0	2.0	2.0	2.0	2.0
프리모리예 변경	94.0	95.0	95.0	95.0	95.0	95.0	95.0	95.0
하바롭스크 변경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아무르 주	81.0	81.0	81.0	81.0	81.0	81.0	81.0	81.0
사할린 주	92.0	92.0	96.0	96.0	96.0	96.0	96.0	96.0
유대인 자치주	141.0	141.0	141.0	141.0	141.0	141.0	141.0	141.0

주: 추코트카 자치구, 캄차트카 변경, 마가단 주는 철도 부재.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2018c),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19. ТРАНСПОРТ, [http://www.gks.ru/free\\_doc/new\\_site/region\\_stat/sep\\_region.html](http://www.gks.ru/free_doc/new_site/region_stat/sep_region.html)(검색일: 2018. 7. 13).

인 자치주, 아무르 주 3곳인데, 이들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지나가는 극동의 주요 지역이다. 극동지역의 교통 중심지인 만큼 이 지방들의 공용 포장도로 밀

표 2-11. 극동 연방관구 공용 포장도로 밀집도

(단위: 1만km<sup>2</sup>당 km)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러시아 연방	31.0	39.0	43.0	54.0	58.0	60.0	61.0	62.0
극동 연방관구	5.4	6.1	6.2	8.2	8.8	9.1	9.5	9.5
사하 공화국(야쿠티아)	2.5	2.7	2.7	3.3	3.6	3.7	3.8	3.8
캄차트카 변경	3.1	3.6	3.6	3.9	4.0	4.1	4.2	4.2
프리모리예 변경	43.0	52.0	51.0	88.0	89.0	89.0	93.0	92.0
하바롭스크 변경	6.2	7.4	7.5	8.0	11.0	12.0	12.0	12.0
아무르 주	20.0	22.0	23.0	30.0	30.0	31.0	34.0	35.0
마가단 주	4.8	4.7	4.7	5.3	5.2	5.3	5.3	5.4
사할린 주	9.0	14.0	14.0	20.0	21.0	22.0	23.0	23.0
유대인 자치주	42.0	46.0	48.0	57.0	66.0	69.0	68.0	68.0
추코트카 자치관구	0.8	0.8	0.9	0.9	1.0	0.9	0.9	1.0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2018c),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19. ТРАНСПОРТ, [http://www.gks.ru/free\\_doc/new\\_site/region\\_stat/sep\\_region.html](http://www.gks.ru/free_doc/new_site/region_stat/sep_region.html)(검색일: 2018. 7. 13).

집도는 2005년 이후 크게 높아졌다. 다른 지방의 경우는 포장도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철도가 부재한 추코트카 자치구, 캄차트카 변경, 마가단 주의 경우 도로 사정도 열악하여 육로를 통한 교통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 3. 극동 연방관구의 산업구조

극동 연방관구를 지방별로 살펴보면, 매우 상이한 경제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리아레이팅이 발표한 '2017년 러시아 연방구성체의 사회·경제 상황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극동 연방관구 소속 지방들의 상황이 다양하게 평가되었다.<sup>24)</sup> 러시아의 85개 연방구성체 중에 사할린 주가 17위로 극동 연방관구

표 2-12. 극동 연방관구 사회·경제 상황 평가 결과(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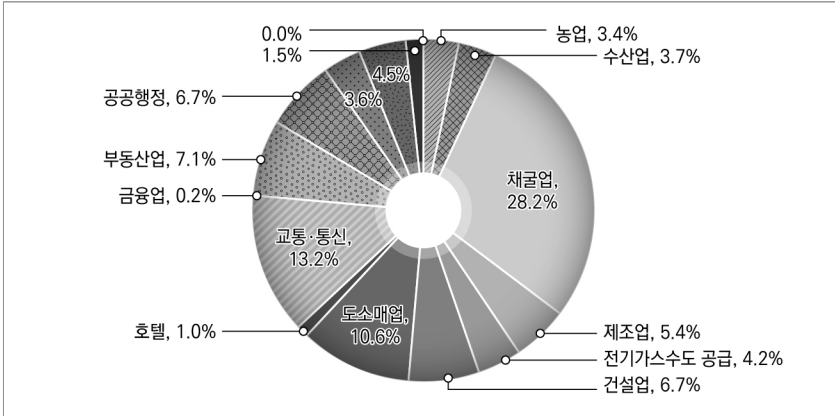
극동 연방관구	2017년 점수	전년 대비 점수 변화	2017년 순위	전년 대비 순위 변화
사할린 주	54.78	- 5.52	17	- 8
사하 공화국(아쿠티야)	51.97	+ 0.09	21	-
프리모리예 변경	48.75	- 1.86	26	-
하바롭스크 변경	45.89	- 2.16	37	- 6
아무르 주	40.11	- 1.18	51	- 2
캄차트카 변경	38.97	+ 1.06	55	+ 3
마가단 주	33.29	- 3.83	62	- 2
추코트카 자치구	27.35	- 4.55	72	- 5
유대인 자치주	12.78	- 0.36	85	-

주: 1위를 차지한 모스크바 시는 78.49점을, 2위에 오른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는 71.20점을 받았다.  
 자료: РИА Рейтинг(2018b), "РЕЙТИНГ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СУБЪЕКТОВ РФ ИТОГИ 2017 ГОДА," pp. 29-30, <http://riarating.ru/infografika/20180523/630091878.html>; РИА Рейтинг(2017b), "РЕЙТИНГ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СУБЪЕКТОВ РФ ИТОГИ 2016 ГОДА," pp. 31-32, <http://riarating.ru/regions/20170530/630063753.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0. 26).

24) 리아레이팅은 러시아 연방구성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표들을 만들어 평가 및 분석한다. '러시아 연방구성체의 사회·경제 상황 평가'에서는 러시아의 각 지방을 대상으로 △경제규모(3개 항목) △경제효율성(4개 항목) △예산부문(4개 항목) △사회부문(4개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1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와 순위를 매긴다.

그림 2-3. 극동 연방관구 산업구조(2016년)

(단위: %)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검색일: 2018. 7. 13)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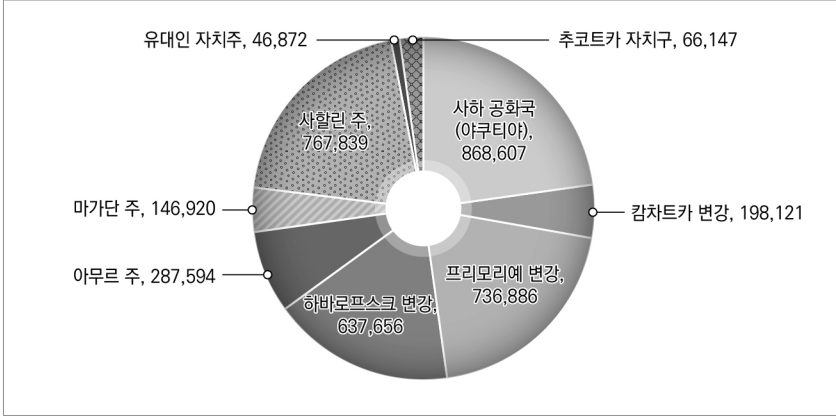
지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유대인 자치주는 가장 낮은 순위인 85위를 기록했다(표 2-12 참고). 극동 연방관구 지방들의 사회·경제 상황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는 러시아 경기가 둔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극동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나빠졌다. 극동지역에서 캄차트카 변경이 유일하게 3개 순위가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경제적 효율성과 재정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이었다.<sup>25)</sup>

극동 연방관구 지방들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2-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극동 연방관구에 지하자원이 풍부한 만큼 채굴업이 기간산업으로서 자리하고, 교통·통신, 도소매 등의 서비스 부문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2016년 기준 채굴업은 2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통·통신 부문이 13.2%, 도소매업이 10.6%, 건설업이 6.7%, 제조업이 5.4%로 그 뒤를 잇는다.

25) РИА Рейтинг(2018b), “РЕЙТИНГ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СУБЪЕКТОВ РФ ИТОГИ 2017 ГОДА,” pp. 1-47, <http://riarating.ru/infografika/20180523/630091878.html>(검색일: 2018. 10. 26).

그림 2-4. 극동 연방관구 지역별 GRP 비중(2016년)

(단위: 백만 루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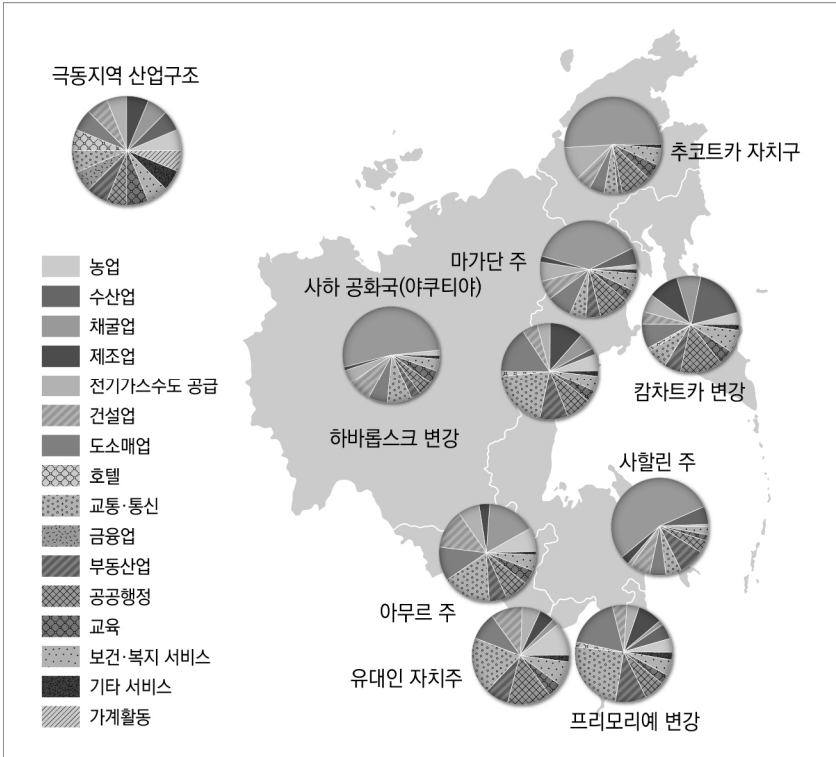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검색일: 2018. 7. 13)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극동 연방관구의 지방별 GRP의 비중을 보면, 대개 사할린 주와 사하 공화국이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1위와 2위를 다툰다(그림 2-4 참고). 2016년에는 사하 공화국이 2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할린 주가 20.4%를 기록했다. 그리고 프리모리예 변경이 19.6%, 하바롭스크 변경이 17.0%로 4개의 지방이 극동 연방관구 GRP의 80.2%를 차지한다. 즉 이 지역의 경제를 앞의 4개 지방이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극동 연방관구의 원자재에 대한 산업 편중은 지방별로 살펴볼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그림 2-5와 표 2-13 참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추코트카 자치구, 사하 공화국, 마가단 주, 사할린 주의 경우 2016년 기준 채굴업의 비중이 각각 50.1%, 51.6%, 38.9%, 5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무르 주의 경우에도 채굴업의 비중이 15.8%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사할린 주는 에너지 연료, 사하 공화국은 에너지 및 비에너지 자원, 추코트카 자치구와 아무르 주는 비에너지 자원을 주로 생산한다. 캄차트카 변경은 수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산업이 1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2-5. 극동 연방관구 지역별 산업구조(2016년)



주: 농업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이 포함됨.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검색일: 2018. 7. 13)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일부 지방의 경우 교통·통신, 도소매업 등 서비스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지나가는 프리모리예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주의 경우 교통·통신의 비중이 각각 24.1%, 20.2%, 16.3%, 18.2%로 높게 나타났다. 극동지역에서 비교적 인구가 많은 프리모리예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에서도 도소매업의 비중이 각각 18.3%, 15.6%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극동 연방관구의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방은 하바롭스크 변경, 캄차트카 변경, 프리모리예 변경인데, 각 지역의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 10.2%, 8.8%로

표 2-13. 극동지역의 산업구조(GRP 구성비)

(단위: %)

2016	러시아 연방	극동 연방 관구	사하 공화국 (아쿠타이)	캄차트카 변경	프리 모리에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	아무르 주	마기단 주	사할린 주	유대인 자치주	추코트카 자치구
농업	5.1	3.4	1.7	3.3	4.5	5.7	8	1.4	1	11.1	0.5
수산업	0.3	3.7	0	18.7	5.4	2.2	0	5.3	5.2	0	0.2
채굴업	10.9	28.2	51.6	7.7	1.3	5.7	15.8	38.9	54	2.2	50.1
제조업	17.3	5.4	1.1	10.2	8.8	11.4	3.4	1.7	2.8	5.1	0.4
전기·가스·수도 생산 및 공급	3.9	4.2	4.5	6	3.6	4.3	7.3	6.4	1.4	5.8	11.3
건설업	6.3	6.7	8.2	4.1	4.8	5.1	13.1	6.2	6.3	10.5	5.2
도소매업	16.9	10.6	6.1	8.2	18.3	15.6	11	8.2	5.6	9.3	4.7
호텔·요식업	1.1	1.0	0.6	1.3	1.5	1.3	0.9	0.7	0.6	0.9	0.2
교통·통신업	9.5	13.2	8	6.5	24.1	20.2	16.3	5.6	5.1	18.2	4.4
금융업	0.5	0.2	0.1	0.1	0.3	0.3	0.2	0.1	0.1	0.2	0.1
부동산업	14.6	7.1	3.4	5.5	10	9	5.8	4.5	8.9	7.4	1.1
공공행정서비스	4.9	6.7	5.1	13.9	6.8	8.2	7.7	9.9	3.7	14.8	10.3
교육	3.0	3.6	4.4	4.8	3.1	4.1	4.3	3.8	1.8	4.4	4.6
보건·사회서비스	4.0	4.5	3.8	7.6	5.1	5.3	5.2	5.7	2.7	8.2	5.7
기타 서비스	1.7	1.5	1.4	2.1	2.4	1.6	1	1.6	0.8	1.9	1.2

주: 농업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이 포함됨.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검색일: 2018. 7. 13).

러시아 전체의 제조업 비중 17.3%에 비해서도 낮다. 하바롭스크 변경, 프리모리에 변경의 경우 운송기기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단순 식품가공에 집중되어 있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의 발전은 저축 증가, 가계소비 지탱, 중요소생산성 향상, 인적자원과 제도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sup>26)</sup> 특히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발전한다면, 극동지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극동지역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발전을 통한 산업 다각화 또는 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sup>27)</sup>

26) Dan Su and Yang Yao(2016), "Manufacturing as the key Engine of Economic Growth for Middle-Income Economies," *ADBI Working Paper Series*, pp. 12-14.

앞서 제시된 극동 연방관구의 지방별 산업구조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 극동지역 간 산업협력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분석을 진행했다. 산업경쟁력을 파악하는 데에는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극동지역에 대한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산업부문별 특화 정도를 측정하는 특화계수분석(Location Quotient Analysis) 방법론을 채택했다. 특화계수 계산식은 [식 2-1]과 같다.

$$LQ = R_i / N_i \quad \text{[식 2-1]}$$

LQ: 특화계수(전국= 1)

R<sub>i</sub>: 해당 지역 i산업의 역내총생산액 구성비

N<sub>i</sub>: 전국 i산업의 국내생산액 구성

특화계수는 지역의 산업 구성과 전국의 평균적 산업 구성 간 상대적 편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국을 1로 놓고 이보다 클수록 해당 산업부문은 ‘특화되었다’고 판단한다. 특화계수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 산업구조에 비해 해당 산업부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집적에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집적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의 주요 산업(기간산업, 성장산업)을 파악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sup>27)</sup>

특화계수를 분석한 결과 극동 연방관구에서 수산업, 채굴업의 특화계수가

27) World Bank(2015), “World Bank Group Engagement in Resource-Rich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s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Kazakhstan, Mongolia, and Zambia.” Clustered Country Program Evaluation Synthesis Report, p. 28.

28) 수출비중이 큰 산업은 전국적으로 산업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로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도 특화계수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특화계수 분석의 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가치구성비, 노동자구성비를 같이 살펴보면서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 간담회(한국메니페스트정책연구소 이사장 염동호).

표 2-14. 극동 연방관구 특화계수

특화계수	2010년			2016년		
	기업	종업자 수	부가가치	기업	종업자 수	부가가치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농업	1.59	0.76	0.20	1.28	0.96	0.67
수산업	30.44	-	17.33	8.99	-	12.33
채굴업	2.74	2.35	4.95	2.88	2.28	2.59
제조업	0.76	0.46	0.16	0.71	0.59	0.31
전기가스수도 생산 및 공급	1.47	1.47	0.36	1.38	1.66	1.08
건설업	1.22	1.58	1.00	1.06	1.01	1.06
도소매업	0.68	0.84	0.33	0.85	0.93	0.63
호텔·요식업	1.10	1.19	0.55	0.98	0.96	0.91
교통·통신업	1.28	1.25	0.54	1.44	1.28	1.39
금융업	0.80	-	0.20	0.87	-	0.40
부동산업	0.88	0.89	0.61	0.89	0.77	0.49
공공행정서비스	1.52	-	0.76	1.54	-	1.37
교육	1.10	0.98	0.60	1.20	1.13	1.20
보건·사회서비스	0.93	1.13	0.68	1.13	1.10	1.13
기타 서비스	1.34	0.92	0.47	1.17	0.85	0.88
기타	-	1.30	-	-	-	-

주: 1) 농업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이 포함됨.

2) 1보다 클 경우 특화되었다. 즉 상대적인 생산성이 높다고 풀이되며, 1보다 작을 경우 상대적인 생산성이 낮다고 풀이된다. 굵은 글씨는 1보다 큰 수.

자료: 전문가 간담회(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이사장 염동호, 비공개 자료).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 부문의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전기가스수도 생산 및 공급, 건설업, 교통·통신업, 공공행정서비스, 교육, 보건·사회서비스 등도 특화계수 1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4 참고).

극동지역의 기간산업과 성장산업을 구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하여 정의해보았다. 즉 기간산업은 ① 특화계수가 높고 ② GR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③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성장산업은 규모가 크든 작든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산업이다. 2016년 기준 극동 연방관구에서 비중이 높은

표 2-15. 극동지역의 GRP 구성비 변화(2010~16년)

(단위: %)

	전국	극동 연방 관구	사하 공화국 (아루티야)	캄차트카 변강	프리 모리에 변강	하바 롭스크 변강	아무르 주	마가단 주	사할린 주	유대인 자치주	추코트카 자치구
농업	18.6	-10.5	-45.2	-5.7	9.8	-6.6	15.9	-36.4	0.0	-13.3	-54.5
수산업	50.0	32.1	0.0	-1.6	22.7	83.3	0.0	23.3	136.4	0.0	-85.7
채굴업	4.8	16.0	28.7	87.8	18.2	26.7	54.9	88.8	-8.9	633.3	31.2
제조업	-2.3	1.9	-47.6	34.2	8.6	31.0	-10.5	-32.0	-20.0	-3.8	-55.6
전기가스수도 생산 및 공급	-13.3	-4.5	7.1	-9.1	-16.3	-18.9	14.1	-21.0	16.7	9.4	-23.1
건설업	-8.7	-44.6	-4.7	-48.1	-72.3	-62.5	-24.3	1.6	-24.1	-55.3	-16.1
도소매업	-12.9	0.0	-23.8	-21.2	13.7	11.4	11.1	-17.2	7.7	-7.0	-31.9
호텔·요식업	10.0	25.0	-25.0	8.3	87.5	62.5	12.5	-36.4	-14.3	-30.8	0.0
교통·통신업	-9.5	0.0	-27.9	25.0	14.2	21.0	-25.6	-46.2	13.3	61.1	-18.5
금융업	-16.7	-33.3	-66.7	-66.7	-40.0	-25.0	-33.3	-50.0	-50.0	0.0	0.0
부동산업	28.1	10.9	-37.0	19.6	38.9	-9.1	23.4	-27.4	58.9	54.2	-42.1
공공행정서비스	-2.0	-9.5	-13.6	-8.6	-9.3	-7.9	-8.3	-41.1	2.8	15.6	-16.3
교육	0.0	5.9	-4.3	-9.4	6.9	-2.4	7.5	-11.6	20.0	12.8	15.0
보건·사회서비스	8.1	7.1	-13.6	-2.6	34.2	17.8	13.0	-5.0	0.0	13.9	1.8
기타 서비스	21.4	50.0	0.0	61.5	200.0	33.3	25.0	23.1	60.0	46.2	9.1

주: 1) 농업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이 포함됨.

2) 이탤릭체는 기간산업, 굵은 글씨는 성장산업을 의미함.

자료: 전문가 간담회(한국메니페스토정책연구소 이사장 염동호, 비공개 자료).

산업은 채굴업, 교통·통신업, 부동산업, 건설업 등이다(표 2-13 참고). 성장률이 높은 산업은 수산업, 호텔·요식업, 부동산업 등이다(표 2-15 참고). 이를 정리하면 극동지역의 기간산업은 ① 채굴업 ② 교통·통신업 ③ 건설업이며, 성장산업은 ① 수산업 ② 호텔·요식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극동지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이 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2016년 기준 극동 연방관구의 각 지방별로 경쟁력이 높은 산업은 [표 2-16]과 같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수산업에서 경쟁력을 나타낸 지방은 캄차트카 변강, 프리모리에 변강, 하바롭스크 변강, 마가단 주, 사할린 주이다. 채굴업에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사하 공화국, 아무르 주, 마가단 주, 사할린

표 2-16. 부가가치 기준 극동 연방관구 지역별 특화계수

	사하 공화국	캄차트카 변강	프리모리예 변강	하바롭스크 변강	아무르 주	마가단 주	사할린 주	유대인 자치주	추코트카 자치구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농업	0.33	0.65	0.88	1.12	1.57	0.27	0.20	2.18	0.10
수산업	0.00	62.33	18.00	7.33	0.00	17.67	17.33	0.00	0.67
채굴업	4.73	0.71	0.12	0.52	1.45	3.57	4.95	0.20	4.60
제조업	0.06	0.59	0.51	0.66	0.20	0.10	0.16	0.29	0.02
전기가스수도 생산 및 공급	1.15	1.54	0.92	1.10	1.87	1.64	0.36	1.49	2.90
건설업	1.30	0.65	0.76	0.81	2.08	0.98	1.00	1.67	0.83
도소매업	0.36	0.49	1.08	0.92	0.65	0.49	0.33	0.55	0.28
호텔·요식업	0.55	1.18	1.36	1.18	0.82	0.64	0.55	0.82	0.18
교통·통신업	0.84	0.68	2.54	2.13	1.72	0.59	0.54	1.92	0.46
금융업	0.20	0.20	0.60	0.60	0.40	0.20	0.20	0.40	0.20
부동산업	0.23	0.38	0.68	0.62	0.40	0.31	0.61	0.51	0.08
공공행정서비스	1.04	2.84	1.39	1.67	1.57	2.02	0.76	3.02	2.10
교육	1.47	1.60	1.03	1.37	1.43	1.27	0.60	1.47	1.53
보건·사회서비스	0.95	1.90	1.28	1.33	1.30	1.43	0.68	2.05	1.43
기타 서비스	0.82	1.24	1.41	0.94	0.59	0.94	0.47	1.12	0.71

주: 1) 농업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이 포함됨.

2) 1보다 클 경우 특화되었다. 즉 상대적인 생산성이 높다고 풀이되며, 1보다 작을 경우 상대적인 생산성이 낮다고 풀이된다. 굵은 글씨는 1보다 큰 수.

자료: 전문가 간담회(한국메니페스트정책연구소 이사장 염동호, 비공개 자료).

주, 추코트카 자치구이다. 건설업에서 경쟁력을 보인 지역은 사하 공화국,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주이다. 호텔·요식업에서 두각을 나타낸 지역은 캄차트카 변강, 프리모리예 변강, 하바롭스크 변강이다. 교통·통신업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인 지방은 프리모리예 변강, 하바롭스크 변강, 아무르 주 등이다.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극동지역의 기간산업과 성장산업별로 경쟁력을 가지는 지방을 구분해보면 [표 2-16]과 같다. 기간산업인 채굴업의 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사하 공화국, 아무르 주, 마가단 주, 사할린 주이다. 건설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사하 공화국,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주이다. 교통·통신업의 경쟁력이 높은 지역은 프리모리예 변강, 하바롭스크

표 2-17. 극동지역 협력 유망산업

	극동 연방 관구	사하 공화국 (아쿠티야)	캄차트카 변강	프리 모리에 변강	하바 롭스크 변강	아무르 주	마가단 주	사할린 주	유대인 자치주	추코트카 자치주
농업				○	○				○	
수산업	△		△	△	△		△	△		
채굴업	□	□				□	□	□		□
건설업	□	□				□			□	
호텔·요식업	△		△	△	△					
교통·통신업	□			□	□	□			□	
교육서비스		○	○	○	○	○			○	○
보건·사회서비스			○	○	○	○			○	○

주: 1) 농업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이 포함됨.

2) □ 표시된 부문은 기간산업, △ 표시된 부문은 성장산업임. ○ 표시된 부문은 한국정부가 관심 있는 부문(‘9개의 다리’)을 추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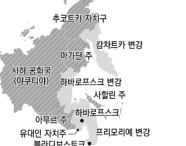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크 변강,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주이다. 성장산업인 수산업에 경쟁력 있는 지역은 캄차트카 변강, 프리모리에 변강, 하바롭스크 변강, 마가단 주, 사할린 주이다. 호텔·요식업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지방은 캄차트카 변강, 프리모리에 변강, 하바롭스크 변강 등이다.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하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높은 생활비, 열악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등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극동 연방관구의 만성적인 인구감소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원자재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한국과 극동지역 간 협력은 기간산업과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첨단기술 또는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표 2-18]은 극동지역의 제반 특징을 고려하여 정리한 협력방안이다.

먼저 채굴업, 수산업, 농업 등 원자재 기반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공기술을 접목하여 원자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며, 지역별로 특화

표 2-18. 극동 연방관구 지방별 사회·경제 특징을 고려한 한국과의 협력방안

한·극동지역 협력 산업			
구분	원자재 기반산업	첨단기술산업	서비스산업
방식	<p>한국 가공기술 접목 ↓ 산업고도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연구</li> <li>•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li> <li>• 기술이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무역 확대</li> <li>• 인적 교류 활성화</li> </ul>
	<p>(채굴업→석유·화학)</p>  <p>사하 공화국, 아무르 주, 마가단 주, 사할린 주, 추코트카 자치구</p>	<p>(ICT, 바이오)</p>  <p>사하 공화국, 프리모리예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p>	<p>(관광서비스)</p>  <p>캄차트카 변경, 프리모리예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p>
협력 산업 및 지방	<p>(수산업→수산물가공업)</p>  <p>캄차트카 변경, 프리모리예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p>		<p>(물류서비스)</p>  <p>프리모리예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주</p>
	<p>(농업→농산물가공업)</p>  <p>하바롭스크 변경, 프리모리예 변경, 유대인 자치주</p>		<p>(교육서비스)</p>  <p>사하 공화국, 캄차트카 변경, 프리모리예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 아무르 주</p>
			<p>(의료서비스)</p>  <p>캄차트카 변경, 프리모리예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 아무르 주</p>

주: 산업별 협력 대상 지방에서 기간산업은 특화계수 참고, 첨단기술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인프라와 인구를 기준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우 특화계수, 인구, 인프라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2017),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p. 1,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138625359016](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138625359016)(검색일: 2018. 7. 13)을 바탕으로 저자 편집.

된 산업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접근한다. 사하 공화국에는 LG상사가 유연 탄광, 화력발전, 수처리, 송배전 사업들에 진출한 사례가 있으므로,<sup>29)</sup> 이를 참고하여 현지에서 가공된 재화를 내수용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 활용하도록 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첨단기술 협력은 극동 연방관구의 모든 지방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고등교육기관이 확립되어 있으면서 인구가 비교적 많은 사하 공화국, 하바롭스크 변경, 프리모리에 변경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첨단기술 협력은 주로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의 형식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협력은 주로 관광부문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텔·요식업은 관광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극동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만큼 관광업 또는 호텔·요식업에서 협력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는 관광 또는 호텔·요식업 자체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분야의 경우 캄차트카 변경, 프리모리에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에서 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다. 교통인프라가 발달하면서 교통·통신업이 발전한 프리모리에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 아무르주, 유대인 자치주의 경우 물류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극동지역의 모든 지방이 필요로 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방들과 논의를 통해서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인구 수가 많고 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 갖춰진 프리모리에 변경과 하바롭스크 변경 등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는 대략적인 협력 분야와 방향에 대한 제시이며,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

29) 「LG상사, 사하공화국에 비즈니스센터 설립」, 『중앙일보』(2011. 6.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8. 23).

## 제3장



#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평가

1.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2.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성과와 과제



# 1.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극동개발정책은 동방정책(Pivot to Asia 또는 Turn to the East)의 일환이고, 2012년 5월 극동개발부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으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sup>30)</sup> 극동개발정책은 극동지역의 인구감소, 취약한 산업구조,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푸틴 집권 3기 들어서 극동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관련기관들의 신설(극동개발부 등) 및 개편 작업이 있었으며, 극동개발정책은 2014년 이후 경기악화와 극동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수시로 정책에 반영하느라 2016년, 2017년, 2018년 각 한 차례씩 총 세 차례 걸쳐 개정되었다.<sup>31)</sup> 즉 푸틴 3기(2012~18년)는 극동개발정책의 제도적 기반 형성기 또는 조정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푸틴 3기에 만들어진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수행 조직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러시아 극동개발을 추진하는 주요 기관으로 극동 사회·경제 발전 정부위원회, 극동개발부,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그리고 기타 수행기관들이 있다(그림 3-1 참고). 2012년에 설립된 극동개발부의 기능은 현재 연방

30)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진정책은 사실 전혀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러시아 역사 속에서 동진정책은 서방과 관계 악화 시 추진되곤 했다. 푸틴의 동진정책은 크게 경제적,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개발시킴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산업을 다각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정치적, 문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미래를 형성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Valdai Discussion Club(2018), "Toward the Great Ocean - 6: People, History, Ideology, Education, Rediscovering the Identity," Valdai Discussion Club Report Sep. 2018, p. 22.

31) 대개 러시아의 정책 및 제도는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며, 발표된 정책 및 제도는 현실에 적용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확립된다. 따라서 극동개발정책의 잦은 개정은 특정 정치적 또는 전략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며, 시행착오를 통해 극동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개발모델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시행착오 중 하나로 예산책정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장 2절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세르게이 루코닌 IMEMO 선임연구위원, 울가 쿠즈네초바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교수(2018. 10. 3, 모스크바); 미하일 리 극동개발부 서울대표와 면담(2018. 10. 11, 세종).

그림 3-1. 러시아 연방 극동개발 담당 조직도

극동 사회·경제 발전 정부위원회		
위원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2013. 9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동 연방관구 집행기관의 수행활동을 지원하고,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문제를 다룸.</li> <li>• 극동·바이칼 지역 최고집행기관간 협력을 조율함.</li> </ul>		
극동개발부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겸 부총리	극동개발 참여기관 (행정기관, 기업 등)
장관: 빅토르 이사예프, (2012. 5 ~ 2013. 9) 알렉산더 갈루쉬카, (2013. 9 ~ 2018. 5)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2018. 5 ~ 현재)	유리 투르트네프, (2013. 8 ~ 현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 국가 프로그램 및 연방목적 프로그램 수행활동을 조정, 연방자산관리(삼림펀드, 특별자연보호구역, 연방 전략 공기업, 개방형 주식회사 등 제외)</li> <li>• 과제: △극동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가진 선도사회 경제개발구역과 자유항의 투자유치 조성 및 개발 △극동 연방관구 투자사업 추진 △극동지역에 노동력 유치 및 유지, 시민에게 '극동 헥타르'라는 무료 토지 제공, 극동지역의 정부기관, 개발기관, 가게 간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극동 관리 및 개발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무: 극동지역 모든 기관의 업무 조정</li> <li>• 역할: 극동지역에서 대통령의 대내외정책과 인사정책을 수행하고, 극동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이 지역의 상황을 개선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li> <li>•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겸 러시아 연방 부총리는 연방 집행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을 지시함: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경제 복합발전정책 △ 극동 연방관구의 재정 지원 및 사용처 감시 △ 극동 연방관구의 투자사업 추진 및 예산 지출 효율성 제고 △ 투자매력도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동개발펀드: 2015년 설립, 투자사업에 대한 장기자금 지원</li> <li>• 극동개발공사: 2015년 설립, 선도개발구역 조성 및 관리</li> <li>• 극동투자수출지원청: 2015년 설립,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투자유치</li> <li>• 인적자본개발청: 2015년 설립, 투자사업 수행과 노동력 공급문제 해결,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수행</li> </ul>

자료: 저자 작성.

정부에 의해 확정된 국가 프로그램 및 연방목적 프로그램 수행활동 조정, 연방 자산 관리(다만 산림기금, 하층토 지대, 연방특별자연보호구역, 연방 대통령령에 의해 확정된 전략 공기업 및 개방형 주식회사 자산 등은 제외)로 규정된다.<sup>32)</sup> 극동개발부 장관직은 현재까지 해당 지역 출신 인사와 비출신 인사가 번갈아가면서 맡고 있다. 이는 시기별로 극동개발정책의 추진방향이 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베리아 연방관구 출신인 빅토르 이사예프 초대장관 시기에는 극동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정책을 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3)</sup> 이후 극동지역과 연고가 없는 알렉산더 갈루쉬카 장관 시기에는 극동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sup>34)</sup> 그리고 최근 극동 연방관구 출신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장관이 임명된 배경에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극동개발에 극동지역 기업, 엘리트, 주민들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sup>35)</sup>

32)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https://minvr.ru/about/polnomochiya-i-funktsii/>(검색일: 2018. 8. 23).

33) 극동개발부 첫 번째 장관인 빅토르 이사예프는 시베리아 연방관구 출신 인사로 1991~2009년간 하바롭스크 변경의 주지사, 이후 2013년까지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특사를 역임(2012~13년 극동개발부장관 겸임)하였다. 그러나 그는 2013년 아무르 주 홍수문제에 대해 미흡한 대처능력을 보였고, 극동 지역 주민의 불만을 사게 되어 곧 경질되었다. 「푸틴 대통령, 극동개발 대표 전직 경질」, 『연합뉴스』(2018. 8. 27),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9/01/0606000000AKR20130901060500080.HTML>(검색일: 2018. 8. 23).

34) 극동지역과 연고가 없는 갈루쉬카 전 장관이 임명되었던 이유는 극동지역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행정가를 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지역 출신자들은 해당 지역의 의미와 경쟁우위를 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제성훈 외(2014),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23, p. 95.

35)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장관 임명은 극동지역 대기업과 극동지역 엘리트층을 연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극동지역 출신 장관을 임명하여 현지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 있다. 갈루쉬카 전 장관이 재임한 5년간 극동개발부는 극동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부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즐로프 장관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으나, 극동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Козлова лишь продублирует ошибки Галушки?” *Regnum*(2018. 5. 22), <https://regnum.ru/news/2418618.html>(검색일: 2018. 8. 13); “Глава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Козлов задумался о душ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Regnum*(2018. 6. 9), <https://regnum.ru/news/2429273.html>(검색일: 2018. 8. 13).

당초 극동개발부 장관은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겸임했으나 2013년에 분리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개발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부총리직으로 승격시켰다. 대통령 전권대표는 현재 우랄 연방관구 페름 출신의 유리 투르트네프가 맡고 있으며,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경제 발전문제를 총괄한다. 특히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경제 복합발전정책 △극동 연방관구의 재정 지원 및 사용처 감시 △극동 연방관구의 투자사업 추진 및 예산지출 효율성 제고 △투자매력도 제고 등의 문제 해결을 지시한다.<sup>36)</sup>

같은 해 극동지역 제반문제를 다루는 극동 사회·경제 발전 정부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조직은 극동개발부의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극동 연방관구 집행기관의 수행활동을 지원하고,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극동·바이칼 지역 최고집행기관간 협력을 조율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직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맡고 있다.<sup>37)</sup>

그리고 극동개발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기관들도 설립되었다. 2011년 대외경제은행이 극동개발 자금지원을 위해 극동개발펀드(Far East Development Fund)를<sup>38)</sup> 설립했다. 이 펀드는 인프라, 채굴업, 가공업, 중소기업 지원,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우선순위 투자사업에 대한 장기자금(연 5% 이율)을 지원한다. 극동개발공사(Corporation for Far East Development)는<sup>39)</sup> 2015년에

---

36)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руководящих сотруднико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dfo.gov.ru/polpred/status/>(검색일: 2018. 8. 13). 그러나 사실상 경제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

37)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вопроса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http://government.ru/department/284/about/>(검색일: 2018. 8. 23).

38) Фонд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www.fondvostok.ru/about/>(검색일: 2018. 8. 16). 전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펀드(Фонд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가 극동개발펀드로 개명되었다.

39)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erdc.ru/>(검색일: 2018. 8. 16).

설립되었으며,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을 조성 및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선도개발구역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해 설립된 극동투자수출지원청(Far East Investment and Export Agency)은<sup>40)</sup>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투자를 유치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그리고 인적자본개발청(Far East Human Capital Development Agency)은<sup>41)</sup> 극동지역의 투자사업 수행과 노동력 공급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에 설립되었다. 2016년에 시작된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경제개발부도 극동개발에 적지 않게 관여하고 있다.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개발부는 극동개발정책의 공동수행부처이며,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일부 러시아 전문가들은 극동개발부보다 경제개발부가 더 큰 자금력을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극동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와 협력할 때, 극동개발부뿐만 아니라 경제개발부를 동시에 접촉하는 것이 보다 좋으며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sup>42)</sup>

2013년 3월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극동·바이칼 지역의 12개 산업분야에 관한 하부프로그램 등 방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안의 목표, 과제 등은 다소 포괄적이며 추상적으로 설정되었다. 다수의 하부 프로그램과 두 지역과 관련된 연방목적 프로그램을 모두 실행하기에는 시간적, 인적, 재정

40) Агентств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и поддержке экспорта, <https://investvostok.ru/en/>(검색일: 2018. 8. 16).

41)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s://hcfе.ru/>(검색일: 2018. 8. 16).

42) 전략기획청 이고르 쿠스타린 과장, 파벨 드로닌 프로그램 매니저, 알렉세이 골디치 선임분석가 면담(2018. 10. 2, 모스크바); 세르게이 루코닌, IMEMO 선임연구원, 올라 쿠즈네초바,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교수(2018. 10. 3, 모스크바).

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프로그램은 1년 만인 2014년 4월 전면 개정되었는데, 2013년도 프로그램 안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하부 프로그램, 참여 기관 등이 과감하게 축소되었다. 둘째, 교통·물류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조성과제가 설정되었다. 셋째,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발전 모델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투자혜택을 제공하는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의 제도가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 안은 극동개발정책의 핵심적인 틀을 형성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6년 개정본은 이전 안보다 체계화되었다.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기초는 유지되었다. 경제발전 환경 조성, 특히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한 목표와 과제가 설정 및 구체화되었다. 이 안에서 새롭게 제시된 공동수행부처, 참여부처, 과제, 목표, 하부 프로그램 등은 2018년 개정 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정책이행단계는 2014~20년(1단계), 2021~25년(2단계)으로 구분되었으며, 기존에 2020년까지만 제시되었던 예산계획이 2025년까지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극동지역 이주유인책으로 2016년 6월에 도입된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sup>43)</sup>

2017년 개정본에서는 평가지표, 예산, 기대효과가 조정되었다. 2016년 안에서는 평가지표로 GRP 성장률, 고정투자증가율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기대효과에서 언급된 내용과는 상이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개정본에서는 창출된(고속권) 일자리 수 등 과제 수행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조정되었다. 한편 러시아의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이 17.4% 축소되었으며, 기대효과도 하향 조정되었다. 투자유치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공기업들의 극동지역 투자 사업 및 인프라 개발 참여절차에 관한 정부령이 발표되었다. 러시아 공

---

43)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9 августа 2016 № 757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pp. 1-109.

업은 러시아 연방의 자본금 비중이 50%를 넘고, 정관자본 규모가 10억 루블 이상이어야 참여자격이 주어진다.<sup>44)</sup>

마지막으로 2018년 개정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극동 북극지대의 우선 발 전방향성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sup>45)</sup> 2015년에 이미 추코트카 자치구의 선도개 발구역이 정해졌고, 2016년 개정본부터 극동지역 북극지대의 개발이 ‘2020년 까지 러시아 연방 북극지역 발전과 국가안보전략’의 우선과제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서술되거나 강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개정본에서는 북극지대의 범위(사하 공화국 일부, 추코트카 자치구 전체)를 명시하고 선도개발구역을 통한 산업발전의 기반 강화가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푸틴 3기 동안 극동개발정책은 극동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때때 로 조정되고 구체화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개발을 전담하는 인사와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조정했다. 특히 극동지역의 각종 산업기반 확립과 인프라 구축 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민간 또는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또한 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을 조성하고, 각종 투자유치 프로그램 및 기관을 신설했다. 또한 인구유입을 위 해 파격적인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푸틴 3기의 극동개발정책은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인구유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거점지역의 발전을 최우선과제로 삼으면서 이를 통한 주 변지역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의도한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

44)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30 марта 2017 г. № 365 о внесении и изменени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pp. 1-103.

45)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30 марта 2018 г. № 362 о внесении и изменени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pp. 1-116.

표 3-1.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 개정본 비교

구분	2014. 4. 15	2016. 8. 9	2017. 3. 30	2018. 3. 30
책임수행 부처	극동개발부	극동개발부	극동개발부	극동개발부
공동수행 부처	-	경제개발부	경제개발부	경제개발부
참여부처 (기관)	지역개발부, 보건부, 교육과학부, 에너지부, 건설주택공사 설주택부, 도로청, 철도청, 해양안전교통청, 항 공교통청, 통신청, 어업청	재무부, 보건부, 교육과학부, 에너지부, 건설주택공사 비스부, 문화부, 산업통상부, 통신부, 비상사태부, 도로 청, 해양안전교통청, 항공교통청, 어업청	기준과 동일	기준과 동일
목적	- 극동·바이칼 지역 발전 가속화 -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인구 상황 개선	-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수준 제고 - 극동의 노동수요 확대와 인구 안정화	기준과 동일	기준과 동일
과제	- 도로 건설 및 보수를 통한 극동·바이칼 지역 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삶의 질 향상 - 철도 수송량 확대 및 항만 개발을 통한 극동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극동·바이칼 지역 을 통과하는 상품의 시간 내 배송 보장 - 극동·바이칼 지역 공항 보수를 통한 주민 이동성 제고 기반 마련	- 극동에 우호적인 투자 유치 환경을 갖춘 '선도 사회· 경제 발전 구역' 조성·발전 - 극동의 투자 프로젝트 수행 지원 - 바이칼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수행 지원 - 극동에 투자 및 노동력 유치 - 극동발전 가속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 극동·바이칼 지역의 복합적인 발전을 위한 교통· 에너지 인프라 개발 - 쿠릴 열도의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기준과 동일	기준과 동일

구분	2014. 4. 15	2016. 8. 9	2017. 3. 30	2018. 3. 30
하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부 과제 1.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프로그램 실행 지원 및 기타 영토 균형발전분야 행사</li> <li>- 연방목적 프로그램 1. 2018년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li> <li>- 연방목적 프로그램 2. 2007~15년간 쿠릴섬 사회·경제 발전</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극동·바이칼 지역의 선도적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li> <li>2. 극동지역의 투자프로젝트 수행 지원</li> <li>3. 바이칼 지역의 투자프로젝트 수행 지원</li> <li>4. 극동의 투자매력도 제고</li> <li>5. 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수행 보장 및 기타 국토균형 발전조치</li> </ol> <p>※ 연방목적 프로그램: 1.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2. 2007~15년 쿠릴 열도(사린 주) 사회·경제 발전 3. 2016~25년 쿠릴 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 발전</p>	기준과 동일	기준과 동일
지표	<p>GRP 성장률, 러시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GRP의 비중, GRP에서 제조업의 비중, 투자증가 지표, 러시아 전체 예산 중 극동 투입액 비중, 인구</p>	<p>GRP 성장률, 고정투자증가율, 극동·바이칼 상주 거주 인구, 극동·바이칼 지역의 연방 세입액</p>	<p>창출된 일자리 수, 창출된 고속도로 건설 길이, 선도개발구역에 투입된 누적투자액, 극동·바이칼 지역 상주인구, 극동·바이칼 지역의 연방 세입액</p>	-
추진단계	1단계: 2014~25년	1단계: 2014~20년 / 2단계: 2021~25년	기준과 동일	기준과 동일
예산	346,165,032,900루블	511,841,873,600루블 ※ 하부 프로그램 1, 2가 전체 예산의 약 71% 차지	422,654,041,900루블 (17.4% 감소) ※ 하부 프로그램 1, 2가 전체 예산의 약 77% 차지	390,726,859,320루블 (7.6% 감소) ※ 하부 프로그램 1, 2가 전체 예산의 약 72% 차지
	기간: 2014~20년	기간: 2014~25년	기준과 동일	기준과 동일

표 3-1. 계속

구분	2014. 4. 15	2016. 8. 9	2017. 3. 30	2018. 3. 30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동지역의 사회·경제 선도개발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li> <li>- 상주인구 증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조건 마련</li> <li>- 생산 및 사회 인프라 구축</li> <li>-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 실현</li> <li>- 전통산업발전과, 체류업 및 제조업의 새로운 첨단기술 생산 중심을 조성하기 위한 전제조건 형성</li> <li>-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투자 활성화</li> <li>- 투자규모 2.2배 확대</li> <li>- 새로운 고속권 일자리 창출, 노동자원의 더 효율적인 활용</li> <li>- 교통·잠재력 개발을 통한 고립문제 해결</li> <li>- 인적자원 질 제고, 삶의 질 제고, 주민의 사회 보장 등을 제공하는 (교육, 보건, 주거부문을 포괄한) 사회인프라 현대화</li> <li>-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1,075만 명으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동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제구조 현대화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무역·경제 관계 강화 조건 마련</li> <li>-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극동·바이칼 지역 투자 활성화</li> <li>- 극동지역에 프로그램 실행 결과, 일자리 10만 3,300개 (고속권 일자리 1만 6,420개 포함)창출</li> <li>-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상주인구 1,120만 명으로 확대</li> <li>- 극동·바이칼 지역의 교통경제력 개발을 통한 화물 운송량 확대와 고립문제 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까지 극동에 일자리 9만 7,800개 창출</li> <li>- 2025년까지 극동에 고속권 일자리 1만 5,300개 창출</li> <li>- 2025년까지 극동의 투자프로젝트 및 선도개발구역 임주기업의 총투자액 2조 3,517억 루블 달성</li> <li>-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인구 1,120만 명까지 확대</li> <li>- 2025년까지 극동지역 연방세입액 2조 1,130억 루블 달성</li> <li>- 순이주인 유입 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까지 극동에 9만 8,100개의 일자리 창출</li> <li>- 2025년까지 극동에 1만 8,260개의 고속권 일자리 창출</li> <li>- 2025년까지 극동의 투자프로젝트 및 선도개발구역 임주기업의 총투자액 2조 2,568억 루블 달성</li> <li>-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인구를 1,120만 명까지 확대</li> </ul>

구분	2014. 4. 15	2016. 8. 9	2017. 3. 30	2018. 3. 30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정책안에 비해 보다 체계화 및 구체화되었음. 즉 다양한 허브 프로그램, 단계별 계획,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 등이 이루어졌음.</li> <li>- 극동지역에는 북극지역에 해당하는 자원이 위치하는데 (사하 공화국의 일부, 추코트가 자치구) 이 지방들의 발전은 '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 북극지역 발전과 국가안보전략'의 우선과제와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함.</li> <li>- 새로운 극동발전모델은 아·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상품·서비스 수출에 기반하며, 이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도 필요로 함.</li> <li>- 허브 프로그램 1에 러시아인 또는 러시아 국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극동지역의 땅 1헥타르를 무료로 제공하 는 프로그램과 북극항로 개발 경쟁모델의 기초개념 정의가 포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정책안에 비해 예산 이 줄어들었음. 특히 줄어든 예산은 2016~19년간 책정 된 것임.</li> <li>- 기대효과도 경기상황을 반 영하여 하향조정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동 북극지역의 우선 발전 방향: 북극지대 범위를 명시 (사하 공화국 일부, 추코트 카 자치구 전체), 선도개발 구역 조성을 통한 산업발전 기반 강화</li> </ul>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15 апреля 2014 № 308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pp. 1-27;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9 августа 2016 № 757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pp. 1-10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30 марта 2017 г. № 365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pp. 1-103;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30 марта 2018 г. № 362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pp. 1-116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은 푸틴 3기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선도개발구역은 극동지역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산업기반, 낮은 경쟁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생산거점을 만들기 위해, 자유항은 열악한 물류환경을 개선하고 아·태지역과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각각 도입되었다. 두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극동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아·태지역으로 수출될 수 있는 생산과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sup>46)</sup> 또한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은 극동지역의 외딴 곳에 인구를 유치하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개발을 위한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의 개요와 최근까지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선도개발구역 프로그램: 생산거점 투자환경 개선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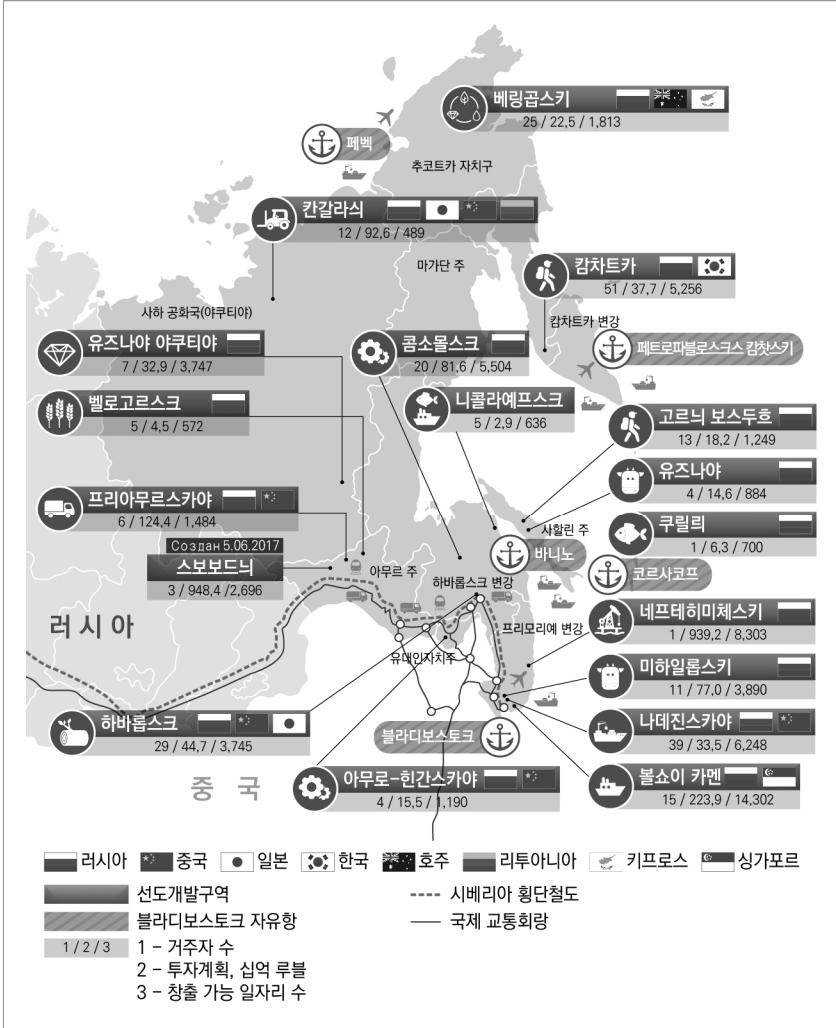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Territories of Accelerated Socio-Economic Development, 이하 선도개발구역)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을 위해 고안해 낸 과감한 투자환경 개선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선도개발구역은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가속화와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삼으며, 사업 및 기타 활동을 위해 지정된 러시아 영토의 일부로 정의된다.<sup>47)</sup> 주지하듯이 극동지역은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낮은 수준의 지역개발, 인프라 및 교통의 불균형 발전, 전문적인 노동인력 부족 등의 발전과제를 갖고 있다.<sup>48)</sup>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은 2013년 12

46) 변현섭(2016), 「러시아 자유항 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와 협력방안」, 『슬라브연구』, 제32권 1호, p. 3.

47)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2014), Федеральнй закон от 29 декабря 2014 г. N 473-ФЗ,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rg.ru/2014/12/31/territorii-dok.html>(검색일: 2018. 8. 29).

48)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4), "Совещание о господдержке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www.kremlin.ru/news/46522> (검색일: 2018. 8. 29).

그림 3-2. 극동지역 18개 선도개발구역 위치



주: 2018년 4월 13일 기준.

자료: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s://minvr.ru/activity/territorii-operezhayushchego-razvitiya/>(검색일: 2018. 8. 23).

월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에 수출지향적인 비원료부품 기업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갖춘 '선도경제발전 특별구역'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49) 이에 2015년

3월 「선도개발구역 연방법」이 발효되었다.

2018년 4월 현재 극동지역에는 총 18개의 선도개발구역이 만들어졌다(그림 3-2 참고). 지역별로 보면, 프리모리예 변경 4곳, 하바롭스크 변경 3곳, 아무르 주 3곳, 사할린 주 3곳, 사하 공화국 2곳, 그리고 유대인 자치주, 캄차트카

표 3-2. 극동지역 18개 선도개발구역 개요

지방명	구역 명칭	지정시기	특화산업	총면적 (ha)	실제 투자분야
프리모리예 변경	나데진스카야	2015. 6	가공업 · 물류	3,763.27	식품가공, 부품 · 자재 생산
	미하일롭스키	2015. 8	농업	171,700	농축산
	볼쇼이 카멘	2016. 1	조선 · 제조업	8,124	조선, 주택건설
	네프테히미체스키	2017. 3	석유화학	39,000	석유화학, 자원개발, 자재 생산
하바롭스크 변경	하바롭스크	2015. 6	산업 · 물류 · 야금	13,580.95	농업, 부품 · 자재 생산, 공항시설
	콤포몰스크	2015. 6	항공기 제조	8,200	목재가공, 폐기물 처리, 항공기 포함 운송기 부품 제조, 수산가공
	니콜라예스크	2017. 4	수산 · 물류	531,311	수산가공
아무르 주	프리야무르스카야	2015. 8	산업 · 물류	11,070	원자재가공, 물류창고
	벨로고르스크	2015. 8	농업	3,000	식품가공, 자재 생산
	스보보드니	2017. 6	석유화학	29,400.6	가스화학
사할린 주	고르니 보스두흐	2016. 3	관광	19,400	관광
	유즈나야	2016. 3	농업	36,800	농업, 산업
	쿠릴리	2017. 8	수산 · 관광	12	-
캄차트카 변경	캄차트카	2015. 8	산업 · 물류 · 관광	983,000	관광, 축산, 제조, 물류, 통신
추코트카 자치구	베링콤포스키	2015. 8	광업	15,900,000	자원 개발
유대인 자치주	아무로 · 힌간스카야	2016. 8	농축산업	23,400	농업
사하 공화국	칸갈라시	2015. 8	산업	38,289,480	농업, 제조업
	유즈나야 야쿠티야	2015. 12	광업	23,294,400	광산개발

자료: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2018),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 pp. 1~70;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s://investmap.erd.ru/app>(검색일: 2018. 11. 5)를 참고 저자 편집.

4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3),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http://www.kremlin.ru/news/19825>(검색일: 2018. 8. 28).

표 3-3. 선도개발구역 부문별 순위

입주기관 수			투자금액(십억 루블)		일자리 수	
1	캄차트카	37	스보보드니	1,077	볼쇼이 카멘	6,550
2	나데진스카야	36	네프테히미체스키	658	나데진스카야	4,432
3	하바롭스크	25	볼쇼이 카멘	163	네프테히미체스키	4,420
4	베링굽스키	24	프리아무르스카야	124	콤포소물스크	3,418
5	콤포소물스크	18	미하일롭스키	61	미하일롭스키	2,986

주: 이 자료는 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기대되는 입주기관 수, 투자금액, 일자리 수임.

자료: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2017), "Отчет за 2017 год," p. 14, <https://erdc.ru/about/> (검색일: 2018. 8. 29).

변강, 추코트카 자치구에 각 1곳이 지정되었다. 주로 남부지역에 선도개발구역이 조성되었으며, 마가단 주에는 선도개발구역이 부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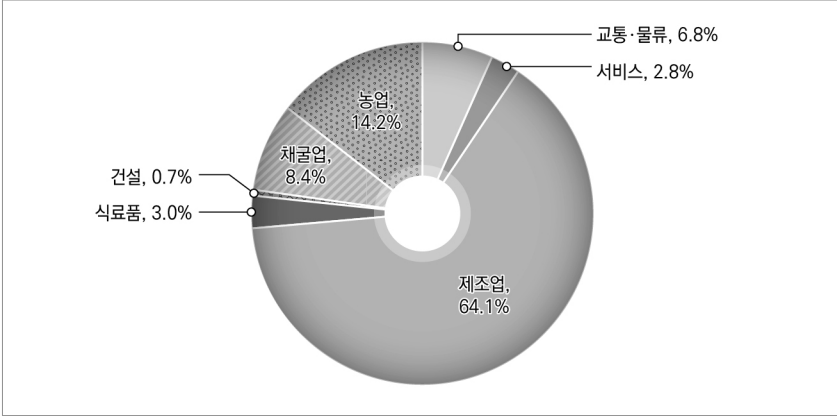
각 선도개발구역은 주로 기존에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둔 산업을 바탕으로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다(표 3-2 참고). 18개 선도개발구역의 특화산업은 크게 ① 농수산업 ② 채굴업 ③ 제조업(경공업, 중화학공업), ④ 물류 ⑤ 관광업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극동지역 개발정책에 전략산업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선도개발구역에서 선정한 특화산업을 고려하면, 위의 5개 산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산업들은 [표 2-16]에서 표시된 기간산업 및 성장산업과 일정 부분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앞으로 새롭게 육성시켜야 하는 부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극동개발공사는 최근까지 총 18개 선도개발구역에 총 일자리 5만 4,061개 창출, 302개 기업의 입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년 말 기준 211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일자리는 3만 9,667개가 창출되며, 약 2.2조 루블이 투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sup>50)</sup> 입주자 면에서는 캄차트카, 나데진스카야, 하바롭스크, 베링굽스키, 콤포소물스크 순으로 성과를 보였다. 투자금액 면에서는 스보보드니,

50)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2017), "Отчет за 2017 год," p. 14, <https://erdc.ru/about/> (검색일: 2018. 8. 29).

그림 3-3. 선도개발구역 부문별 투자 비중

(단위: %)



자료: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2017), "Отчет за 2017 год," p. 15. <https://erdc.ru/about/> (검색일: 2018. 8. 29)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네프테히미체스키, 볼쇼이 카멘, 프리아무르스카야, 미하일롭스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볼쇼이 카멘, 나테진스카야, 네프테히미체스키, 콤소몰스크, 미하일롭스키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3-3 참고).

2017년 말 기준 선도개발구역에 계획된 부문별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약 3,658억 루블(64.1%)로 가장 많았다. 농업이 810억 루블(14.2%), 채굴업은 482억 루블(8.4%), 교통·물류 387억 루블(6.8%)을 각각 기록했다(그림 3-3. 참고). 또한 선도개발구역에 투자하기로 한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수산, 관광), 중국(농업, 수산, 제조업, 에너지, 관광 등), 일본(농업, 관광), 호주(에너지), 베트남(축산), 싱가포르(조선), 이스라엘(수산), 리투아니아(제조), 네덜란드(조선) 등으로 구분된다.<sup>51)</sup>

51)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2018),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 pp. 1~70.

## 나. 자유항 프로그램: 물류 투자환경 개선책

러시아 정부는 선도개발구역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프로그램(Vladivostok Free Port, 이하 자유항)을 도입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12월 자유항 프로그램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자유항 관련 연방법은 2015년 10월에 발효되었다. 당시 자유항은 프리모리예 변강에만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sup>52)</sup> 2016년 7월 개정으로 극동지역의 캄차트카 변강, 하바롭스크 변강, 사할린 주, 추코트카 자치구 등의 지역에서도 조성될 수 있게 되었다.<sup>53)</sup> 자유항 프로그램에는 극동지역을 아·태지역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자유항 프로그램은 프리모리예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여 아·태지역과 경제통합을 이루고, 아·태지역 국가들과 무역을 발전시키며, 아·태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발전, 극동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sup>54)</sup> 즉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이 아·태지역 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하고 국제화물을 유치하여 아·태지역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거듭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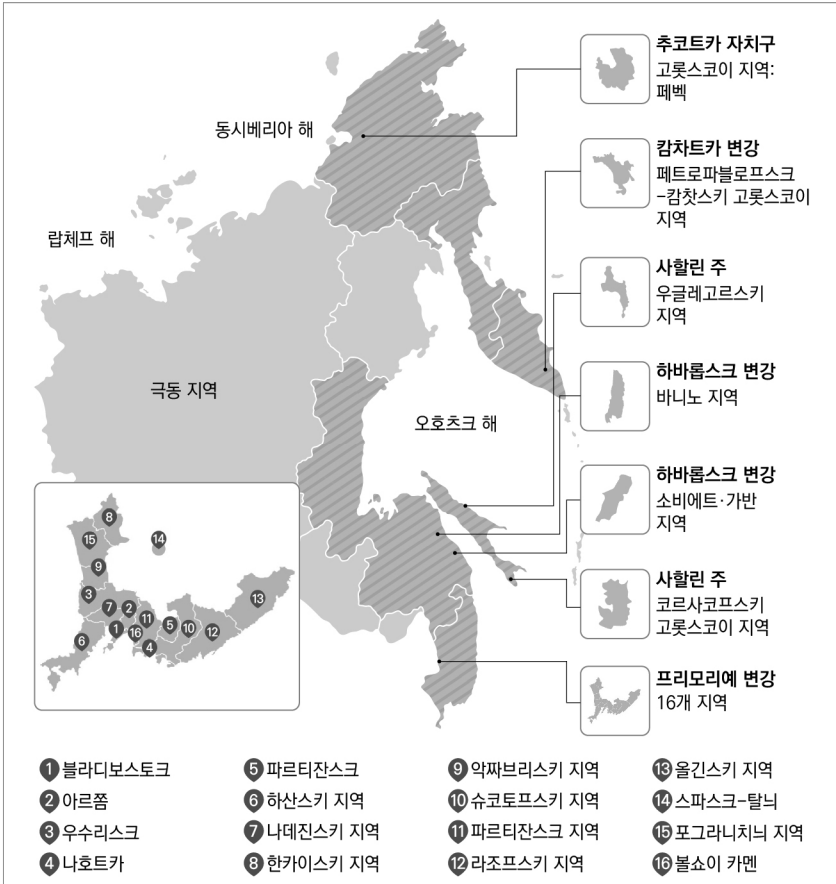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자유항은 극동지역에 총 22개가 지정되었다(그림 3-4 참고). 프리모리예 변강 16곳, 하바롭스크 변강 2곳, 사할린 주 2곳, 추코트카 자치구, 캄차트카 변강에 각각 1곳이 위치하고 있다. 자유항은 프리모리예 변강에 집중되어 있으며, 바다를 접하지 않는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주와

52) 아르쭘, 블라디보스토크, 볼쇼이 카멘, 나호트카, 파르티잔스크, 스파스크 달니, 우수리스크, 나테진스키 지역, 슈코토프스키 지역, 약짜브리츠키 지역, 올긴스키 지역, 파르티잔스크 지역, 포그라니치니 지역, 하산 지역, 한카이 지역 등 프리모리예 변강의 15개 지역이 지정되었다.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3 июля 2015 г. N 212-ФЗ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https://rg.ru/2015/07/15/fz212-dok.html>(검색일: 2018. 8. 29).

53)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201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 июля 2016 г. N 25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https://rg.ru/2016/07/06/territ-dok.html>(검색일: 2018. 8. 29).

54)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201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3 июля 2015 г. N 212-ФЗ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https://rg.ru/2015/07/15/fz212-dok.html>(검색일: 2018. 8. 29).

그림 3-4.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위치



자료: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ртал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https://invest.khv.gov.ru/Biznes-predlozhenie/Svobodnyj-port-/2639>(검색일: 2018. 8. 24).

북극해를 접하고 있는 사하 공화국, 그리고 마가단 주에는 지정되지 않았다.

극동개발공사는 최근까지 22개의 자유항에 총 5만 1,967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820개 기업이 입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7년에는 432개 기업이 자유항에 입주하기로 하였고, 3만 5,891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3,660억 루블의 투자가 유치되었다고 발표하였다.<sup>55)</sup> 자유항이 프리모리예 변

55)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2017), "Отчет за 2017 год," p. 23, <https://ercd>.

표 3-4. 자유항 부문별 순위

	지방명	입주기관 수	투자금액(십억 루블)	일자리 수
1	프리모리에 변경	368	268	32,753
2	하바롭스크 변경	10	82	1,724
3	캄차트카 변경	39	4.3	763
4	사할린 주	13	10.1	670
5	추코트카 자치구	2	0.001	6

주: 이 자료는 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기대되는 입주기관 수, 투자금액, 일자리 수임.

자료: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2017), "Отчет за 2017 год," p. 23, <https://erdc.ru/about/> (검색일: 2018. 8. 29).

강에 집중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입주기관, 투자액, 일자리 수 모두 이 지역이 가장 많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지정된 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과가 적은 편이다. 이 가운데 하바롭스크 변경은 투자액 면에서 2위를 차지했다. 캄차트카 변경은 입주자 면에서 2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추코트카 자치구 자유항은 2개의 기관을 유치하여 100만 루블을 투자받았고, 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표 3-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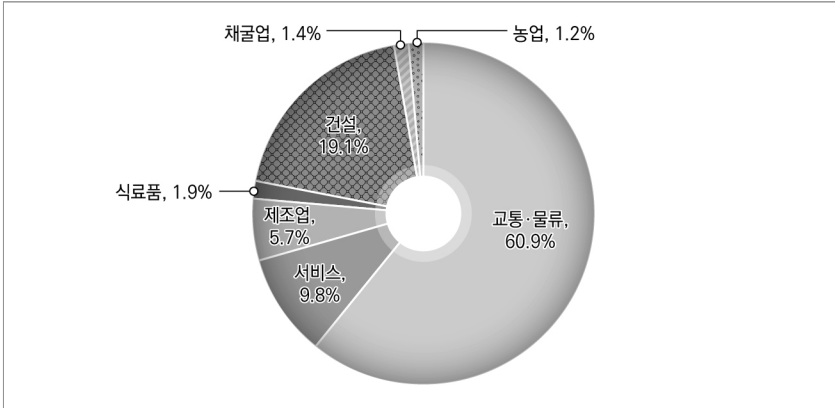
2017년 말 기준 자유항에 예정된 부문별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물류·교통 부문이 2,232억 루블(60.9%)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이 700억 루블(19.1%), 서비스업 359억 루블(9.8%), 제조업 208억 루블(5.7%)을 각각 기록했다(그림 3-5 참고). 또한 자유항에 유입될 외국인투자는 제조업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25.0%, 건설 17.9%를 차지했다. 자유항에 투자하기로 한 외국계 기업은 총 28개로 주로 중국, 일본, 한국계로 구성되었다.<sup>56)</sup>

ru/about/(검색일: 2018. 8. 29).

56)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2017), "Отчет за 2017 год," p. 25, <https://erdc.ru/about/> (검색일: 2018. 8. 29).

그림 3-5. 자유항 부문별 투자 비중

(단위: %)



자료: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2017), "Отчет за 2017 год," p. 24, <https://erdc.ru/about/> (검색일: 2018. 8. 29)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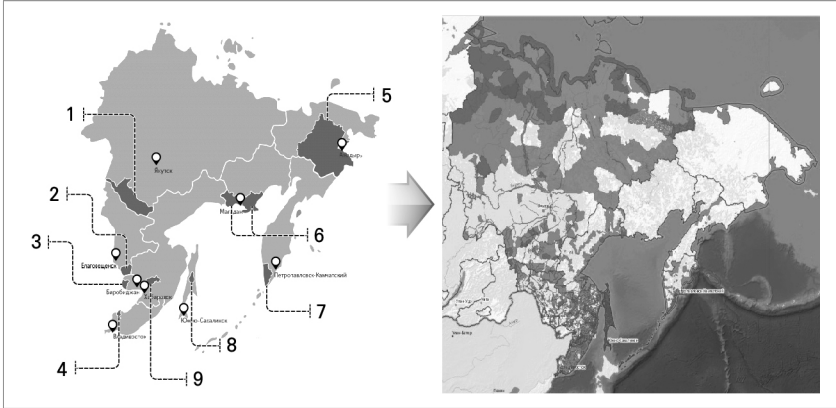
## 다.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인구유입책

극동지역 이주 유인책으로 토지를 무상 분배하는 ‘극동 헥타르(Far Eastern Hectare)’와 관련된 법안이 2016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극동 연방관구의 상주인구 유치 △지역주민 유출 감소 △극동지역 개발 △주민들의 경제활동 확대 △유입된 인구 고용 △유입된 인구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유입된 인구에 편안한 환경 제공 등 극동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에 있다.<sup>57)</sup> 극동 헥타르 신청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련 지역의 토지 무료공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정보와 지원은 인적자본개발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sup>58)</sup>

57) “Иностранцы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Парламентская газета (2018. 6. 20), <https://news.rambler.ru/other/40143276-inostrantsy-smogut-poluchit-dalnevostochnyy-gektar/>(검색일: 2018. 8. 20).

58)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https://minvr.ru/activity/razvitie-msp-i-konkurentsii/dalnevostochnyy-gektar/>(검색일: 2018. 8. 20).

그림 3-6. 극동 헥타르 초기 제공 지역과 2017년 2월 이후 확대된 범위



주: 1) 왼쪽 그림 - 1. 네룬그린스키 지역, 사하 공화국, 2. 아르하린스키 지역, 아무르 주, 3. 악짜브리스키 지역, 유대인 자치주, 4. 한카이스키 지역, 프리모리예 변경, 5. 아나디르스키 지역, 추코트카 자치구, 6. 올린스키 지역, 마다간 주, 7. 우스트·볼셰레츠키 지역, 캄차트카 변경, 8. 티모프스키 지역, 사할린 주, 9. 아무르스키 지역, 하바롭스크 변경.

2) 오른쪽 그림 - 밝은 부분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며, 나머지 극동 연방관구 지역은 극동 헥타르 제공 지역임.  
 자료: “Вперёд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сем бесплатный гектар!”, ГОСНОВОСТИ (2016. 6. 10),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етодическое пособие для граждан «Объединения граждан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ах»”, p. 9, <https://hcfе.ru/services/programm-far-east-hectare/settlement/>(검색일: 2018. 8. 30).

‘극동 헥타르’ 연방법 제2조에 따르면, 공동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토지는 1헥타르(3,025평)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토지는 5만 명 인구 도시에서 10km 이상, 30만 명 인구 도시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아울러 제공받은 토지는 외국인, 무국적자 및 외국법인에 기증, 양도, 매매될 수 없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 토지는 회수된다. 제20조에 따라 토지 신청은 2034년까지 가능하며, 이 법은 2039년까지 유효하다.<sup>59)</sup> 2017년 2월 개정에 따라 ‘극동 헥타르’ 권한기관의 역할이 조정됨과 동시에, 제공하는 토지 규모가 확대

59) Федеральнй закон от 1 мая 2016 г. N119-ФЗ,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ражданам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находящихс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ли муницип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располож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я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ходящих в соста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6. 5. 6), <https://rg.ru/2016/05/05/uchastki-site-dok.html>(검색일: 2018. 8. 30).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1.982억 헥타르의 토지가 제공될 예정이다(그림 3-6 참고).<sup>60)</sup>

인적자본개발청은 극동 헥타르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일례로 ‘극동 헥타르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라는 통합상거래장을 도입하고자 하며,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정보기술 플랫폼인 ‘헥타르 온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극동 헥타르’의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로 협력을 하도록 유도한다.<sup>61)</sup> 또한 극동 헥타르의 자영업자는 2035년까지 개인소득세와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sup>62)</sup>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약 2년간 117,000명이 토지를 신청했으며, 40,300명이 토지를 받았다. 토지 신청은 프리모리에 변경, 사하 공화국, 하바롭스크 변경, 사할린 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중 약 20%가 극동 이외 지역의 거주민이었는데, 이 중 모스크바, 모스크바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거주민이 가장 많았다. 신청자의 41%가 주택건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26%는 농사, 13%는 별장건축, 12%는 관광분야 사업, 8%는 카페와 상점 등 기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sup>63)</sup>

또한 최근까지는 러시아 국민에게만 토지를 무상 분배했으나, 현재 외국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이 포함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외국인은 러시아계 또는 CIS 국가 국민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국적을 획득한 이후 토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까지 외국인 5,348명이 이 프로그램

---

60) “Программ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исполнилось 2 года,” Sakhalin.info(2018. 6. 1), <https://sakhalin.info/news/152884>(검색일: 2018. 8. 20).

61)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итоги 2017 года,”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17. 12. 28), <https://minvr.ru/press-center/news/11684/>(검색일: 2018. 8. 20).

62) “Земля даст волю” Россий ская газета(2018. 2. 1), <https://rg.ru/2018/02/01/reg-dfo/vl-adelcev-dalnevostochnogo-gektara-osvobodiat-ot-nalogov-do-2035-goda.html>(검색일: 2018. 8. 30).

63) “Программ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исполнилось 2 года,” Sakhalin.info(2018. 6. 1), <https://sakhalin.info/news/152884>(검색일: 2018. 8. 20).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극동개발부는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매년 3,000명의 신청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64)</sup>

러시아인들은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 설문조사 기관인 브찌옴(ВЦИОМ)에 의하면, 극동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보다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이 극동지역 인구유인책으로서의 효과를 높게 평가했으며, 무상 토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은 프리모리예 변강, 하바롭스크 변강, 아무르 주, 캄차트카 변강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극동지역 중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프리모리예 변강, 하바롭스크 변강, 아무르 주, 사할린 주가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가 높은 임금수준과 가정의 삶이 보장될 경우 극동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을 거라고 답했다. 특히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가족의 사회보장, 유치원 및 학교 시설이 잘 갖추어지면 극동지역에 사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응답자는 극동지역이 15~20년 후 러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곳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sup>65)</sup>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일부 성공적인 정착 사례가 만들어질 경우 극동 연방관구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라. 주요 투자촉진제도

특별투자협약(Special Investment Contracts)이라는 투자촉진책은 러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5년 7월 정부령으로 발표되었다.<sup>66)</sup> 현재 산업개발펀드

64) “Иностранцы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Парламентская газета (2018. 6. 4), <https://www.pnp.ru/economics/inostrancy-smogut-poluchit-dalnevostochnyy-gektar-2.html>(검색일: 2018. 8. 20).

65) ВЦИОМ(2016),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мониторинг миграционной ситуац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pp. 1-15.

6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6 июля 2015 г. N 708 г. Москв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контрактах для отдельны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2015. 7. 21), <https://rg.ru/2015/07/21/kontrakt-site-d>

(Industrial Development Fund)가 전담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sup>67)</sup> 특별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루블을 투자해야 하며, 제품생산 또는 현대화, 신기술 도입, 새로운 제품생산 발전 등과 관련되어야 한다. 조세 및 각종 특혜는 협약에 명시하며, 협약은 사업규모에 따라 15년(500억 루블 이하 또는 20년까지(500억 루블 이상) 유효하다.

최근까지 25개의 협약이 체결되어 총투자액은 2,684억 루블이며, 9,815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산업별로는 주로 의료·의약, 기계, 자동차, 화학 등의 부문에서 체결되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주로 러시아 서부지역에서 체결되었으며, 극동지역에서는 프리모리예 변경의 마즈다·솔러스 매뉴팩처링루스사가 자동차 제조 부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sup>68)</sup>

2014년 1월 ‘극동 연방관구 및 개별 연방주체에서 지역투자사업 수행 촉진을 위한 러시아 연방 조세법 1, 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상품생산을 위하여 ‘지역투자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부랴티야 공화국, 투바 공화국, 자바이칼리예 변경, 이르쿠츠크 주, 사하 공화국, 캄차트카 변경, 프리모리예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 마가단 주, 사할린 주, 유대인 자치주, 추코트카 자치구 등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사업에만 적용된다. 자본투자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5,000만 루블, 5년 이내 5억 루블 이상이 투자되고, 사업당 단일 참여자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지역투자사업에 해당된다. 지역투자사업에 대한 특혜는 5,000만 루블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5억 루블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2031년

---

ok.html(검색일: 2018. 8. 30).

67) 이 기관은 러시아 산업의 현대화와 새로운 산업 형성과 수입대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펀드가 지원하는 분야는 식품(바이오기술 관련), 섬유, 의류, 가축제품, 목재 가공 및 제품, 종이 제품, 화학제품, 의약 및 의료기기,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제품, 금속생산, 금속가공제품, 컴퓨터·전자·광학제품, 전자기기, 기계·기기, 자동차, 운송기기, 가구, 기타 완제품, 기계·기기 조립 및 수리 등이다. Industrial Development Fund, <http://idfrf.org/>(검색일: 2018. 8. 30).

68) ФРП, “Специаль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контракты (СПИК),” pp. 14-17, <http://frprf.ru/download/prezentatsiya-mekhanizma-spetsialnykh-investitsionnykh-kontraktov-po-postanovleniyu-pravitelstva-708-ot-16-07-2015.pdf>(검색일: 2018. 11. 30). 해당 링크의 파일은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재검색 시 전혀 다른 데이터가 제시될 수 있음.

까지 제공된다.<sup>69)</sup>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윤세는 첫 5년간 0~10%(일반 20%), 그 다음 5년간 10~18%가 적용되며, 지하자원채굴세는 10년간 0~0.8% 부가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별다른 성과는 없다. 이미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등 파격적인 특혜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사업제도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2.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성과와 과제

극동개발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극동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 절에서는 형성된 제도들이 투자환경 개선, 투자 및 인구 유치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평가하고, 한계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 푸틴 4기 극동개발정책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먼저 투자환경 개선성과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러시아 전략기획청은 2014년부터 지방별 투자환경 평가를 실시했다. 2018년까지 총 다섯 차례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방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래서 투자환경 개선 여부를 일률적으로 비교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이 자료를 근거로 평가해볼 것이다. 2014년에는 지방별 투자환경 평가가 시범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러시아의 85개 연방구성체 중 21개가 참여했다. 규제환경, 사업제도, 인프라 및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의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지방별 투자환경의 등급이 정해졌다(표

---

69) Федеральнь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асти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реал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отдельны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09.2013 N 267-ФЗ,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152473/3d0cac60971a511280cbba229d9b6329c07731f7/](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152473/3d0cac60971a511280cbba229d9b6329c07731f7/)(검색일: 2018. 8. 30); Федеральньй закон от 23 мая 2016 г. N 14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2016. 5. 25), <https://rg.ru/2016/05/25/kodeks-dok.html>(검색일: 2018. 8. 30). 해당 링크의 파일은 수시로 업데이트되어 재검색 시 해당 내용이 없거나 달라질 수 있음.

표 3-5. 2014년 러시아 연방구성체의 투자환경 순위

	지방명	등급	규제환경	사업제도	인프라 및 자원	중소기업 지원
1	칼루가 주	I	1	1	1	1
2	울라놉스크 주	I	2	1	4	1
3	크라сно야르스크 주	I	1	2	1	3
4	타타르 공화국	I	2	3	2	1
5	코스트로마 주	I	2	2	3	2
6	톨라 주	II	2	2	3	3
7	크라сно다르 변경	II	1	4	2	4
8	톰스크 주	II	3	4	3	2
9	알타이 변경	II	3	1	4	5
10	블라디미르 주	III	4	3	3	4
11	로스토프 주	III	3	4	2	5
12	첼랴빈스크 주	III	4	4	3	2
13	레닌그라드 주	III	5	1	2	5
14	사마라 주	IV	4	4	5	1
15	하바롭스크 변경	IV	5	3	3	3
16	모스크바	IV	5	3	2	4
17	사하 공화국	IV	5	4	3	1
18	스베돌롭스크 주	V	4	5	2	4
19	스타프로폴 변경	V	4	5	4	2
20	상트페테르부르크	V	5	5	2	3
21	프리모리예 변경	V	5	5	5	5

자료: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ЙТИНГ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СУБЪЕКТАХ РФ, <https://asi.ru/investclimate/rating/>(검색일: 2018. 9. 3).

3-5 참고). 극동 연방관구에서는 하바롭스크 변경, 사하 공화국, 프리모리예 변경이 참여했으며, 각각 15위, 17위, 21위로 하위권을 차지한 바 있다. 하바롭스크는 사업제도, 인프라 및 자원, 중소기업 지원 항목에서 중간등급을 받았으며, 사하 공화국은 중소기업 지원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 프리모리예 변경은 모든 항목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후 지방별 투자환경 평가는 규제환경(13개 지표), 사업제도(10개 지표), 인프라 및 자원(12개 지표), 소기업 지원(9개 지표)<sup>70)</sup>의 평가항목에 대해서

표 3-6. 2018년 러시아 연방구성체의 투자환경 순위

극동 연방관구	2018년 순위	전년 대비 순위 변화	2018년 점수	전년 대비 점수 변화
하바롭스크 변경	18	+ 22	259.23	+ 29.09
캄차트카 변경	32	+ 36	253.94	+ 38.90
아무르 주	35	+ 12	252.60	+ 23.87
사할린 주	37	+ 42	250.78	+ 43.40
마가단 주	44	+ 13	246.99	+ 24.06
사하 공화국(아쿠티야)	52	+ 6	242.56	+ 20.40
유대인 자치주	65	- 15	234.58	+ 8.35
프리모리예 변경	76	- 5	225.56	+ 12.48
추코트카 자치관구	82	+ 3	215.23	+ 18.08

자료: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2018),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йтинг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зультаты Рейтинга 2018 года региону в ДФО," Июль 2018 г, p. 5.

4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투자환경 평가는 통계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지방별 투자 현황인 만큼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에는 주로 러시아인 또는 러시아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sup>71)</sup> 2018년에는 85개 러시아 연방구성체가 평가대상이 되었으며, 평가점수 평균이 전년도보다 상승했다. 개선은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지방별로는 사할린 주, 캄차트카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이 가장 빠르게 개선된 연방구성체로 꼽혔으며, 극동 연방관구 지방들의 평가점수는 평균 24.3점 상승했다.<sup>72)</sup> 유대인 자치주와 프리모리예 변경의 경우 소폭 개선되었지만, 다른 지방에 비해 개선 정도가 낮은 편이어서 전체 순위는 하락했다(표 3-6 참고).

극동 연방관구의 투자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이것이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제도를 도입해서 얻어진 결과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투자환경이

70) 마지막 항목이 평가 초기에는 '중소기업 지원'이었으나 최근 '소기업 지원'으로 바뀌었다.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2018),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йтинг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 Октября 2018, pp. 10-18.

71) 전략기획청 이고르 쿠스타린 과장, 파벨 드로닌 프로그램 매니저, 알렉세이 골디치 선임분석가 면담(2018. 10. 2, 모스크바).

72) 상동.

많이 개선된 사할린 주, 캄차트카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의 경우 선도개발구역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이 다수 지정된 프리모리에 변경의 경우 개선의 폭이 작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극동개발정책이 전반적으로 극동 연방관구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극동 연방관구의 투자환경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개선되었다. 극동개발부는 극동 연방관구의 지방들이 2020년까지 상위 30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sup>73)</sup> 극동개발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투자환경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극동개발정책으로 인한 투자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으로 러시아 경제의 불안정성, 극동지역의 작은 시장규모, 정보부족, 비제도적인 투자환경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표 3-7]의 직접투자는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지방별·부문별 누적액 기준이라 다소간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8개의 러시아 연방관구 중 극동 연방관구는 두 번째로 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한 지역이며, 2017년까지 56.7%의 직접투자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2017년에 이루어진 직접투자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둔화되었으며, 일부 지방의 경우 투자회수가 나타났다. 다수의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이 설치된 프리모리에 변경에서 투자회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아직까지 극동개발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건설업, 도소매업에서 투자회수가 이루어진 것은 경기둔화 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환경 평가지수와 투자유치 실적을 함께 고려하면,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프로그램) 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아직 예단하기 어려우며, 투자유치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극동개발정책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려면, 좀 더 추진상황을 지

---

73) “К 2020 году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войдут в топ-30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2017. 9. 28), <https://minvr.ru/press-center/news/8411/>(검색일: 2018. 9. 3).

표 3-7. 극동 연방관구 지방별 · 분야별 직접투자액

(단위: 해당 기간까지 누적액, 백만 달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러시아 연방	371,491	347,690	477,670	535,200
극동 연방관구	41,550	39,431	62,345	64,363
아무르 주	976	896	991	1,256
부동산업	29	42	62	68
과학, 기술, 전문활동	-	-	-	194
금융 · 보험업	464	-	-	-
채굴업	59	63	411	-
제조업	-	-	-	30
기타 서비스	161	127	146	-
농림축산업	-	-	3	3
건설업	1	11	11	12
도소매업	-	-	-	0
기타	261	652	359	949
유대인 자치주	40	83	207	140
부동산업	0	1	8	12
채굴업	-	-	85	-63
기타	39	82	115	191
캄차트카 변경	52	39	214	241
부동산업	4	3	2	2
금융 · 보험업	14	-	-	-
기타	34	36	213	239
마가단 주	776	22	10	16
부동산업	1	0	-	0
과학, 기술, 전문활동	-	-	-	5
채굴업	-	17	3	3
기타 서비스	0	-	5	-
기타	775	4	2	8
프리모리예 변경	1,075	1,173	2,146	1,572
호텔 · 요식업	-	-	-	2
부동산업	36	29	66	73
금융 · 보험업	16	36	125	151
채굴업	-	-	12	10
제조업	145	108	187	190
기타 서비스	1	2	-	-
농림축산업	110	80	119	96
건설업	40	56	77	-32

표 3-7. 계속

(단위: 해당 기간까지 누적액, 백만 달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업	-18	-53	-36	-730
운송·저장	8	344	393	591
기타	737	572	1,202	1,221
<b>사하 공화국 (아쿠티야)</b>	<b>1,423</b>	<b>1,209</b>	<b>1,826</b>	<b>2,189</b>
부동산업	2	1	15	16
채굴업	1,352	90	765	1,031
제조업	-	68	35	16
기타	70	1,050	1,011	1,125
<b>사할린 주</b>	<b>36,087</b>	<b>35,159</b>	<b>55,645</b>	<b>57,592</b>
행정서비스	-	-	-	-
부동산업	3	3	74	80
과학, 기술, 전문활동	-	-	-	894
채굴업	35,389	34,502	54,615	56,400
제조업	-	-	19	18
기타서비스	524	513	791	-
농림축산업	2	2	2	2
건설업	4	4	7	7
도소매업	6	17	38	27
운송·저장	55	45	-	69
기타	104	75	99	95
<b>하바롭스크 변경</b>	<b>739</b>	<b>552</b>	<b>1,001</b>	<b>1,065</b>
부동산업	22	18	-	-
과학, 기술, 전문활동	-	-	-	49
채굴업	154	167	418	373
제조업	-	-	21	-
기타 서비스	-	-	5	-
농림축산업	-38	1	61	89
건설업	15	15	5	-4
도소매업	32	-6	8	11
운송·저장	48	45	60	86
기타	506	312	423	461
<b>추코트카 자치구</b>	<b>383</b>	<b>299</b>	<b>304</b>	<b>291</b>
부동산업	-	-	-	-
과학, 기술, 전문활동	-	-	-	-
채굴업	-	-	37	25
기타 서비스	-	-	4	-
기타	383	299	263	266

자료: Банк России,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го сектора, <http://www.cbr.ru/statistics/?Prtd=svs>(검색일: 2018. 9. 4).

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인구 수 측면에서 정책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앞서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극동 연방관구의 인구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하 공화국, 사할린 주에서만 생활여건이 개선되어 인구 증가가 나타났다. 사하 공화국 정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출산율 증가, 사망률 및 인구유출 감소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sup>74)</sup> 그리고 사하 공화국과 사할린 주의 인구 증가는 생활여건 개선과 함께 극동 핵타르 프로그램의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르 주, 마가단 주 등의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따라서 극동개발정책은 인구 측면에서 아직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의 경우 판단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하다. [표 3-3]과 [표 3-4]에서 제시된 일자리 수는 기대치에 불과하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 고용인구는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 들어 고용인구 2만 3,000명이 증가했으나, 2017년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것이 극동개발정책의 효과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최근까지 체결된 투자사업들이 실현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극동개발정책이 실제로 추진된 기간은 4년 미만이기 때문에 정책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극동지역이 저개발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개발이 필요하며, 투자금액 확대,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만 정책 추진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성공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연방법 제35조 1항에 의하면, 선도개발구역이 극동지역 또는 단일산업도시(monocity)에 국한되어 조성되는 기

---

74) “Евгений Чекин: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растет стабильно,” ysia.ru(2018. 2. 27), <http://ysia.ru/evgenij-chekin-sotsialnye-obyazatelstva-ispolnyayutsya-v-polnom-obeme/>(검색일: 2018. 8. 20).

간은 해당 법 발효 이후 3년간이다. 따라서 2018년 3월까지 선도개발구역은 주로 극동지역에서 조성되었지만, 향후 선도개발구역은 러시아의 타 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다. 그럼 점에서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의 차별성이나 매력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극동지역에서 제공하는 투자혜택이 다른 지역에서도 제공된다면, 극동지역의 투자매력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제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최근까지는 극동개발정책 및 관련 법안의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일면 상황 변화에 맞게 정책을 수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제도의 불안정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극동개발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아직 개발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작업은 앞서 언급된 정책에 대한 신뢰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정책 평가가 부재한 것은 아니지만, 평가항목이 수시로 바뀌고, 평가지표의 산출기준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서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극동개발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지표 작성과 주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이 극동개발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극동개발정책이 목표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극동개발정책에 책정된 예산은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정책이 자주 개정된 배경이기도 하다. 2014년 발표된 극동개발정책의 2020년까지의 예산은 약 3,461억 7,000만 루블이며, 연평균 494억 5,000만 루블이 투입된다. 2016년 개정본에는 예산이 약 5,118억 4,000만 루블로 늘어났다. 이는 예산이 확대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기간이 2025년까지로

연장되어 연평균 투입금액은 426억 5,000만 루블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때문에 사실상 예산은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 개정본을 거치면서 연평균 예산은 점점 더 축소되었다.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연방 예산에서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금액은 전체의 0.15%에 불과하다(표 3-8 참고). 이는 러시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의지가 크지 않다는 메시지가기에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민간투자 유치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 및 개발을 위한 예산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푸틴 3기 극동개발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3-9]는 앞의 내용을 기반으로 극동개발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방향, 성과,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즉 극동개발정책은 크게 지역발전, 투자유치, 삶의 질 개선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성과는 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8. 2015~20년간 러시아 연방 예산안

(단위: 백만 루블, %(괄호 안))

예산 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지출액	15,620.3	16,416.5	16,420.3	13,705.4	13,462.2	13,827.7
지역 균형발전 국가프로그램	714.1 (4.57)	-	997.3 (6.07)	1,100.0 (8.03)	1046.74 63 (7.78)	1028.3 (7.44)
지방 및 지방도시 재정의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연방관계 발전과 조건 창출	659.3 (4.22)	664.6 (4.05)	768.6 (4.68)	841.5 (6.14)	793.4 (5.89)	805.4 (5.82)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24.4 (0.14)	35.3 (0.16)	13.3 (0.08)	20.5 (0.15)	20.6 (0.15)	20.3 (0.15)
2025년까지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발전	21.1 (0.13)	11.8 (0.07)	17.0 (0.10)	14.1 (0.10)	13.6 (0.10)	13.6 (0.1)
칼리닌그라드 주 사회·경제 발전	9.3 (0.06)	34.3 (0.21)	54.6 (0.33)	62.9 (0.46)	62.4 (0.46)	60.2 (0.43)
러시아 연방 북극지역 사회·경제 발전	-	-	-	0.6 (0.00)	5.0 (0.04)	2.7 (0.02)
2020년까지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시 사회·경제 발전	-	111.7 (0.68)	143.8 (0.88)	160.3 (1.17)	151.9 (1.13)	126.1 (0.91)

자료: “Исполн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и бюджетов бюджетн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за 2017 год.”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Ф, [www.minfin.ru](http://www.minfin.ru)(검색일: 2018. 7. 25).

표 3-9. 극동개발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추진방향	성과	과제
정책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동개발정책 전담체계 마련</li> <li>극동개발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확립</li> <li>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하며, 일관된 평가지표 도입 자원 확대</li> </ul>
지역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동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개발구역</li> <li>- 자유항</li> <li>- 극동 헥타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동개발 프로그램의 차별성 확보</li> <li>선도개발구역의 특화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력산업 범위를 좁혀 보다 집중적인 자원 투입과 구체적인 육성전략을 고안</li> <li>자유항이 물류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기반 시설 구축 및 정비</li> <li>지역별 기간산업, 전략산업을 구분하여 발전계획 세분화</li> </ul>
투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환경의 제도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절차 간소화</li> <li>- 투자인센티브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편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관절차 간소화</li> <li>- 부패 척결</li> <li>- 투자 관련 정보 제공</li> </ul> </li> </ul>
삶의 질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대</li> <li>- 빈곤율 축소</li> </ul>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동지역이 아·태지역의 생산사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주변국가들과의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 계획과 사업 구상</li> </ul>

자료: 저자 작성.

따라서 향후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기반과 구체적인 발전전략 마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편의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이다. 아울러 투자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실제로 성사되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푸틴 집권 4기의 극동개발정책은 전반적으로 3기의 기초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부임한 극동지역 출신의 극동개발부 장관이 극동지역 현황에 좀 더 적합하고 세심하게 정책 방향을 조정하며, 이 지역 기업가, 엘리트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극동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안 및 도입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푸틴 대통령은 사회·경제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를 강조

하고 있다.<sup>75)</sup> 극동지역에서도 러시아 평균보다 낮은 삶의 질과 사회발전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내세웠다.<sup>76)</sup> 사실 극동 연방관구의 최저생활비 계층의 비중이 러시아 전체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표 3-10 참고). 유대인 자치주, 사하 공화국의 경우 최저생활비 계층이 각각 1/4 및 1/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저생활비 계층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2011년 이후 경기악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러시아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극동지역에서 심한 편이다. 따라서 향후 극동개발정책은 지역의 빈곤퇴치,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다만 극동개발 가속화를 위하여 기존에 도입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는 동시에, 개발혜택이 주민에게 분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다.

표 3-10. 극동 연방관구 최저생활비 계층 비중

(단위: %, 해당 지방안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러시아 연방	12.7	10.7	10.8	11.2	13.3	13.3	13.2
극동 연방관구	-						
사하 공화국(야쿠티야)	18.6	16.7	16.3	17.4	19.0	19.8	20.0
캄차트카 변경	19.2	17.8	16.8	17.0	17.9	18.4	18.4
프리모리예 변경	15.7	14.2	15.9	14.7	15.3	15.7	14.7
하바롭스크 변경	15.8	14.3	12.5	13.2	13.7	12.7	12.5
아무르 주	20.4	16.0	15.1	14.0	14.2	16.0	14.9
마기단 주	13.9	11.3	12.2	12.1	13.2	13.3	13.4
사할린 주	11.9	11.8	9.4	9.1	9.7	9.9	9.7
유대인 자치주	20.1	18.8	20.9	21.4	24.4	24.8	24.9
추코트카 자치관구	9.0	7.7	8.3	8.3	9.0	9.1	10.2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검색일: 2018. 7. 13).

75) 박정호, 민지영, 김초롱(2018),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과 시사점」, pp. 3~20, 오늘의 세계경제 18-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6) “Засе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10 августа 2018, <http://government.ru/news/33607/#kozlov>(검색일: 2018. 8. 16).

## 제4장



# 동북아 주요국의 극동진출전략 비교

1. 중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2. 일본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는 푸틴 3기 출범 이후 극동개발을 이른바 ‘21세기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sup>77)</sup> 주지하듯이, 이는 극동의 산업생산과 무역구조 다각화를 통해 신시장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동 속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태지역 경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 방향은 201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국면 속에서 더욱 강력한 동인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외부 모델(outside model)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유라시아 역내에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데 있다.<sup>78)</sup> 이는 2016년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대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n Partnership) 구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sup>79)</sup> 이런 배경 아래 러시아는 극동을 대유라시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80)</sup> 러시아가 극동개발을 위해 기

77) 푸틴 대통령은 2012년 집권 3기 출범 이후 당해 12월 국정연설에서 ‘21세기 러시아 발전의 벡터(vector)는 동쪽으로의 발전’이며, ‘극동·시베리아는 러시아의 엄청난 잠재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12월 국정연설에서도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21세기 러시아의 최우선과제’라고 그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Путин: Вектор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 на Восток”(2012. 12. 12), 온라인 기사; “Путин назвал подъе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приоритетом на XXI век”(2013. 12. 12),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9. 22).

78) 러시아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추진을 위한 동북아 역내 환경이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동북아는 미국의 아·태지역 통합에 대한 관심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력 공백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저마다의 이익추구를 위해 대러시아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Valdai Discussion Club(2018), p. 22.

79) 푸틴 대통령은 2016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보다 확장된 통합체를 형성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독립국가연합(CIS)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이 함께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앞선 2015년 12월 국정연설에서도 EAEU, 상하이협력기구(SCO),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함께 경제공동체를 창설하는 구상에 대해 밝힌 바 있다. “Путин призвал создать большое Евразий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2016. 6. 17), 온라인 기사;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9. 22).

80) “Путин: проект Большого Евразий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открыт для новых участников”(2017. 11.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9. 21).

본적으로 교통·물류 인프라 정비 및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주변국들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기반으로 경제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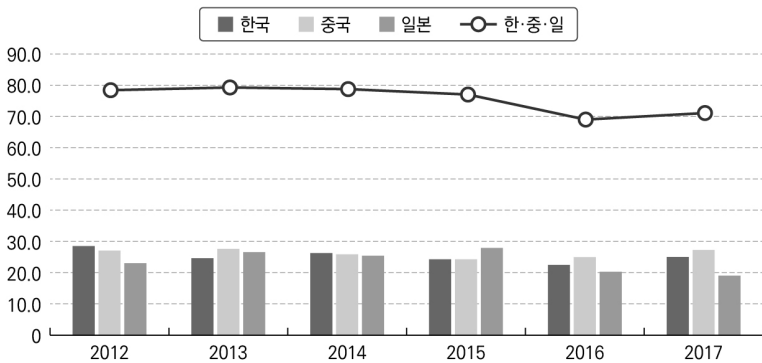
이런 러시아의 극동개발 움직임에 발맞춰 극동의 주요 협력국인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극동진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에 힘입어 전통적으로 극동의

글상자 4-1. 한·중·일과 극동의 교역 현황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3국이 극동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은 매우 크다. 2017년 기준 극동 교역에서 이들 3국의 비중은 71.1%이다. 이 수치는 2012~15년 줄곧 75%를 상회했으나, 2016년에 주로 유가하락에 따른 원자재 수입 감소로 69%까지 하락했다. 2018년 1~6월에는 72.2%(전년 동기 70.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극동 교역에서 한·중·일이 차지하는 비중(2012~17년)]

(단위: %)



자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DB 자료(검색일: 2018. 9. 20).

참고로 2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극동의 교역 규모는 2014년 본격화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저유가 기조의 영향으로 2013년 400억 달러, 2014년 390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15년 200억 달러, 2016년 244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이와 동시에 한·중·일 3국의 교역규모도 2013년 318억 달러에서 2016년 168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2017년에 극동의 교역규모가 285억 달러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한·중·일 3국의 교역액도 203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중국이 극동의 최대 교역국이며, 한국,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은 극동의 최대 교역국이자 수입국이다. 중국의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에너지(36.3%), 수산물(21.2%), 목재(16.8%), 항공·우주선 및 부분품(14.6%) 등이며, 수출품은 기계(22.3%), 전자기기(10.7%), 채소(7%), 플라스틱(5.3%), 철강제품(5.3%), 차량부품(5.2%) 등이다. 한국의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에너지(74.4%), 수산물(19.4%), 철강(2.7%)이고, 수출품은 기계(47.8%), 전자기기(11.5%), 철강제품(7.2%), 플라스틱(5.7%) 등이다. 일본의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에너지(88.3%), 수산물(5.3%), 목재(2.7%)이며, 수출품은 차량부품(39.8%), 기계(26.4%), 선박(11.2%) 등이다.

[극동의 대 한·중·일 교역 현황(2013년, 2017년)]

(단위: 천 달러)

구분	2013년			2017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한국	8,430,904 (30.1)	1,458,542 (12.1)	9,889,446 (24.7)	6,137,521 (27.6)	967,242 (15.4)	7,104,763 (24.9)
중국	5,448,879 (19.4)	5,629,195 (46.8)	11,078,074 (27.7)	5,079,872 (22.8)	2,690,369 (42.8)	7,770,241 (27.2)
일본	9,135,310 (32.6)	1,730,439 (14.4)	10,865,749 (27.1)	4,821,741 (21.7)	582,854 (9.3)	5,404,595 (18.9)
한·중·일	23,015,093 (82.1)	8,818,176 (73.3)	31,833,269 (79.5)	16,039,134 (72.1)	4,240,464 (67.4)	20,279,598 (71.1)
극동 전체	28,030,232 (100.0)	12,032,485 (100.0)	40,062,717 (100.0)	22,240,343 (100.0)	6,288,929 (100.0)	28,529,272 (100.0)

자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DB 자료(검색일: 2018. 9. 20).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 3국이 극동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70%를 상회한다. 2014년 이후 경제제재,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한·중·일 3국과 극동 간 절대적인 교역 규모가 큰 감소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극동 교역에서 이들 3국의 존재감은 여전히 크다(글상자 4-1 참고). 특히 푸틴 3기를 거치며 한·중·일 각국의 극동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강화되면서 최근 이들 3국과 극동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먼저 푸틴 3기 이후 중국과 일본의 극동진출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과 일본은 푸틴 3기 러시아와의 경제관계에서 상당한 변화와 진전을 보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극동은 중국,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핵심 교두보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극동진출전략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 한국의 극동진출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 중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 가. 푸틴 3기 이후 중·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2012년 5월 푸틴 3기 출범 이후 중·러 관계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다. 이를 두고 신 밀월관계, 허니문(honeymoon), 앙탕트(entente)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회자될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었다.<sup>81)</sup> 2013년 3월 시진핑 집권 1기 출범과 함께 곧바로 발표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 그리고 2014년 이후 지속·심화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미·러 및 미·중 갈등 등 대내외 요인들이 중·러 관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sup>82)</sup> 이런 동인들 속에서 중·러 관계는 미국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틀에 기초하여 극동을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상호 작용을 통해 심화되었다.<sup>83)</sup>

푸틴 3기 출범 이후 이 같은 중·러 관계 발전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상 및 고위급 간 상호 이해와 교류 확대, 둘째, 유라시아 협력 구상인 일대일로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신동방정책 간 전략적 이익 공유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1월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나 ‘중·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이 중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sup>84)</sup> 또한 2013년 3월 공식 취임 직후 첫 해외순방지로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2014년 2월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다.<sup>85)</sup> 이는 중국

81) 윤익중(2015), p. 223.

82) 참고로 1990년대 중·러 관계 발전의 주요 동인은 미국의 일극체제에 대한 공동견제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급국(러시아)과 수요국(중국)으로서 에너지 동맹의 필요성 등이었다. 윤익중(2015), pp. 237~238.

83) 강태호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8. 10. 30, 세종).

84) “Си Цзиньпин на встрече с секретарем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подчеркнул: развит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партнерства с Россией –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й приоритет Кита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2).

85) “China’s new president arrives in Moscow for state visit”(2013. 3.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9. 24).

정상이 해외스포츠 행사에 참석한 최초의 사례였다.<sup>86)</sup>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푸틴 대통령과 공식 양자회담을 포함한 20여 차례의 회동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지속했다.<sup>87)</sup>

특히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된 시기인 2014년 5월에 두 정상은 상하이에서 양국간 포괄적·전략적 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때 양국간 오랜 현안이었던 대중국 가스공급협상이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에너지 부문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외에도 양자간 총리회담을 통해 중국이 경제제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 기업과 은행에 차관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의 움직임이 이어졌다.

[표 4-1]에서 보듯이 푸틴 3기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양국의 유라시아 협력 구상간 연계 잠재력이 크다는 점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 방문 시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밝혔으며, 이후 해상 실크로드를 포함한 일대일로 전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sup>88)</sup>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동부 연해지역에 치우친 대외개방전략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국가들과 육상 및 해상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

86) Willy Wo-Lap Lam(2015), pp. 223-224.

87)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14년 2월 소치 올림픽 회동 이후 다음과 같이 20여 차례의 회동을 한 바 있다. (2014년) 5월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상하이) 계기, 7월 브릭스(BRICS) 정상회의(브라질 포르탈레자) 계기, 9월 SCO 정상회의(타지키스탄 두산베) 계기(중·몽·러 정상회담 연계), 11월 베이징 APEC 정상회의 계기/ (2015년) 5월 러시아 70주년 전승기념일(모스크바) 계기, 7월 BRICS 정상회의 및 SCO 정상회의(러시아 우파) 계기(중·몽·러 정상회담 연계), 9월 중국 70주년 전승절(베이징) 계기, 11월 G20 정상회의(터키 안탈리아) 계기, UN 기후변화회의(파리) 계기/ (2016년) 6월 SCO 정상회의(우즈베크 타슈켄트) 계기(중·몽·러 정상회담 연계), 9월 G20(항저우) 계기, 10월 BRICS 정상회의(인도 고아) 계기, 11월 페루 APEC 정상회의 계기/ (2017년) 7월 중·러 정상회담(모스크바), 9월 BRICS 정상회의(샤먼) 계기, 11월 베트남 APEC 정상회의 계기/ (2018) 6월 중·러 정상회담(중·몽·러 정상회담 연계), 7월 BRICS 정상회의(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계기, 9월 제4차 동방경제포럼 계기.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6) 바탕으로 저자 발췌 정리. 2014년 이후 중·러 간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회담 빈도가 급속히 증가한 것을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enderson and Mitrova(2016), p. 17.

88) "Chronology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2017. 1.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9. 26).

표 4-1. 푸틴 3기 이후 중·러 주요 고위급회담의 성과

구분	주요 협의 사항	관심분야
2014년 5월 (상하이)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협상 타결: (러)가즈프롬사·(중)CNPC사 동부노선(동시베리아) 가스 공급(30년, 연간 380억㎥) 계약 체결</li> <li>• (러)노바텍사·(중)CNPC사 간 아말 LNG 공급(20년, 연간 300만 톤) 계약 체결</li> <li>• 중·러 투자협력위원회 설립 합의</li> <li>• 교역 시 자국통화 거래 확대 합의</li> <li>• 중국 참여 극동 투자 프로젝트 추진 합의</li> <li>• 극동 아무르 주 교량 건설 합의(자금부담: (중) 80%, (러) 20%)</li> <li>• (중)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과 (러)유라시아 철도 구상 간 연계 논의</li> </ul>	에너지, 첨단기술, 항공우주, 인프라 건설, 청년 교류 등
2014년 10월 (모스크바) 19차 총리간 정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은행의 러시아 기업·은행에 대한 차관 지원 합의: 중국개발은행이 러 메가폰에 5억 달러 차관 제공 / 중국수출입은행이 VTB, VEB, 농업은행에 금융 지원</li> <li>• 중앙은행간 1,500억 위안(250억 달러) 통화스와프 합의</li> <li>• (러)로스네프티사·(중)CNPC사 사할린 1 LNG 공급협상 추진 합의</li> <li>• Power of Siberia 가스 사업에 대한 중국의 250억 달러 금융 지원 합의</li> </ul>	첨단기술, 농업 및 금융, 문화·인적 교류 등
2015년 5월 (모스크바)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EAEU, (중)실크로드 프로젝트 간 협력 합의</li> <li>• 모스크바·카잔 고속도로 사업 추진 합의: 중국이 1,040억 루블 투자</li> <li>• 중국개발은행이 러 스베르방크에 차관(60억 위안) 제공 합의</li> <li>• 양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중·러 투자은행 설립 합의</li> <li>• 극동 아무르 주 니즈네부레이스카야 수력발전소 건설 및 대 중국 전력 공급 합의</li> </ul>	에너지, 농업, 고속철도, 우주·항공, 금융, 인프라 건설, 극동개발, 문화·인적 교류, 보건, 관광 등
2015년 12월 (베이징) 20차 총리간 정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EAEU, (중)실크로드 경제벨트 간 협력 촉진</li> <li>• (중)혁신주도발전,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러)혁신전략 2025 등 혁신발전전략 간 연계 및 중·러 혁신 대화 추진 (2016년 6월 MOU 체결) 합의</li> </ul>	첨단기술, 농업, 금융, 에너지, 우주·항공
2016년 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 21차 총리간 정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부문 외 혁신부문 협력 강화</li> <li>• 극동개발협력 강화: 인프라 건설, 연계성 개선, 농산물 심층 가공 등</li> <li>• 중국 동북부 및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협력 위원회 설립 합의</li> </ul>	첨단기술, 중소기업, 금융·농업, 인프라, 에너지 등
2017년 7월 (모스크바)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개발은행,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680억 위안 규모의 공동투자펀드 조성 합의</li> <li>• 중국개발은행, VEB의 혁신펀드 설립 지원을 위해 500억 루블 규모의 15년 장기용자 제공 합의</li> </ul>	농업, 인프라, 에너지, 금융, 혁신 등

표 4-1. 계속

구분	주요 협의 사항	관심분야
2017년 11월 (베이징) 22차 총리간 정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부문 외 신성장동력 모색 위한 협력 강화</li> <li>• 극동개발협력 강화: 에너지, 인프라 등</li> </ul>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 항공·우주, 접경지역 인프라
2018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동북지역과 극동·바이칼 지역 간 비즈니스 협의회 설립 합의</li> <li>• 극동에서 교역, 경제, 투자 부문 협력 발전 프로그램 2018-24 추진 합의</li> <li>• 극동연방대학교·중국사회과학원 공동연구센터 설립 합의</li> <li>• VEB·중국개발은행 120억 위안 규모의 융자 합의</li> </ul>	에너지, 교통물류, 접경지역 인프라, 농업 등
2018년 11월 (베이징) 23차 총리간 정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역 증진, 투자 확대, 농업부문 협력 강화, 국경간 e-commerce 촉진, 혁신, 과학기술 협력 등 논의</li> <li>• 중국 동북지역과 극동 간 자원 및 농업 분야 협력 강화</li> <li>• 일대일로와 EAEU 구상 간 시너지 촉진</li> </ul>	중소기업 협력, 에너지, 농업, 인적 교류, 혁신 등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온라인 자료: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Китая," 온라인 자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a),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9. 26) 참고 저자 작성.

으로 지역통합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다.<sup>89)</sup>

이런 일대일로 전략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개발과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EAEU, 신동방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 중·러는 2015년 5월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EAEU 간 협력 추진에 합의한 후 지속적으로 연계 프로젝트를 모색했다. 특히 양국은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극동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극동에서의 협력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중·러는 일찍부터 동북 3성의 진흥과 극동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 지역간 협력 증진을 주요 과제로 인식해왔다. 그 출발점이 2009년 9월 후진타오 주석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 2009-2018'이다.<sup>90)</sup> 당시

89) 이승신 외(2017), p. 34.

90) "Обнародована программ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7).

중국은 동북진흥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러시아도 극동개발에 큰 관심을 두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북 3성과 극동의 상대적 낙후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였기 때문이다.<sup>91)</sup> 이에 중·러는 양 지역의 지리적 인접성과 개발 필요성에 따라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한 것이었다.<sup>92)</sup>

## 나. 푸틴 3기 이후 중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 1) 진출전략: 육상 실크로드 추진의 연계 거점으로 극동진출 가속화

표 4-2. 일대일로 전략의 5대 추진과제와 대러 협력

과제	주요 내용	관련 대러 협력
정책소통	• 정부간 협력 강화, 다차원의 정부간 거시정책 교류체계 마련	• 일대일로 · EAEU 연계
인프라 연결	• 교통: 통합운송 협력 체계 구축, 육해상 연결 운송 원활화 등 • 에너지: 송유관, 가스관, 지역 전력망 개선 등 • 통신: 정보 실크로드 건설 및 정보 교류 · 협력 확대 등	• 철도, 고속도로, 교량 건설 등 • 가스관, 발전소 건설 등
무역 원활화	• 투자 · 무역 편리화 및 자유무역구 건설 • 전통무역과 서비스무역의 균형 발전 • 투자분야 확대: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농기계 및 농산물 생산 가공업, 수산물가공, 바이오의약 등; 재생에너지 협력 • 신흥산업 협력: 차세대 정보기술, 신재료, 신에너지 등; 창업 투자협력 체계 구축 • 산업체인의 분업 배치 최적화	• 혁신산업 협력 • 투자분야 다변화
자금유통	• 금융협력: 연선국가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AIB · 브릭스개발 은행 설립, 실크로드 기금 운용 등	• 통화스와프
민심상통	• 교육 · 문화 협력: 주변국가간 문화의 해 상호 지정, 예술행사 개최 등 • 관광협력: 여행규모 확대, 여행주간 및 홍보행사 상호 개최; 주변 각국의 관광비자 편리화	• 문화, 교육, 인적 교류 확대

자료: 이승신 외(2017), pp. 41~43 저자 보완 재구성.

91)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부용, 임민경(2013), pp. 2~19; 제성훈 외(2014), pp. 64~66 참고

92) 중·러는 상호 협력을 통해 동북 3성과 극동의 낙후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2008년 5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극동의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태호(2016. 7.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9. 27).

표 4-3. 일대일로 전략 중 동북지역의 주요 대극동 협력 계획

동북부	네이멍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와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헤이룽장의 대러시아 철도, 도로, 교량 인프라 건설</li> <li>헤이룽장, 지린,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계운송협력을 통해 베이징·모스크바 유라시아 고속운수회랑 구축과 북쪽으로는 개방창구 건설 추진</li> </ul>
	헤이룽장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속철, 자동차, 농기계장비 등 분야의 대외협력 확대</li> <li>중·러 초국경 산업·투자협력 강화: 전기, 전력, 에너지, 농업, 임업, 채광업, 물류, 항공·우주 등</li> </ul>
	지린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헤이룽장 기업의 초국경 산업클러스터 조성</li> <li>루블화 사용범위 시범지역 확대 및 대러 무역결산센터 설립을 통해 초국경 위안화 사용 촉진</li> </ul>
	랴오닝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러 문화센터 상호 설치 및 상시적 문화 교류, 교육협력 프로젝트 실시</li> <li>중·몽·러 경제회랑 및 해륙 복합운송 거점 조성</li> <li>실크로드 기금, AIIB 등 기금 활용해 인프라 네트워크 확대</li> </ul>

자료: 이승신 외(2017), pp. 74-75 저자 재구성.

상술한 바와 같이 푸틴 3기 중·러 관계 강화의 주요 특징은 양국이 상호 유라시아 협력 구상 간 연계효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극동에서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서 극동은 육상 실크로드 추진을 위한 주요 거점이다. 육상 실크로드 선상에 위치한 지역은 중국의 중부, 서부, 동북부에 해당하며, [표 4-3]과 같이 극동과 인접한 동북부가 대극동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 대상지역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5대 과제로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유통, 민심상통을 제시하고 있다(표 4-2 참고). 앞서 [표 4-2]에서 살펴본 대로 푸틴 3기에 중국의 대러 협력도 큰 틀에서 상기 5대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극동진출은 이런 대러 협력 기조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표 4-3]은 중국의 대극동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인 동북지역의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극동과의 교통·물류 연계성 강화, 신산업·투자협력 활성화, 문화·인적 교류 확대, 금융협력 기반 강

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2015년 3월 국제 산업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금융기관(개발은행,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을 확대 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sup>93)</sup>

앞서 언급했듯이 중·러는 2009년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 2009-2018’을 채택하여 추진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초국경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 교통인프라 개선, 과학기술 협력 단지 조성, 관광·인적 교류 활성화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sup>94)</sup>

## 2) 주요 협력 플랫폼

앞에서 제시한 바대로 푸틴 3기 중·러 관계 발전에는 정부 차원의 고위급 정례회의가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다양한 분야별 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과제를 논의해왔는데, 푸틴 3기 들어서는 농업부문 하부위원회(2014년 4월)가 추가로 설립되었다.<sup>95)</sup>

중·러 간 ‘투자협력 위원회’ 이외에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협력 위원회’가 신설된 것도 푸틴 3기였다. ‘투자협력위원회’는 2014년 5월 양국 정상간 합의에 기초하여 설립되어 2018년 9월 모스크바에서 5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투자협력 위원회는 일대일로와 EAEU 구상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협력사업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2017년 4월 제4차 회의에서 중국 측은 “일대일로와 EAEU 구상의 통합을 축

93) 조정원 한양대 교수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신북방경제포럼(2018. 7. 18, 서울).

94) 이 프로그램은 극동에서 추진할 주요 프로젝트로 발전소 및 전력망 인프라 건설, 사하 공화국과 사할린 주에 폴리올레핀 생산단지 공동건설을 제시했다. 또한 극동지역별(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주, 하바롭스크 변경, 프리모리예 변경, 사할린 주, 마가단 주, 캄차트카 변경, 추코트카 자치구) 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했는데, 원자재 개발·가공 분야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Программ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Северо-Востока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8).

95)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й подкомиссии по сель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пи во «Хамовники пилльзенское» получило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руководства МСХ КНР Нью Дун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7); 제성훈 외(2014), pp. 174~175.

표 4-4. 푸틴 3기 이후 신설된 주요 중·러 협의체

협의체	설립 목적	주요 논의 내용
중·러 투자협력위원회 (2014년) * 부총리급	비에너지부문 투자협력 프로젝트 촉진과 투자환경 개선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회의(2014년 9월, 베이징): 인프라, 채광 및 광물가공, 첨단산업, 농업 등 분야의 32개 투자사업 논의 등</li> <li>• 2차 회의(2015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2015년 5월 (중)실크로드 경제벨트·(러)EAEU 연계협력 합의에 기초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논의 등</li> <li>• 3차 회의(2016년 6월, 베이징): (중)실크로드 경제벨트·(러)EAEU 연계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등</li> <li>• 4차 회의(2017년 4월, 모스크바): 일대일로·EAEU 간 통합 촉진, 러시아의 극동개발, 수입대체, 민영화 등에 중국의 참여 확대, 지역 협력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li> <li>• 5차 회의(2018년 9월, 모스크바): 극동 및 북극탐사 투자 확대, 첨단기술분야 협력 확대, 인프라 및 금융 지원 확대 등</li> </ul>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협력 위원회(2016년) * 부총리급 (러측: 극동전권 대표)	양 지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회의(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항만물류, 자원개발, 농산물 가공, 교통인프라 현대화 등 투자협력 확대</li> <li>• 2차 회의(2018년 8월, 라오닝성): 상호 연계성 촉진, 항만물류, 자원개발, 농업 현대화, 장비제조업 등 분야 협력 확대, 투자환경 개선 등</li> </ul>
중·러 혁신대화 (2016년) * (중)과학기술부, (러)경제개발부	양국간 혁신정책 공유 및 첨단부문 창업/중소기업 협력 강화 * '중소기업 대화'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행사(2017년 6월, 베이징): 양국간 혁신주도 성장을 위한 실질협력 강화방안 논의</li> <li>• 2차 행사(2018년 10월, 모스크바): 중·러 공동과학기술혁신 펀드 조성, '중·러 혁신협력 플랜 2019-2024' 마련 논의 등</li> </ul>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7): "China, Russia to boost regional cooperation"(2018. 8.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9. 27): Alexander Lukin(2018), p. 133: "First China-Russia Innovation Dialogue Hel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7): "2nd China-Russia Innovation Dialogue held in Mosco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3): "China, Russia pledge to explore new areas of investment cooperation"(2018. 9.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4) 참고 저자 작성.

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간 자원의 상호 보완성, 산업간 시너지, 시장 연계 잠재력, 기술 및 인력 교류 등을 고려한 투자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극동진출의지를 재확인하고, 지역 협력과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표 4-4 참고).

또한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협력 위원회'는 양 지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1월 공식적으로 설립되

었다. 2018년 8월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항만물류, 자원개발, 농업 현대화, 장비제조업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논의가 이루어졌다. 3차 회의에서는 양국간 ‘극동 무역·경제·투자 분야 협력 발전 프로그램 2025’를 채택할 예정이다.<sup>96)</sup>

표 4-5. 중·러 간 주요 투자펀드

분류	주요 내용
중·러 투자펀드(RCIF)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와 중국투자공사(CIC)가 목표자본금 40억 달러 규모로 설립: RDIF, CIC가 각각 10억 달러씩 출자하고, 제3투자자로부터 20억 달러 확보</li> <li>- 2013년 극동의 Russia Forest Products사 지분 42% 인수</li> <li>- 2014년 (러)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펀드와 공동으로 아무르강 철교 건설사업에 투자</li> <li>- 2015년 RDIF, 중국건설은행(CCB)과 중국은행의 양국 기업에 대한 융자 플랫폼 구축 합의</li> <li>- 2016년 (러)Detsky Mir 지분 23.1% 인수(2017년 IPO 이후 지분 매각)</li> <li>- 2017년 (중)온라인 철강유통업체 Zhaogang에 투자</li> <li>* RDIF, (중)실�크로드 펀드(Silk Road Fund)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사업 등 투자</li> </ul>
RDIF·RCIF·헤이룽장성 투자펀드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DIF, RCIF, 헤이룽장성 간 20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펀드 설립 합의: 양국간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목표</li> </ul>
중·러 벤처펀드(RCVF)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CIF와 중국 TUS Holdings사가 최초 자본금 1억 달러 규모로 설립</li> <li>러시아 스타트업업을 포함한 첨단기술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며, 주요 분야는 정보기술, 빅데이터, 바이오테크, 바이오의학, 청정에너지, 신소재, 스마트기술 등임.</li> </ul>
중·러 극동 농산업 개발펀드(RKFAR)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펀드, (중)Asia·Pacific Food Fund가 공동주주로 목표자본금 100억 달러(중국 측이 90% 조달) 규모로 설립</li> </ul>
중·러 산업투자펀드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CIF와 중국 Chengtong Holdings Group 간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합의: 산업, 교통, 관광 인프라 개발에 투자</li> </ul>
위안화(RMB) 투자펀드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DIF, 중국개발은행(CDB)가 최초자본금 15억 위안(목표자본금 50억 위안) 규모의 펀드 조성 합의: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에 초점</li> </ul>

자료: Russia-China Investment Fund, DB 자료: Invest in Russia, 온라인 자료: "Russia and China to form \$1 bln industrial investment fund"(2018. 6. 8), 온라인 기사: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й агрофонд позволит привлечь инвестиции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온라인 자료: "Russia and China launch new joint tech investment fund"(2016. 11. 10), 온라인 기사: "Russia, China Set up New RMB Investment Fund to Support Far East Russia and North-East China,"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0. 10).

96)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a),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4).

중·러는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혁신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양국은 2015년 제20차 중·러 총리 간 정례회의에서 양자 혁신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0월 2차 혁신대화에서는 ‘중·러 공동 과학기술 혁신펀드’ 조성과 ‘중·러 혁신협력 플랜 2019-2024’를 마련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중·러는 푸틴 3기 출범 직후인 2012년 6월 설립된 공동투자펀드(RCIF)를 통해 투자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 펀드는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와 중국투자공사(CIC)가 각각 10억 달러를 출자하고, 제3자

표 4-6. 극동의 지역별 대중국 교역 현황(2017년)

구분	수출		수입		합계 (백만 달러)	중국·극동 간 총교역 대비 비중
	금액 (백만 달러)	주요 품목	금액 (백만 달러)	주요 품목		
사하 공화국 (아쿠티야)	583.6 (12.2)	석탄 및 고체연료	55 (37.2)	세척·선별기기 원심분리기 등	638.6 (12.9)	8.2
캄차트카 변강	272.5 (38.9)	냉동어육, 니켈	10.3 (9.4)	냉동고, 발전장치, 트럭	282.8 (34.9)	3.6
프리모리예 변강	1,113.9 (36.3)	냉동어육, 석유 및 석유제품, 목재	2,137.0 (57.1)	컴퓨터·부품, 자동차 부품, 공기타이어	3,250.9 (47.7)	41.8
하바롭스크 변강	1,457.3 (68.1)	헬리콥터, 항공기, 우주선 등, 목재	190.4 (36.2)	불도저, 굴삭기 등 중장비, 가죽신발, 공기타이어	1,647.7 (61.8)	21.2
아무르 주	274.5 (89.0)	전력, 대두, 목재	180.2 (86.7)	불도저, 굴삭기 등 중장비, 트럭, 공기타이어	454.7 (88.0)	5.9
사할린 주	1,126.8 (10.7)	원유 및 원유제품, 냉동어육	-	-	1,170.2 (9.8)	15.1
유대인 자치주	118.3 (99.2)	철강, 대두, 목재	32.4 (92.8)	압연강판, 폴리머 페인트, 토마토	150.7 (97.8)	1.9
추코트카 자치구	112.1 (91.4)	석탄, 컨테이너 등	23.3 (40.8)	하이포염소산염, 철금속 등	135.4 (75.3)	1.7

주: 1) 9개 연방관구 가운데 통계 확보가 되지 않은(- 표시 포함) 일부 지역은 제외.

2) ( )는 해당 지역 수출입 및 총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DB 자료(검색일: 2018. 9. 20).

투자 유치를 통해 추가로 20억 달러를 확보할 계획 아래 출범했다. 투자우선분야는 교통·물류, 농업, 금융, 첨단 제조업, 광업 등이다. 2013년 극동의 Russia Forest Products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RDIF, 중국 은행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의 저변과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표 4-5 참고).

중·러는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 펀드를 활용하여 특정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공동벤처펀드(RCVF), 극동 농산업 개발펀드(RKFAR)가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산업투자펀드 설립에도 합의했다. 또한 중·러는 푸틴 3기 전후로 양국간 교역에서 위안화와 루블화의 사용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 왔는데, 2018년 6월 정상회담에서 위안화(RMB) 펀드 조성에 합의함에 따라 상호간 자국통화 결제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참고로 러시아는 2015년 말 이후 위안화를 공식 외환보유통화로 비축하여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중국공상은행(ICBC)은 모스크바에 위안화 청산은행을 공식적으로 설립했다.<sup>97)</sup>

이외에 20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개최된 중·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베이징, 상하이, 하얼빈에 극동 투자 유치·수출지원청의 대표사무소 설립을 협의했다.<sup>98)</sup>

### 3) 중국의 극동 협력 현황

2017년 기준 중국과 극동의 교역 규모는 77억 달러로, 중국은 극동의 최대 교역국이다. 또한 중국은 극동의 최대 수입국(극동 총수입액의 42.8% 차지)이기도 하다(글상자 4-1 참고). 극동 9개 연방주체 가운데 중국과 교역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프리모리예 변강, 하바롭스크 변강, 사할린 주 순이다. 특히 중국

---

97) "RMB Clearing Bank in Russia Officially Launche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1).

98)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2).

표 4-7. 중국의 극동 인프라 사업 현황

(단위: 십억 루블)

투자자	분야	기차수 또는 잠재 프로젝트	2018~19년 투자액 전망치
China Investment Corporation(CIC)	철도, 도로	중·러 접경지역 아무르강 철교 건설 *러 측 부분은 2016년 착공	100~120
China Development Bank(CDB)	철도, 도로	ESPO 원유 공급 원활화를 위한 파이낸싱	200
China Railway Group (CREC)	철도	프리모리에 1, 프리모리에 2 국제교통회랑 (협의 중)	40~60
Chinese Railway Construction Company (CRCC)	철도	레나 강 교량 건설(협의 중 / 2016년 기준 사업 전망이 불분명. 사하 공화국·중국 측 협의에 따라 추진)	20~40
China Three Gorges Corporation («Три ущелья» CTGC)	에너지	- 아무르 주 니즈네부레이스카야 수력발전소 건설(2016년 지분 매매 협의 결정) - 2011년 Eurosibenergo와 조인트벤처 설립(극동·시베리아 지역 발전소 건설사업, 협의 중)	0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CCCC)	도로, 항만	- 하바롭스크 주 LPG 수출 터미널 건설 (2017년 기준 150억 루블 규모) - 프리모리에 1, 프리모리에 2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2018년, 협의 중) - 드라이 독(dry dock) 및 주거시설 건설 (블쇼이 카멘, 프리모리에 변경)	20~40
Sinohydro Corporation	에너지	레나 강 교량 건설 사전 조사(2017년)	5~10

자료: INFRAONE(2018), p. 67.

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주는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가 각각 88%와 97.8%에 이른다. [표 4-6]에서 보듯이, 중국은 극동에 주로 기계·기기, 중장비, 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고, 극동은 중국에 원자재와 농수산물 등을 수출한다.

최근 중국의 극동 교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지금까지 중국의 공산품과 극동의 자원을 교환하던 수준에서 중국의 야채, 식품, 극동의 농수산물 등의 교역이 차츰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sup>99)</sup> 최근 중국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고

99) 이현태(2018), p. 77.

표 4-8. 중국의 선도개발구역 진출 현황

(단위: 억 루블)

	지역	입주구역 명칭(지역)	입주기업 (법인명)	투자분야	총사업비	투자자 (투자액)
1	프리모리예 변강	나테진스카야	Veles-Snek LLC	수산 가공	1.3	Suifenhe Heping Economic & Trade (지분 80%)
2		나테진스카야	Aptamil Dalniy Vostok Rus LLC	기저귀공장	15.5	Maneki Japan Co. (협력사)
3	하바롭스크 변강	하바롭스크	STK LLC	도로건설장비 공장 건설	14.0	Shenlun (1.98)
4	아무르 주	프리아무르스카야	Amur Energy Company LLC	정유공장 건설	1,230.0	Men Lan Shin He
5		프리아무르스카야	S Technology LLC	시멘트공장 건설	16.0	Men Lan Shin He, Sirius
6	유대인 자치주	아무로 · 한간스카야	Logistika LLC	호텔 신축	21.3	Chzhunte-Lunsin
7		아무로 · 한간스카야	Amurprom LLC	콩 가공 목재 가공	77.5 1.2	Chzhunte-Lunsin
8		아무로 · 한간스카야	Birobidzhansky Metal Structure Factory LLC	철구조물 · 건축 자재공장 건설	15.0	중국 투자회사
9	사하 공화국	강갈라시	Sakha Clay Pits LLC	건축자재공장 건설	3.0	Hunyan Chemical Product

자료: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2018), p. 8.

울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으로부터의 콩 수입을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주 등 극동 산 콩 수입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은 극동의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중·러 간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sup>100)</sup> 중·러는 2018년 11월 23차 양국 총리 간 정례회의에서 극동 농업개발협력 활성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sup>101)</sup> 이 회의에서는 중국의 러시아산 냉동가금육 및 유제품 수입과 극동 목축업 투자 프로젝트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sup>102)</sup>

100) "China to buy more Russian soybeans amid trade war with US"(2018. 9. 13),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8. 10. 12);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2).

101)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d),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3).

표 4-9. 중국의 자유항 진출 현황

(단위: 억 루블)

	지역	입주기업(법인명)	투자분야	총사업비	투자자(투자액)
1	프리모리에 변경 블라디보스토크	Q I LLC	호텔, 주택 건설	2,630.0	-
2		RKSK LLC	주택 건설	1,770.0	중국기업(78.8)
3		PrimorstroyLLC	주택 건설	2,420.0	중국기업(1,170)
4	프리모리에 변경 우수리스크	Erzo LLC	페타이어 가공	33.0	Aleteya Intl. Trade Co. (20)
5		Zhunda LLC	건축자재	154.5	-
6		Ussuri-Logistic LLC	냉동단지	72.6	Golden Rimes Lid.(홍콩)
7	프리모리에 변경 아르좁	Yubo-Sumotori LLC	화물차 제조	28.0	중국기업(9.3)
8	프리모리에 변경 파르티잔스크	Primorsk Gold Company	금광 개발	822.0	Oriental Dragon
9	프리모리에 변경	Svetliy LLC	고무공장	269.0	-
10	나데진스키 군	Vladstroy LLC	건설	174.0	상하이 무역회사 'Fusyan'
11	프리모리에 변경	Tai Yuan LLC	농업	230.0	-
12	쉬코토보 군	VMK LLC	물류단지 건설	1.0	-

자료: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2018), p. 59.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협력은 직접투자(FDI)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극동의 FDI 유입액 규모가 러시아 전체(1,490억 달러)의 7%(105억 달러) 수준이고, 이 가운데 78%(82억 달러)가 사할린 주의 사할린 1, 2 가스전 개발사업에 투자되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9~17년간 극동에 644억 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었고, 이 중 92%는 바하마, 버뮤다, 키프로스 등에 등록된 기업에 해당한다.<sup>103)</sup> 따라서 중국의 직접투자가 절대적인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양국간 공동투자펀드인 RCIF와 차관 제공 등 다양한 협력수

102)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e),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3).

103) 2009~17년간 외국인투자 유입액(644억 달러) 가운데 89.5%는 사할린 주에 투자되었으며, 나머지 10.5%는 사하 공화국(22억 달러/ 광업 분야), 프리모리에 변경(16억 달러/ 교통물류, 제조업 분야), 아무르 주(13억 달러) 등에 투자되었다. 극동 투자자의 93%가 지분투자방식으로 진출했다. INFRAONE(2018), p. 66.

단을 통해 극동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특히 [표 4-7]에서 보듯이, 중국은 극동의 교통·물류, 에너지 인프라 건설사업을 활발히 추진 또는 모색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중국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해 국영기업뿐 아니라 지방 민영기업의 극동 투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sup>104)</sup>

중국은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도 활발한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8년 1월 기준 선도개발구역 입주 외국기업 22개 가운데 9개가 중국 기업이며, 자유항의 경우 총 15개 기업 가운데 12개가 중국 기업이다. 중국 기업은 에너지, 농수산 가공, 목재 가공 및 건설자재·장비, 호텔·주택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sup>105)</sup> 이 가운데 아무르 주에 조성된 프리아무르스카야 선도개발구역 내 정유공장 건설사업은 2015년 일대일로 우선 추진 프로젝트에 선정된 바 있다.<sup>106)</sup>

## 다. 푸틴 4기 중국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푸틴 3기 들어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극동에서 양국간 경제교류도 활성화되었다. 이는 주지하듯이 극동에서의 협력이 양국에 주는 정치·경제적 실익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sup>107)</sup> 이에 초국경 인프라 협력사업의 추진뿐 아니라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sup>108)</sup> 2018년 푸틴 4기 출범(5월)과 시진핑 2기 출범(3월)으로 중·러 관계는 2023년까지 푸틴·시진핑 체제로

104) 조정원 한양대 교수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신북방경제포럼(2018. 7. 18, 서울).

105) 중·러 간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조성 전부터 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왔다. 특히 극동에서 일대일로와 연계되는 산업단지는 입업, 목재(가공) 분야 5개(유대인 자치주, 프리모리예 변경), 제조업 2개(우수리스크, 주로 신발 제조/가전, 자재 등), 농업(프리모리예 변경) 1개가 있다. 조정원(2018), pp. 185~187.

106) 위의 글, p. 184.

107) 이현태(2018), p. 77.

108) 위의 글, pp. 87~88. 참고로 관계 전문가는 최근 이런 중국의 극동진출 움직임이 중국 자본과 중국 인의 유입, 즉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현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도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한다. 조정원 한양대 교수 비공개 토론 내용, KIEP 신북방경제포럼(2018. 7. 18, 서울).

공고화될 것이다. 이는 곧 극동에서의 중·러 협력도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9월 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중국이 극동개발과정에 서 언제나 활발한 지지자이자 참여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sup>109)</sup> 시진핑 주석은 특히 중·러 관계가 일대일로와 EAEU 구상의 연계를 통해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에너지, 항공·우주, 교통·물류 등 전략적 프로젝트뿐 아니라 금융, 농업 등 새로운 성장분야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sup>110)</sup>

실제로 앞서 살펴본 대로 최근 중·러 간 극동 농업협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접경지역인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주 등과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는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무르 주와 유대인 자치주가 농림축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아무르 주는 러시아 대두 생산량의 35%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11)</sup> 또한 일대일로의 핵심 목표인 교통·물류, 에너지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아무르 주, 프리모리예 변경 등 접경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푸틴 3기 이후 중국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별 펀드와 위안화 펀드 등을 조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양국은 이런 금융 협력 틀을 활용해 첨단기술, 제조업, 농업, 관광 등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또한 대러 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러시아 접근을 강화한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했다.<sup>112)</sup> 따라서 중·러 간 금융협력은 상호 필요와 수요에 따라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

109)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f),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5).

110)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5).

111)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g),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23).

112) 관계 전문가는 현재 국제결제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 거래의 42%가 달러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지불시스템의 개발이 위안화의 국제화와 중·러 간 무역촉진뿐 아니라 미국 제재 회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달러 의존 줄이자”… 중·러, 금융협력 강화한다」(2018. 11.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23).

## 2. 일본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 가. 푸틴 3기 이후 일·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푸틴 3기에 일·러 관계는 두 번의 전환이 있었다. 첫 번째 전환은 2013년 4월 아베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 10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2012년 5월 푸틴 3기 출범에 이어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면서 양국 간 중대한 안보 현안인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sup>113)</sup> 2012년 3월 당시 푸틴 총리는 대선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일·러 관계 증진을 위한 해법으로 경제협력 강화와 ‘히키와케(引き分け·무승부)’에 기반한 영토문제 해결을 제시했다.<sup>114)</sup> 당시 유도 유단자인 푸틴 총리가 유도 용어로 무승부를 뜻하는 히키와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일본 측을 고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115)</sup> 2013년 4월 정상회담에서 일·러는 북방 4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 지속적인 상호 신뢰관계 구축과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경제협력 확대야말로 영토문제에서 비롯된 양국 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에도 동의했다.<sup>116)</sup> 이에 양국은 외무·국방 장관회의(2+2) 개최와 공동투자 플랫폼 구축에 합의했다. 이 투자 플랫폼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러시아대외경제은행(VEB)이 공동출자하여 극동·시베리아에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다.

113)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2017), p. 3.

114)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당사국으로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북방 4도 문제로 인해 양국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북방 4도는 남쿠릴 열도의 이투루프(Iturup), 쿠나시르(Kunashir), 시코탄(Shikotan), 하보마이(Habomai)를 일컬으며, 2차대전 당시 얄타협정에 따라 소련군이 점령한 이후 지금까지 양국 관계의 핵심 현안이 되었다. 러시아는 1956년 소·일 공동선언에 기반한 ‘평화조약 체결 후 2도 양도’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원칙적으로 4도 전체 반환을 주장한 바 있다. 위의 글, p. 3; Biren Nanda(2017), p. 1.

115) 「러·일관계, 평화조약을 향해 일본 전진」(2013. 5.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0. 13).

116) 앞의 글,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2017), p. 4.

표 4-10. 푸틴 3기 이후 일·러 주요 정상회담의 성과

구분	주요 협의 사항	관심 분야
2013년 4월 (모스크바)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무·국방 장관회의(2+2) 개최 합의</li> <li>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협력 확대와 극동의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 논의</li> <li>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러시아대외경제은행(VEB),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간 일·러 투자 플랫폼 구축 MOU 체결</li> <li>현대화 및 혁신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자 실무협의 메커니즘 활성화 필요성 논의</li> </ul>	에너지, 농업, 인프라, 교통, 도시 환경, 의료·제약, 현대화 및 혁신 등
2016년 5월 (소치) 비공식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접근(new approach)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경제협력 활성화와 영토문제 해결책 모색 필요성 확인</li> <li>아베 총리가 제안한 8개 항 경제협력 구상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 항 협력 분야: 보건·의료, 도시개발, 중소기업 교류·협력, 에너지, 산업다각화, 극동의 산업화, 첨단기술, 문화·인적 교류</li> </ul> </li> </ul>	수산업, 농업, 제조업, 에너지, 기타 8개 항 협력 분야 등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의 구체화 논의</li> <li>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담당 장관직 신설에 대한 논의: 경제통상산업성 장관(세코 히로시게)이 겸직</li> <li>블라디보스토크 일본비즈니스지원센터 설립 합의</li> <li>중소기업 교류, 에너지 협력, 극동 산업화 등 분야에서 협력 현실화 방안 논의</li> </ul>	8개 항 협력 분야 등
2016년 12월 (나가토, 도쿄)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방 4도에서 공동경제활동 추진방안 논의</li> <li>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의 지속적인 구체화 합의</li> <li>양국 정부 간(12건) 및 민간부문(68건) 총 80건의 투자협정 체결</li> </ul>	8개 항 협력 분야 등
2017년 4월 (모스크바)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의 지속적인 구체화와 현실화 합의</li> <li>보건·의료,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우선적 협력 필요성 논의</li> <li>총 28건의 정부 및 민간 투자협정 체결</li> </ul>	8개 항 협력 분야 등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JBIC, RDIF 간 공동투자펀드(RJIF) 설립 합의(10억 달러 규모)</li> <li>8개 항 협력 분야와 연계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현실화를 위한 협력 논의</li> <li>보건·의료, 도시개발 분야 협력 논의</li> <li>총 56건의 정부 및 민간 투자협정 체결</li> </ul>	8개 항 협력 분야, 디지털 경제 등
2018년 5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개 항 경제협력 구상에 기반한 지속적인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 논의</li> <li>양국간 공동투자펀드 설립을 통한 금융지원기반 마련 환영</li> <li>디지털 경제, 생산성 향상 분야 협력 활성화 논의</li> </ul>	8개 항 협력 분야, 디지털 경제 등
2018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방 4도 공동경제활동 로드맵 합의: 5대 협력 분야(수산물 양식, 온실 재배, 관광, 풍력 발전, 폐기물 처리)</li> <li>8개 항 경제협력 구상 기반 지속적인 협력사업 추진 논의</li> </ul>	8개 항 협력 분야 등

자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c), 온라인 자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d), 온라인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a),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0. 16) 참고 저자 작성.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은 '일본의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이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전격적인 움직임이었다.<sup>117)</sup> 아베 총리는 이후에도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의 회동을 통해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했다.<sup>118)</sup> 그러나 2014년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양국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아베 총리는 2014년 2월 서방 주요국의 정상이 불참한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등 러시아와의 신뢰구축의지를 보였으나, 이후 일본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양국간 심도 있는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었다.<sup>119)</sup>

푸틴 3기 일·러 관계의 두 번째 전환은 2016년 5월 아베 총리의 비공식 소치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일·러 정상 간 소치 회동은 양국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당시 아베 총리는 8개 항의 대러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푸틴 3기 후반기 이후 일·러 경제관계의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표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몇 년간 일·러 경제협력 논의의 핵심 의제는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의 구체화 및 현실화'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러시아에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을 제안한 이후 2016~18년 3회 연속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강한 대러 협력의지를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푸틴 3기를 거치며 일·러 관계는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대러 접근에 힘입어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 배경에는 영토문제 해법 모색의 필요성뿐 아니라<sup>120)</sup> 일본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sup>121)</sup> 역내에서 중·러

117) 위의 글,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2017), p. 4.

118) 김덕주(2014), pp. 4~5.

119) Valdai Discussion Club(2017), p. 8.

120) 아베 총리는 '선' 경제협력, '후' 영토문제 해결 전략으로 최대 현안인 '북방 4도' 반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개 항의 경제협력 구상'을 축으로 한 경제협력을 실시하고, '북방 4도' 내에서는 '공동경제 활동'을 실시하는 중층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염동호 한국메니페스트정책연구소 이사장 비공개 토론 내용, KIEP 신북방경제포럼(2018. 7. 18, 서울).

121) 일본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가동이 멈추면서 전력수급이 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일본의 대러시아 접근의 배경으로 일본 기업의 북방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러시아의 경험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국내 경제의 돌파구로도 활용하려는 의

협력관계가 심화되는 데 따른 위기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22)</sup>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이 대러시아 제재 참여로 소원해진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극적인 정상간 교류와 협력 아이템 발굴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sup>123)</sup>

## 나. 푸틴 3기 이후 일본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 1) 진출전략: 8개 항 협력 구상기반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

상술한 바와 같이 푸틴 3기에 일·러 경제관계는 아베 총리가 제안한 8개 항 협력 구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8개 항은 일·러 양국이 보유한 잠재력과 협력 수요에 기반하여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8개 협력 분야를 가리킨다. 이는 보건·의료, 도시개발, 중소기업 교류·협력, 에너지 개발, 러시아의 산업다각화, 극동의 산업화, 첨단기술협력, 문화·인적 교류 확대이다.

일본은 극동을 이 같은 8개 항 협력 구상을 구체화·현실화해나가기 위한 교두보이자 주요 협력 공간으로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일·러 정상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협력 확대와 극동의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표 4-11 참고).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초 일본 경제통상산업성은 노무라종합연구소와 함께 작성한 러시아 보고서를 통해 극동의 미래 비전과 극동에서 일·러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sup>124)</sup>

이에 따르면, 일본은 극동의 비전으로 극동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일본의 기

---

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염동호(2018), p. 95.

122) *op. cit.*, Valdai Discussion Club(2017), p. 9; Доклад о комплексном развит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2017), p. 15.

123)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력루트를 마련하고 기존의 협력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협력이 사실상 일본이 서방의 경제제재에 수동적으로 추종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양국 협력에서 경제제재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의견이다. 박지원(2018), pp. 19~21.

124) 이 보고서는 신홍국 시장개척사업 러시아 보고서(부제: '러시아: 일·러 투자 촉진을 위한 틀 마련에 관한 지원 사업')이다. 앞의 글,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2017), p. 14.

표 4-11. 일본의 대러 8개 항 협력 구상

분야	주요 내용
보건·의료	일본 스타일의 최첨단 병원과 일·러 건강장수센터의 건설 및 운영 등 의료수준 제고를 통해 러시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협력
도시개발	도시개발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온 일본의 식건과 기술을 활용하여 한랭지역에 적합한 주택과 폐기물처리시스템, 교통정체 해소, 상하수도 정비, 도시교통망과 우편네트워크 정비, 재개발 토지(brownfield) 개발분야 등 협력
중소기업 교류·협력	비즈니스 매칭, 벤처 지원, 직종간 교류 등을 추진하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
에너지	석유가스 생산능력 확대,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전 분야에서 기존 협력을 능가하는 연계를 강화
러시아 산업다각화	상징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
극동 산업화	극동지역의 근원적인 산업진흥, 아·태지역을 향한 수출기회화를 위한 협력(항만, 농지 개발, 수산물 가공, 임산물 가공, 공항 정비 등)
첨단기술협력	원자력, IT, 러·일 양국의 지혜를 결집한 첨단기술분야의 협력
문화·인적 교류	일·러 양국의 상호 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해 대학과 청소년들의 교류 및 문화관광, 스포츠 교류 등 인적 교류를 근본적으로 확대

자료: 박정호, 강부근, 민지영(2017), p. 14. 저자 수정.

술 및 노하우를 결합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에코경제 발전모델’을 제안했다. 이처럼 일본은 대러시아 제재 국면에서도 극동을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때 제시된 대러시아 협력 비전과 방안이 8개 항 협력 구상에도 비중 있게 반영되었다.

예컨대 8개 협력 분야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극동의 산업화다. 이는 일·러 협력에서 극동이 차지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있으며,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대한 협력 수요도 크다는 방증이다. 또한 일본은 나머지 7개 항도 극동에서 일·러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연계성이 높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sup>125)</sup> 아베 총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에서의 협력 활성화는 8개 항 협력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일·러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의 경제·사회적 수요와 일본의 경험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협

125) 참고로 일본은 2007년 마련한 ‘극동·시베리아에서 일·러 협력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에서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보건·의료, 통상·투자환경 개선, 관광·인적 교류 촉진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7).

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의학기술과 도시인프라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여 극동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진전에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sup>126)</sup>

일본은 극동에서 전통적인 협력사업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을 다변화·고부가가치화하는 한편, 보건·의료, 도시개발, 첨단기술 분야 등 일본이 기술과 노하우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유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극동에서 우선협력사업으로 강조하고 있는 보건·의료, 도시개발 사업과 최근 일본 기업이 선점하여 입지를 다지고 있는 온실단지사업 등은 중소기업의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푸틴 3기 이후 일본의 극동진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경향이라고 하겠다.

## 2) 주요 협력 플랫폼

푸틴 3기 이후 일·러 간 경제관계의 진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움직임은 일본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장관직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6년 9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개최된 일·러 정상회담에서 전격 발표되었다. 세코히로시게 경제통상산업성 장관이 대러시아 경제협력 담당 장관직을 겸직하게 되었는데, 세코 장관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와의 협력을 전담하는 장관이 임명된 것은 일본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sup>127)</sup>

세코 장관은 대러시아 경제협력 담당 장관직을 맡은 이후 수차례 러시아를 방문하여 8개 항 협력 구상에 기반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세코 장관을 대표로 하는 2개의 협의체가 신설되었다(표 4-12 참고). 이는 '일·러 8개 항 협력 구상 현실화를 위한 고위 실무그룹'과 '일·러 에너지 이니셔티브 협의회'이다.

---

126) Eastern Economic Forum 2017, p. 2; Eastern Economic Forum 2018, p. 6.

127) “«Наш премьер ждет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открытой душой»”(2016. 11.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0. 17).

표 4-12. 푸틴 3기에 신설된 주요 일·러 협의회

협의회체	설립 목적	주요 논의내용(푸틴 4기 포함)
<b>일·러 8개 항 협력 구상 현실화를 위한 고위 실무그룹</b> (2016년) * 장관급 (일)경제통상산업성 / 대러 경제협력담당 장관 (러)경제개발부 장관	8개 항 협력 구상 기반 구체적인 협력 활성화 논의	- 1차 회의(2016년 11월, 모스크바): 8개 항 협력 분야의 우선 프로젝트 논의 - 2차 회의(2018년 2월, 도쿄): 8개 항 협력을 위한 양국의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디지털 경제, 노동생산성 향상 등 새로운 협력 분야 논의
<b>일·러 에너지 이니셔티브 협의회</b> (2016년) *장관급 (일)경제통상산업성 / 대러 경제협력담당 장관 (러)에너지부 장관	석유·가스, 원자력,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	- 1차(2016년 11월, 모스크바), 2차(2017년 1월, 모스크바), 3차(2017년 4월, 모스크바), 4차(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5차(2018년 2월, 도쿄), 6차(2018년 4월, 모스크바): 석유·가스, 원자력,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분야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b), 온라인 자료: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0. 17) 참고 저자 작성.

그동안 일·러 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일·러 정부 간 무역·경제 위원회’에서 이뤄왔다. 이 위원회는 양국간 다양한 경제협력 이슈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극동에서의 협력과 러시아의 현대화 지원을 위한 협력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일본 외무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7년 11월 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도 8개 항 협력 구상 실현을 위한 극동의 중요성과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되었다. 일·러 정부 간 무역·경제 위원회는 산하에 무역·투자 하부위원회와 지역간 협력 하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지역간 협력 하부위원회는 처음에 극동 하부위원회로 설립된 후 2007년에 정부간 하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sup>128)</sup>

또 다른 협력의 플랫폼은 중·러와 마찬가지로 공동출자펀드다. 일·러는 2017년 9월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공동출자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펀드(RJIF)를 설립했다. 이 펀드는 2017년 12월 러시아 국영 파이프라인 업체인 트랜스네프트사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의료, 바이오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12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7).

표 4-13. 일·러 투자펀드의 주요 투자 성과

분류	우선분야	주요 실적
일·러 투자펀드 (RJIF) (2017년 9월)	8개 항 협력 구상: 보건·의료, 도시개발, 중소기업 교류·협력, 에너지, 산업다각화, 극동의 산업화, 첨단기술, 문화·인적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가 각각 5억 달러씩 출자하여 총 10억 달러 규모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12월 러 국영 파이프라인 업체 Transneft사에 100억 루블 투자</li> <li>- 2018년 3월 다기능 원격의료서비스 업체 Doctis사 소규모 지분 인수</li> <li>- 2018년 5월 RDIF, JBIC IG Partners, (러)RFP사, (일)프로스펙트사와 공동으로 러시아 바이오연료산업에 투자 합의(목재 펠릿 생산공장 건설 프로젝트 포함)</li> <li>- 2018년 9월 AR 디스플레이 개발업체 Wayray사에 투자 합의</li> </ul> </li> </ul>

자료: Russia-Japan Investment Fund, DB 자료(검색일: 2018. 10. 18) 참고 저자 작성.

2018년 5월에는 러시아 RFP사와 일본 프로스펙트사가 공동으로 러시아 바이오연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16년 12월에 8개 항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RFP사와 프로스펙트사가 체결한 합의서(목재 펠릿 9만 톤 생산 프로젝트 용자 의향 합의서)에 근거하고 있다.<sup>129)</sup>

주목할 점은 일·러 투자펀드(RJIF)가 단순한 금융지원기구가 아닌 용자와 경영 컨설팅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일본은 JBIC의 자회사로 국제인프라투자 전문컨설팅그룹인 JBIC IG Partners를 설립해 RJIF의 투자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도록 했다.<sup>130)</sup>

또한 2018년 2월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과 JBIC,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펀드(FEBRDF) 간 조인트벤처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또한 8개 항 협력 구상 추진의 일환으로 합의된 사안이다. 이 조인트벤처는 극동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정보 지원, 사업 기획, 정부기관과 소통 등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단일창구(싱글 윈도)’

129) 앞의 글,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2017), p. 21.

130) “일·러 투자플랫폼을 겨유한 진출의 경우 헨즈은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금융기관은 일본무역보험(NEXI)의 보증을 활용하고 있는데, 경험의 실행주체는 기업이므로 민간의 활력과 경영 노하우 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자비율은 50% 미만으로 하여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앞의 책, 염동호(2018), pp. 100~101.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sup>131)</sup> 특히 이는 중소기업의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극동에서 일·러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sup>132)</sup>

### 3) 일본의 극동 협력 현황

2017년 기준 일본과 극동의 교역규모는 54억 달러로, 일본은 극동의 제3위 교역국이다(글상자 4-1 참고). 극동 9개 연방주체 가운데 일본과 교역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사할린 주, 프리모리예 변강이다. 특히 사할린 주가 일본·극동 간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2%에 달해 지역 편중도가 매우 높다. 이는 일본이 극동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대부분 연료·에너지라는 점에 기인한다. 즉

표 4-14. 극동의 지역별 대일본 교역 현황(2017년)

	수출		수입		합계	일본·극동 간 총교역 대비 비중(%)
	금액 (백만 달러)	주요 품목	금액 (백만 달러)	주요 품목		
사하 공화국 (야쿠티야)	164.6 (3.4)	석탄 및 고체연료	-	-	166.6 (3.4)	3.1
캄차카 변강	98.2 (14.0)	냉동어육, 갑각류	16 (14.7)	냉동고, 선박, 어선	114.2 (14.1)	2.1
프리모리예 변강	272.4 (8.9)	석유 및 석유제품	469.6 (12.5)	자동차(부품), 불꽃점화엔진	742.0 (10.9)	13.7
하바롭스크 변강	-	-	-	-	200.4 (7.5)	3.7
아무르 주	-	-	2.9 (1.4)	내연기관 엔진,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부품	3.2 (0.6)	0.1
사할린 주	4,056.9 (38.4)	석유가스, 원유 및 원유제품	62.8 (4.5)	철강 파이프 및 튜브, 예인선, 선박	4,119.7 (34.4)	76.2

주: 1) 극동 9개 연방관구 가운데 통계 확보가 되지 않은(- 표시 포함) 일부 지역은 제외.

2) ( )는 해당 지역 수출입 및 총교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DB 자료(검색일: 2018. 9. 20).

131) "Russia and Japan Set Up a Joint Venture to Implement Investment Projects in the Far Eas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7).

132)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ая компания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в ТОР появится в феврале 2018 года"(2018. 2.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0. 18).

표 4-15. 일본의 선도개발구역 진출 현황

	지역	입주구역 명칭(지역)	입주기업 (법인명)	투자분야	총사업비 (억 루블)	투자자 (투자액)
1	하바롭스크 변강	하바롭스크	JGC Evergreen LLC	온실단지	10.3	JGC Evergreen
2	사할린 주	고르니 보즈두흐	Khonoka Sakhalin LLC	리조트단지	5.0	Marusin Iwadera (3.01)
3	사하 공화국	캉갈라시	Sayuri LLC	온실단지	13.3	Hokkaido corporation (12.4)

자료: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2018), p. 8.

사할린산 석유·가스 수입액이 일본의 대극동 수입액의 84.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극동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엔진, 철강파이프 등이다.

앞서 살펴본 중국의 사례처럼, 일본의 극동에 대한 FDI는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 그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 기업은 사할린 가스전 1, 2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참여를 통해 극동의 에너지 분야에서 존재감을 확대해왔다. 일본 소데코(Sodeco, 이토추, 마루베니 상사 등이 출자한 사할린 석유가스 개발 컨소시엄)가 사할린 1프로젝트에서 총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종합상사 미쯔이사, 미쯔비시사가 사할린 2프로젝트의 지분을 각각 12.5%와 1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기업 마쯔다(Mazda)가 러시아 솔러스와 합작해 만든 현지 법인인 마쯔다 솔러스 매뉴팩처링 루스(Mazda Sollers Manufacturing Rus)가 극동에서 자동차엔진 조립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극동 제조업 분야에서도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6년 5월 8개 항 협력 구상을 제안한 이후 극동에서 보건·의료, 온실단지, 우편자동화시스템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의 투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앞서 밝힌 대로 일본 기업이 선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다. 이 일환으로 일본은 2018년 5월 블라디보스토크에 홋카이도의 사회의료법인 호쿠토(北斗) 재활치료센터를 설립했다.

표 4-16. 일본의 자유항 진출 현황

	지역	입주기업 (법인명)	투자분야	총사업비 (억 루블)	투자자 (투자액)
1	프리모리에 변강	New Coal Terminal LLC	주택 건설	420	First Wood Primorye(300)
2	블라디보스토크	Stroymekha-nizasiya LLC	의료	44	Hokuto Social Medical Co./JGC Co.
3	프리모리에 변강 파르티잔스크	Slavyanka Timber Terminal LLC	석탄터미널	60,618	Tosei, JBIC (48,490)
4	프리모리에 변강 하산군	JGC Hokuto Medical Service LLC	목재 가공	1,230	-

자료: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2018), p. 58.

[표 4-15]와 [표 4-16]에서 보듯이, 일본 기업은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점진적인 진출을 모색 중이다. 특히 JGC 에버그린(JGC Evergreen)사, 홋카이도 코포레이션(Hokkaido Corporation)사가 추진 중인 온실단지사업은 선도개발구역 추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 다. 푸틴 4기 일본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주지하듯이, 푸틴 3기 이후 일본은 이른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대러시아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극동은 8개 항 협력 구상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대러시아 협력 전략을 구체화 및 현실화하기 위한 교두보로 부상했다.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 제4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일본이 역내에서 점을 연결하는 역할(Dot Connector)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sup>133)</sup> 이는 고립된 물적 및 인적 자원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 연설에서 앞으로 일본이 유라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연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위대한 연결자(Dot Connector)’가 되기를

133) “Address by H.E. Mr. Shinzo Abe at the 4th Eastern Economic Forum Plenary Sess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3).

희망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런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시너지 창출이 필수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춰볼 때, 최근 일본은 8개 항 협력 구상의 실현과 함께 유라시아 역내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지경학적 전략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푸틴 4기에 일본의 대러시아 접근과 극동에서 일·러 협력은 상호 정책적 수요와 높은 협력 잠재력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진전될 전망이다.

일본의 극동진출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극동과의 교역·투자 협력이 사할린 주에 편중된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8개 항 협력 구상을 토대로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한 중소규모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등을 활용하여 극동에서 협력의 공간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1절에서 살펴본 중국의 극동진출이 기본적으로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둔 확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비즈니스 모델을 극동에 적용하는 일종의 글로벌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34)</sup>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공동으로 조성한 투자펀드를 수단으로 하여 의료·보건, 임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이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공식적으로 동참한 것과 별개로 대러시아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국책은행인 JBIC가 일·러 정부 간 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한편, 제재 대상인 러시아은행이 아닌 지방은행 등의 비제재 대상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금융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35)</sup>

134) 염동호 한국메니페스트정책연구소 이사장,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 비공개 토론 내용, KIEP 신북방 경제포럼(2018. 7. 18, 서울).

135) 앞의 글, 박지원(2018), pp. 25~28. “특히 JBIC는 수익성이 높은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는 ‘특별계정’을 만들었다. 이는 모든 투자 안전을 흑자로 운영한다는 방침에서 종합적으로 흑자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목표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도 불사하겠다는 대러 경험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책, 염동호(2018), p. 101.

## 제5장



#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평가와 신경제협력 방향

1.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2. 한국의 극동 신경제협력 방향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푸틴 3기 이후 극동은 동북아 주요국인 중국, 일본의 새로운 전략공간으로 부상했다. 러시아도 극동개발을 이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극동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이다(글상자 4-1 참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극동은 대러시아 협력 증진을 위한 관문이자 교두보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2017년 기준 한·러 전체 교역에서 극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에 달하고, 극동에서 양국간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협력의 확대 잠재력도 크다.

실제로 한국은 러시아뿐 아니라 북방지역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적인 거점으로서 극동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해왔다. 이는 극동개발의 촉진과 남·북·러 3각협력의 활성화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자극하고 한반도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당위성과 기대에 따른 것이었다.<sup>136)</sup>

이런 차원에서 2018년 들어 급속하게 전개된 한반도의 정세 변화로 인해 극동에서 한·러 협력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새롭게 조성될 역내 협력 환경 속에서 그 잠재력을 실현할 새로운 대러시아 협력을 모색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 이 장에서는 푸틴 3기 이후 한국의 극동진출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푸틴 4기에 한국이 극동에서 추구할 필요가 있는 대러시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 가. 푸틴 3기 이후 한·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푸틴 3기 이후 한·러 관계는 지난 28년간의 양국 관계를 대변하듯이 협력과

---

136) 앞의 책, 제성훈 외(2014), p. 61.

갈등, 진전과 정체의 이중주를 경험했다.<sup>137)</sup> 2012년 5월 푸틴 정부 3기 출범에 이어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유라시아 협력 확대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요 국가전략으로 추진함에 따라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 듯했다. [표 5-1]에서 보듯이, 2013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새로운 한·러 관계, 그리고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sup>138)</sup> 이는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강화정책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중시정책, 즉 신동방정책을 접목하여 양국간 실질협력을 확대 하자는 것이었다. 이때 양국은 공동 투·융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자면제협정(2014년 1월 1일 발효)을 체결하는 등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북핵문제에 따른 한국의 나진·하산 사업참여협상 중단, 한국 내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해 한·러 관계는 급속도로 정체되었다. 2013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시까지 약 3년 동안 양국간 정상회담이 부재했다.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2015년에도 정상간 축하 메시지 교환만 이루어졌으며, 고위급 인사 및 협의체 간 교류도 감소했다. 2016년 8월 개최된 제15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대내외 요인으로 침체된 양국간 상호 호혜적 발전방안 마련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다만 푸틴 3기 전반기에 전개된 이 같은 양국 관계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공동연구 추진<sup>139)</sup>과 비자면제협정 체결에 따른 상호 인적 교류 확대 등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푸틴 3기 하반기에 한·러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신북방정책을 추

137) 고재남(2015), p. 29.

138) 푸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주변 주요 4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2013년 한·러 정상회담 개최 결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0).

139) 이 공동연구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 간에 수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EAEU FTA 체결 추진경과와 그 전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1) 참고.

표 5-1. 푸틴 3기 이후 한·러 주요 고위급 회담의 성과

구분	주요 협의사항	주요 키워드
2013년 7월 (서울) 13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동개발협력 논의: 북극항로 협력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철도 및 항만 인프라 개발사업, 발전소 건설 및 탄광 개발, 농수산 분야 물류·유통 인프라 개발사업</li> <li>남·북·러 3각 사업의 실질적 추진 필요성 인식: 나진·하산 철도망 연계 및 송전망 구축사업 등 논의</li> </ul>	극동개발, 남·북·러 3각협력
2013년 11월 (서울)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유라시아협력 강화정책, (러)아·태지역 중시정책을 접목, 양국 간 협력 잠재력 구현 필요성 인식</li> <li>'새로운 한·러 관계, 그리고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동성명 채택: 실질협력 확대(나진·하산, 수산, 교통인프라, 북극항로 개발, 과학기술, 농업 등) 등</li> <li>공동 투·융자 플랫폼 구축: 한국수출입은행·러 대외경제은행(VEB) 간(10억 달러, 한국투자공사(KIC)·러 직접투자펀드(RDIF) 간(5억 달러) / 한국수출입은행·스베르뱅크 간 중장기 금융지원협력 MOU (한도 15억 달러)</li> <li>스콜코보 혁신단지 내 한·러 혁신거점센터 구축 합의</li> <li>비자면제협정 체결(2014년 1월 1일 발효)</li> </ul>	유라시아협력, 남·북·러 3각협력, 공동 투·융자 플랫폼, 비자면제협정
2015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 14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동방정책의 연계 차원에서 극동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 인식</li> <li>상호 투자 및 기업 진출 활성화 논의</li> <li>남·북·러 3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li> </ul>	유라시아 협력, 남·북·러 3각협력
2016년 8월 (서울) 15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내외 요인으로 침체된 양국간 경험의 상호 호혜적 발전방안 논의</li> <li>(한)유라시아 구상, (러)신동방정책의 연계 차원에서 한·EAEU FTA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강조</li> <li>극동개발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 강화 합의: 블라디보스토크 냉동창고 건설, 항만 개발 및 현대화 사업 등 논의</li> </ul>	유라시아협력, 극동개발, 한·EAEU FTA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동에서 양국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li> <li>북핵 문제 관련, 양국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li> <li>극동 보건·의료, 수산투자 등 분야 MOU 체결</li> <li>한·EAEU FTA 논의 본격화 논의</li> </ul>	극동개발, 한·EAEU FTA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및 16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신북방정책, (러)신동방정책 추진을 위한 양국간 경험의 중요성 공감</li> <li>북핵문제 관련 한·러 공조 논의 및 남북관계와 별도로 한·러 협력의 심화·공고화 필요성 합의</li> <li>극동에 초점을 맞춘 금융협력 강화 합의, KOTRA·극동투자 유치 수출지원청 간 협의체별 강화 등 기업지원방안 논의</li> <li>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신설: 한국수출입은행·극동개발기금(FEDF) 간 2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체계 구축</li> <li>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블라디보스토크 KOTRA 내) 설립 합의</li> <li>과학기술·혁신, 보건·의료, 농수산, 북극항로 등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 견인을 위한 협력 강화 합의</li> <li>남·북·러 3각협력사업에 대한 협의체별 재개 및 공동연구 수행 등 진행하기로 합의</li> <li>한·러 지방협력 포럼 추진 합의(2018년 경상북도에서 출범, 2019년 극동 프리모리에 변경에서 개최)</li> <li>한·EAEU FTA 공동 실무작업반 설치 합의</li> </ul>	신북방정책, 극동개발,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남·북·러 3각협력, 한·EAEU FTA

표 5-1. 계속

구분	주요 협의 사항	주요 키워드
2018년 6월 (서울)  17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측은 한·러 경험이 양국뿐 아니라 남·북·러 3국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 강조</li> <li>• 한·러 경험의 공고화, 미래화, 고도화 등 3대 분야 협력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화: 9개 다리(9-Bridge) 협력사업기반 극동협력 추진, 극동지역 진출 위한 금융협력 강화, 농업 비즈니스 대화 정례화 및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건설사업 진척, 극동 공항인프라 개선사업 참여 확대, 철도공사간 협력 강화 논의</li> <li>- 미래화: 공동 혁신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포럼 개최, 과학연구기관 공동연구·인력 교류, ICT 분야 협력 강화,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등 논의</li> <li>- 고도화: 보건·의료(CT 기반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류 확대 논의</li> </ul> </li> <li>•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러 3각협력사업 구체화 논의</li> </ul>	극동개발, 9개 다리 전략, 남·북·러 3각협력
2018년 6월 (모스크바)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역구조 다변화 촉진 및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논의 본격화 합의</li> <li>• 정보통신 및 응용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모델 창출, 중소·벤처 기업 협력 활성화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 논의</li> <li>• '9개 다리 행동계획' 마련 합의</li> <li>• 극동개발협력 확대: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활용, 공동 투융자 플랫폼 및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차원 유망 프로젝트 실현</li> <li>• 남·북·러 3각협력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논의: 철도연구기관 MOU 체결</li> </ul>	한·러 서비스·투자 FTA, 9개 다리 전략, 남·북·러 3각협력

자료: 기획재정부,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관련 온라인 보도자료 발체 정리(검색일: 2018. 10. 19); 「제14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9); 김찬호(2013), pp. 11~13; 「2013년 한·러 정상회담 개최 결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0); 「한·러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전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8); 「전문」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2018. 6.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0. 19) 참고 저자 작성.

진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거점인 극동에서의 한·러 협력 활성화를 우선적이고 긴요한 과제로 삼았다. 특히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남·북·러 3각협력의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는 정체된 한·러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를 극동에서 찾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남·북·러 3국 간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러 간 9개 다리(9-Bridge)를 놓아 동시다발적 협력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러 협력 자체를 목표 삼아 양국간 협력의 심화와 공고화를 기반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할 필요성을 시사

했다.<sup>140)</sup> 이어 2018년 6월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러 양국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면서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푸틴 3기 이후 한·러 관계는 대내외 변수에 따른 부침을 겪었으나, 2018년 5월 푸틴 정부 4기 출범을 전후로 재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 나. 푸틴 3기 이후 한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 1) 진출전략: 신북방정책 일환 9개 다리 전략에 기초한 협력의 공고화·미래화·고도화 추구

푸틴 3기 전반기에 한국의 극동진출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협력 거점이자 교두보 구축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대내외 요인에 따른 한·러 관계 침체에 따라 그 동력을 점차 상실했다.

푸틴 3기 하반기를 거치며 한국의 극동진출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신북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북방 유라시아 경제권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실천구상으로 제시되었다.<sup>141)</sup> 이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북방경제권과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에 기반한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중국의 일대일로 등 역내 주요국의 경제 통합 및 개방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데 따른 협력공간의 확대기회를

140) 「한·러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관련 운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1).

141)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은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북방과 남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북방정책(유라시아 협력 강화)과 신남방정책(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와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2).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도 컸다.<sup>142)</sup>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현실화를 위해서도 북방경제권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이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으며,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극동이라고 강조했다. 즉 극동은 신북방정책 실현을 위한 지전략적 및 지경학적 핵심 공간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9개 다리(9-Bridge) 전략을 토대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9개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산업단지 등 9개의 유망 협력 분야를 가리킨다.

9개 다리 전략은 2017년 12월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신북방정책의 중심축이다(표 5-2 참고).<sup>143)</sup>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18년 6월 2차 회의 결과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비전 아래 신북방정책의 실현을 위한 4대 목표와 14대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그리고 [표 5-2]와 같이, 14대 중점추진과제는 곧 9개 다리 협력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2018년 한·러 정상회담과 제17차 한·러 부총리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은 9개 다리 전략을 통해 극동에서 양국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보건·의료, 혁신, 문화·관광 등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러 경제협력의 미래화와 고도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2018년 9월 제4차 동방경제포럼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9개 다리 협력에 중점을 두면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양국이 환경, 보건·의료, 교육 분야를 추가적인 협력 분야로 정했다는 점을 밝혔다.<sup>144)</sup> 현재 한·러는 ‘9개 다리 행동계획’ 마

142) 북방경제협력위원회(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2).

143)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17년 12월(9개 다리 분야별 추진방안,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 등), 2018년 6월(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 과제,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등) 두 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북방경제협력의 추진 방향을 논의·발표했다.

144) 「제4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 기조연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2).

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145)

표 5-2. 신북방정책의 주요 내용

비전과 목표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시대 구현
추진방향	교역·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확대
	△ 9개 다리(9-Bridge) 전략 추진 △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추진 △ 경험 확대를 위한 제도·금융 인프라 구축 △ 문화, 인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및 교류 확대 △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4대 목표 및 14대 중점추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li> <li>② 환동해 관광협력 활성화</li> </ol> </li> <li>2.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li> <li>④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li> <li>⑤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li> <li>⑥ 북극항로 진출로 해운·조선 신시장 개척</li> </ol> </li> <li>3.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li> <li>⑧ 인프라, 환경 협력 확대</li> <li>⑨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li> <li>⑩ 북방진출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li> <li>⑪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협력 확대</li> <li>⑫ 농수산분야 진출 활성화</li> </ol> </li> <li>4. 인적·문화 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⑬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li> <li>⑭ 대학·청년·학생단체 교류 활성화 및 인력 양성</li> </ol> </li> </ol>
9개 다리 전략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산업단지 9개 분야에 대한 동시다발적 협력사업 추진
	<p>△ 가스: 러시아 LNG 추가 도입 등을 통한 가스 도입선 다변화 및 향후 남·북·러 가스관 연결</p> <p>△ 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운송 활성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향후 TSR과 남북 철도(TKR) 연결</p> <p>△ 항만: 자루비노항 등 극동지역 항만 현대화 및 건설</p> <p>△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한·중·몽·일·러 간 전력을 연계·공유하는 광역 전력망인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p> <p>△ 북극항로: 북극항로를 새로운 물류루트로 개척하여, 북극항로 상업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해 시장 선도</p> <p>△ 조선: 극지 이동 쇄빙 LNG 운반선 건조 및 조선소 건설</p> <p>△ 농업: 종자 개발, 재배기술 연구 등 한·러 농업협력 확대</p> <p>△ 수산: 연해주 수산물복합단지 조성 및 어업쿼터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 확보</p> <p>△ 산업단지: 남·북·러 협력을 통한 연해주 공단 조성</p>

145) 「강경화, 러 극동개발장관 면담…“극동지역 교류·협력 확대”」,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1).

표 5-2. 계속

지역별 전략	동부권역 (러 극동, 중국 동북 3성)	<input type="checkbox"/> 경험 강화를 통한 한·러 간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러)신동방정책, (중)일대일로, 몽·중·러 경제회랑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 • 극동개발협력사업 추진: 9개 다리 사업 외 한·러 공동신규사업 발굴 (ICT, 교통, 친환경, 호텔리조트, 보건의료, 교육 등) • 일대일로 연계사업 및 동북 3성에 대한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 - 남·북·러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유도 • 한·러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남·북·러 협력사업 단계적 추진: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추진, 가스·철도·전력 분야 사업 추진방안 마련
	중부권역 (중앙아, 몽골)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적 유대감을 통해 정치외교적 신뢰관계 구축 및 자원 개발, 인프라 분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교류 협력 확대 - 성장잠재력이 큰 자원 개발, 인프라 분야 협력 지속 강화 • 석유화학, 도로/공항, 열병합 발전소 등 우리 기업 관심사업 지원, 개발금융 지원 강화 - 한국이 강점이 있는 제조업, 농업, 정보통신 분야로 협력 확대 • 역내 경제 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고려
	서부권역 (러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input type="checkbox"/> 역내 기초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결합한 기술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 연구기반 활용한 기술협력 및 공동투자 - 한·러 과학기술협력 센터(모스크바)를 협력 거점기관으로 조성
추진계획	- 주요국과 협의채널 구축: (러)극동개발부와 MOU 체결(2018년 上) 및 지방협력 포럼 개최(2018년 下) 등 - 9개의 다리 전략 실행계획 마련 -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 마련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a), 온라인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b),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0. 22) 참고 저자 재구성.

## 2) 주요 협력 플랫폼<sup>146)</sup>

푸틴 3기 이후 한국의 극동진출전략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경제권과의 협력을 주관하는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 즉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처음으로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대응해 극동개발협력을 담당할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146) 수교 이후 한·러 극동 간 협력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은 앞의 책, 제성훈 외(2014), pp. 126~142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5-3. 푸틴 3기 이후 한·러 간 주요 실무 협의체 논의내용

협의체	설립 목적	주요 논의내용
<p>극동·시베리아 분과위 (2002년 이래 정례 개최) * 기존 국장급에서 9차부터 차관급으로 격상 (한)외교부 차관보 / (러)극동개발부 차관</p>	<p>한·러 경제공동위 산하 정부간 실무 협의체: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양국 지자체 간 교류·협력 확대방안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차 회의(2012년 7월, 올란우데): 극동에서 교역·투자 활성화, 에너지, 보건·의료, 교통·물류, 건설·인프라,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li> <li>• 9차 회의(2015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한)유라시아 이니셔티브·(러)신동방정책 연계 모색 차원에서 선도시회개발구역, 자유항 등 러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공유, 남·북·러 3각협력방안 논의 등</li> <li>• 10차 회의(2016년 7월, 모스크바): 한·러 투융자 플랫폼 활용방안 협의, 농·축산업, 수산업, 보건의료 등 주요 분야 협력방안 논의</li> <li>• 11차 회의(2017년 6월, 서울): 극동 내 한국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코트라 무역관과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간 협의채널(hotline) 구축, 한국 의료기관의 극동 진출 및 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방안 등 논의</li> <li>• 12차 회의(2018년 5월, 모스크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활성화 및 극동 투자 진출 안내서 발행 등 투자·교역 활성화 방안, 보건·의료, 항만, 농수산, 임업, 건축자재 분야 외 남·북·러 3각협력 관련 철도·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 추진 등 논의</li> </ul>
<p>한·러 혁신 워킹그룹 회의 (2018년) * (한)과기정통부 차관 (러)경제개발부 차관</p>	<p>한·러 정상회담 (2018년 6월)에서 합의한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관련 실질협력사업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회의(2018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혁신 플랫폼 운영방안 △혁신창업·벤처기업 지원 협력 △공동펀딩 조성을 통한 양국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협력 지원 논의</li> </ul>
<p>한·러 투자 촉진 실무그룹 회의 (2016년) * (한)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러)경제개발부 차관</p>	<p>14차 한·러 경제과학 기술공동위(2015년 10월)의 합의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 및 상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회의(2016년 3월, 서울): 한·러 투융자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투자사업 발굴 및 지원방식 논의, 투자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논의, 양국외의 관심사업 제시 등</li> <li>* 한국은 자루비노항 개발사업, 극동 수산물클러스터 사업, 한·러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사업 제안</li> </ul>
<p>한·러 기업협의회 (2017년)</p>	<p>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 활성화 지원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KOTRA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12월 공식 출범, CJ대한통운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러시아에 진출한 포스코대우, 현대엔지니어링, 롯데호텔, 신동에너지, 한국통산 등 5개 기업이 부회장을 구성</li> <li>• 2018년 4월 1차 전체 및 분과 회의(기간제조, 첨단제조, 유통·물류·소비재, 에너지·인프라·금융) 개최</li> </ul>

자료: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 발체 정리(검색일: 2018. 10. 20); 「제1차 한·러시아 투자 촉진 실무그룹회의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1); 「한·러 기업협의회 출범... CJ대한통운 등 86개사 가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1); 「제1차 한·러 혁신 워킹그룹 회의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2).

그동안 한국의 극동진출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 산하 실무협의체인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통해 이루어졌다(표 5-3 참고). 물론 [표 5-1]과 같이, 공동위에서도 극동개발이 양국간 핵심 현안으로 비중 있게 논의되었다. 분과위는 2012년 7월 8차 회의까지는 국장급으로 추진되었으나, 2015년 9월 9차 회의부터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 이는 당시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과 극동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sup>147)</sup>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2017년 11차 분과위에서는 극동에서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경제협력 사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극동개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중심으로 한·러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기본 방향을 확인했다. 2018년 5월 12차 회의에서는 9개 다리 분야 협력 증진과 한국기업의 극동진출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푸틴 4기 들어 한·러 혁신 협력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됨에 따라 2018년 9월 1차 한·러 혁신 워킹그룹 회의가 개최되었다(표 5-3 참고). 한·러는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과학기술혁신 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국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혁신 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차 혁신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한·러 혁신 플랫폼 운영방안과 혁신창업·벤처기업 지원 협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푸틴 3기 초기인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공동투·융자 플랫폼을 마련했다(표 5-4 참고). 이는 극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러 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금융협력을 증진하고자 한 것

---

147) 「김홍균 차관보, 동방경제포럼 계기 제9차 한·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 주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2).

표 5-4. 한·러 간 주요 투자 플랫폼

분류	주요 내용
한·러 투·융자 플랫폼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11월 정상회담(푸틴 대통령 방한) 계기 러시아(극동 시베리아 지역 중심)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방식의 금융협력 증진에 대한 양국 정부간 인식 공유,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3개 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은행(VEB) 간 금융협력 MOU 10억 달러</li> <li>- 한국수출입은행·스베르뱅크 간 전대금융 MOU 15억 달러</li> <li>- 한국투자공사(KIC)·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간 공동투자 MOU 5억 달러</li> </ul> </li> <li>* 2015년 12월 한·러 투융자플랫폼 실무회의(모스크바) / 2016년 3월 한·러 투자촉진 실무그룹 회의(서울)</li> <li>* 2016년 12월 (러)VEB와 MOU 갱신 체결</li> </ul>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9월 정상회담 및 16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계기 한국수출입은행과 러 대외경제은행(VEB) 간 20억 달러 규모 금융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동 내 한·러 협력사업(에너지, 석유화학·정유, 자원, 인프라, 조선, 환경,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관광·MICE, 농수산, 도시개발 등) 발굴과 참여자 모집, 금융 구조화를 위한 공동노력 및 한국기업이 참여할 경우 총 20억 달러 한도 내에서 금융 지원</li> <li>- 기존 VEB와의 투융자 플랫폼의 제약을 보완,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금융협력체계 구축</li> </ul> </li> </ul>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7. 4. 7, 서울); 「한·러시아 극동개발기금 간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1).

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한·러 양국이 사업 발굴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 미흡,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가 없었다.<sup>148)</sup> 2015년 12월 한·러 투융자 플랫폼 실무회의에 이어 2016년 3월 제1차 한·러 투자 촉진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실무그룹회의에서는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과 양국의 관심사업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sup>149)</sup> 당시 한국은 극동 자루비노항 개발

148)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7. 4. 7, 서울).

149) 양측은 ① 한국기업(삼성전자/현대중공업)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참여 승인 ② 현대중공업 연해주 고압차단기 공장과의 장기공급계약 이행, ③ 외국인산 제품에 대한 러 정부 조달 제한 완화 ④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⑤ 자동차부품 현지화를 하향 조정, ⑥ 의료기기 인준절차 간소화 등 한국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논의를 했다. 참고로 러시아의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메드베데프 총리가 주재하는 고위급 채널로서 포드, 코카콜라, 지멘스, 미쓰비시 등 미국·유럽·일본의 대기업과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회원으로 있다. 「제1차 한·러시아 투자 촉진 실무그룹회의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1); 「한·러 투자 촉진 실무그룹 내년부터 가동… 2월 첫 회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2).

표 5-5. 극동의 대한민국 지역별 교역 현황(2017년)

	수출		수입		합계	한국·극동 간 총교역 대비 비중(%)
	금액 (백만 달러)	주요 품목	금액 (백만 달러)	주요 품목		
캄차트카 변강	312.5 (44.6)	냉동어육, 갑각류, 생선 필렛 및 어육	29.0 (26.6)	종이박스·판지 등, 포장지, 운반·패키징 제품	341.5 (42.2)	4.8
프리모리에 변강	746.6 (24.3)	냉동어육, 석유 및 석유제품, 갑각류	386.8 (10.3)	불도저, 굴삭기 등 중장비, 에틸렌폴리머, 자동차부품	1,133.4 (16.6)	20
하바롭스크 변강	281.7 (13.2)	냉동어육, 석탄, 갑각류	68.3 (13.0)	석유 및 석유제품	350.0 (13.1)	5
아무르 주	4.5 (1.5)	폐철금속, 옥수수, 밀·올리브	2.7 (1.3)	전기배터리, 철금 파이프 피팅, TV 수신기 및 모니터	7.2 (1.4)	0.1
마가단 주	69.2 (17.1)	갑각류, 냉동 어육, 조개류	8.4 (12.1)	시안화물, 플라스틱재	77.6 (16.4)	1.1
사할린 주	4,603.5 (43.5)	원유 및 원유제품, 석유가스	468.6 (33.7)	액체폼프, 발전장치, 원심분리기	5,072.1 (42.4)	71.4

주: 1) 극동 9개 연방관구 가운데 통계 확보가 되지 않은 일부 지역은 제외함.

2) ( )는 해당 지역 수출입 및 총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DB 자료(검색일: 2018. 9. 20).

사업과 수산클러스터 사업, 한·러 극동 연해주(프리모리에 변강) 농업개발 공동연구 등을 관심사업으로 제시했다.

2017년 9월 정상회담과 제16차 공동위를 계기로 한·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대외경제은행(VEB) 간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신설했다. 이는 기존 VEB와의 투융자 플랫폼의 제약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금융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sup>150)</sup>

한편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및 제16차 공동위 합의에 따라 11월 블라디보스토크 KOTRA 사무소 내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가 개소했

150) 「한·러시아 극동개발기금 간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1).

다. 이어 2018년 1월 극동 투자유치·수출지원청의 한국 대표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9년에 서울 대표사무소가 개소할 예정이다. 2018년 11월 초에는 경북 포항에서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는 한·러 극동 지방자치단체 간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교역·투자 관련 정보 공유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sup>151)</sup>

### 3) 한국의 극동 협력 현황

2017년 기준 한국과 극동의 교역규모는 71억 달러로, 한국은 중국에 이어 극동의 제2위 교역국이다(글상자 4-1 참고). [표 5-5]에서 보듯이, 극동 9개 연방주체 가운데 한국과 교역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사할린 주, 프리모리예 변경이다. 특히 앞서 일본과 극동의 교역에서 나타난 대로 사할린 주가 한국·극동 간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4%(일본의 경우 76.2%)로 매우 높다. 이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극동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이 대부분 연료·에너지(전체 수입의 74.4% 차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할린산 석유·가스 수입은 한국의 대극동 수입의 75%에 달한다. 한국의 대극동 주요 수출품은 기계, 전자기기, 플라스틱 등이다.

극동에서 한·러 간 투자협력은 양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매우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는 약 8,2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한국의 대세계 직접투자의 0.2%에 불과하다. 앞 장에서 언급한 대로 2017년 기준 극동에 유입된 직접투자규모가 105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극동 투자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sup>152)</sup>

151) 「한·러 지방협력포럼 창설 합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3).

152) 2013년 기준 한국의 직접투자액은 2,501만 달러로 극동지역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1%에 그친 바 있다. 앞의 책, 제성훈 외(2014), p. 151. 참고로 “한국의 대러 투자의 70% 이상이 서부지역에 집중되었다. 2000년대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오리온, 롯데 등이 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한 서부(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투자 진출했다. 즉 그동안 극동은 한국기업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지로 부상하지 못했다.” 강부균(2018), pp. 65~67.

표 5-6. 한국의 선도개발구역 진출 현황

	지역	입주구역 명칭(지역)	입주기업 (법인명)	투자분야	총사업비 (억 루블)	투자자 (투자액)
1	프리모리예 변강	볼쇼이 카멘	Hotel Pride LLC	호텔 건설	5.9	-
2		나테진스카야	오양 LLC	수산(명란) 가공	1.1	R&Food Company
3	캄차카 변강	캄차카	Gorod 415 LLC	수산 가공	6.4	KTI(4.5)

자료: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2018), p. 7.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푸틴 3기 초반에 극동을 중심으로 한·러 간 투자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 투·융자 플랫폼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냉동창고사업, 자루비노항 개발사업, 나훛카 비료플랜트사업, 러시아 최대 선사인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오일탱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사업여건 미성숙, 사업경험 및 투자여력 부족 등의 요인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53)</sup>

또한 극동 제조업 진출로 기대를 모았던 현대중공업의 고압차단기 공장이 대표적인 투자 실패사례로 기록되면서 한국기업의 극동진출에 대한 관심이 크게 감소했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압차단기 공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나, 러시아의 경제침체 여파로 러시아 전력청(FSK)으로부터 합의한 발주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sup>154)</sup> 이에 2017년 7월 공장 법인을 러시아 업체에 매각하고 철수한 바 있다.

이런 배경 아래 푸틴 3기에서 한국의 극동진출은 기대와 달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표 5-6] 및 [표 5-7]과 같이, 선도개발구역

153)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7. 4. 7, 서울).

154)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전력청(FSK)과 2010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1년 러 전력청과의 장기 공급계약 체결로 연 240대를 납품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 1월 러시아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러시아 전력청(FSK)의 발주물량이 3년 이상 없어 결국 공장 매각 후 철수했다. 이 경우 계약상에 '경제상황에 따라 주문을 이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주문을 무기한 이월한 것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3); 「현대중, 러시아 고압차단기 공장 매각」,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0. 24).

표 5-7. 한국의 자유항 진출 현황

(단위: 억 루블)

	지역	입주기업 (법인명)	투자분야	총사업비	투자자 (투자액)
1	프리모리에 변강 블라디보스토크	Urban Transport System LLC	교통카드	1,848	기드온시스텍 (792)
2		Breese PUMP LLC	선박용 펌프 생산	-	-
3	프리모리에 변강 아르좁	Vostok Polikor LLC	폴리우레탄, 생활화학	16.8	YKBH
4		Roskor LLC	건축자재	25.8	업카이트社 (25.8)
5		Cristal-Golf Club LLC	골프장	1,200	-

자료: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2018), p. 58.

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점진적인 진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산업, 호텔 건설, 교통(서비스) 분야 등은 2장에서 극동의 성장산업으로 제시된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이 9개 다리 전략을 제시한 후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2. 한국의 극동 신경제협력 방향

상술한 바와 같이, 푸틴 4기 출범을 전후해 한국은 극동에서 러시아와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는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한반도·동북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본 절은 한국의 극동진출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두 가지 협력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9개 다리 플러스알파(+α) 협력과 남·북·러 3각협력

이다. 먼저 9개 다리 전략은 이미 한·러 간 합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러 3각협력은 극동에서 한·러 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특히 남·북·러 3각협력은 가스, 철도, 전력, 산업단지, 농업 등 9개 다리 협력의 가시성과 효용성 확보와도 긴밀하게 연관된다.

## 가. 9개 다리 플러스알파 협력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9개 다리 전략은 이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9개 협력 분야로 제시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산업단지는 2장에서 살펴본 대로 극동의 경제적 잠재력과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는 한편, 양국간 협력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분야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자는 2장에서 극동의 협력 유망산업으로 농업, 수산업, 채굴업, 건설업, 호텔·요식업, 교통·통신업, 교육서비스, 보건·사회 서비스를 제시했다. 특히 극동의 열악한 사회·도시 인프라를 고려한 기술·서비스 기반의 새로운 협력 아이টে를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한·러가 9개 다리 협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환경, 보건·의료, 교육을 플러스알파(+α) 협력 분야로 선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수요와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은 [표 5-8]과 같이, '9개 다리 플러스알파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한국은 극동진출에서 9개 다리 전략에 기초한 협력의 공고화·미래화·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9개 다리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협력의 다변화 및 가치사슬 확장을 위해 추가적인 협

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이 극동 진출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9개 다리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금융 플랫폼을 개선해야 한다. 2017년 한·러는 기존 투자자 플랫폼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구축한 바 있다. 극동진출을 모색하는 한국기업이 주로 투자여력의 부족, 투자리스크 관리 미흡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 플랫폼의 거버넌스 및 효용성 개선뿐 아니라 보다 다각적인 금융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9개 다리 플러스알파 협력’의 분야별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9개 협력 분야 가운데 가스, 철도, 전력 분야는 남·북·러 3각협력과 연계되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으나, 북핵문제,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은 9개 다리 전략을 통해 가스, 철도, 전력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적

표 5-8. 한국의 대극동 협력 방향과 ‘9개 다리 플러스알파’ 전략

협력 방향	목표	9개 다리 + $\alpha$ 분야
공고화	경제협력 기반 강화	9개 다리
		<b>가스, 철도, 전력</b> * 장기적 사업 / 단기적으로 한·러 양자협력 활성화 및 기반 조성
		<b>조선, 항만, 북극항로, 산업단지</b> * 중단기 사업
		<b>농업, 수산</b> *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협력 방식 모색
		<b>9개 다리 지원: 금융</b> * 사업의 가시화·구체화를 위한 금융 플랫폼 연계
미래화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b>과학기술, ICT</b> * 전 분야 적용
고도화	양국 국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수준 고도화	<b>환경(도시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관광</b>

주: 한·러는 9개 다리 분야 외 추가적인 협력 대상으로 보건·의료, 교육, 환경 분야 선정.  
 자료: 「제1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10) 참고 저자 작성.

인 차원에서 협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하여 한·러 협력을 공고히 하고, 3각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관계기관간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8년 8월 현대글로벌비스가 블라디보스토크~상트페테르부르크 구간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블록트레인(Block Train, 급행 화물열차)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런 형태의 물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계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진전시켜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철도 물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sup>155)</sup>

조선, 항만, 북극항로, 산업단지는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사례 창출을 목표로 협력의 경험과 신뢰를 축적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2014년 대우조선해양은 야말 프로젝트 일환으로 LNG 쇄빙선 15척(총 48억 달러·약 5조 원)을 수주했으며, 2017년 세계 최초의 이 LNG 쇄빙선 명명식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했다.<sup>156)</sup> 또 한·러는 자루비노항 개발사업,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사업 등 조선·항만 분야 협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조선소, 항만 분야 협력과 북극항로 개발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러 간 물류 및 산업 협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에도 오랜 기간 관심을 가져왔다. 이는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과 남·북·러 3각협력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업, 수산업은 한·러 간 오랜 협력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이낙연 총리에게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는 단순 자원 개발, 교역 관점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sup>157)</sup> 곡물터미널 개발,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등 한·러 간

155) 「현대글로벌비스, 국내 첫 TSR 블록트레인 운영」(2018. 8.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5).

156) 「대우조선해양 러시아서 '세계 최초 쇄빙 LNG선' 명명식... 푸틴도 참석」(2017. 6.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5).

157) 「제4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 기초연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2).

표 5-9. '9개 다리 플러스알파' 협력의 추진 현황

분야	목표	내용
가스	러시아와 LNG·PNG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NG) 가스공사·노바텍 간 북극 LNG-2 협력 MOU 체결(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 양국간 가스협력범위를 극지방으로 확장</li> <li>• (PNG) PNG 공동연구 반영을 통해 정상 차원에서 남·북·러 PNG 사업 추진의지를 대외에 천명(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li> </ul>
철도	한·러 철도 관련 기관간 협력 확대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2018년 6월)</li> <li>• 한국 철도공사·러시아 철도공사 간 철도·물류분야 프로젝트 공동 이행을 위한 MOU 체결(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 시)</li> <li>• 한국 철도연구원·러시아 철도연구원 간 공동연구 및 양국 철도기술 전반의 협력활동 확대 합의(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li> </ul>
항만	극동 항만 진출을 위한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와 러 극동개발부 간 상호 협력에 관한 MOU(2017년 11월)</li> <li>• 극동지역 슬라비안카항 개발사업 추진</li> <li>* 러 BERKUT·한국기업(현대ENG, 유니코, 장금상선, Sintez)간 MOU 체결(2017년 10월) 및 슬라비안카항 F/S 지원(2018년 9월~2019년 9월/헤인아엔씨)</li> </ul>
전력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를 위한 협력채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한·일 간, 한·중 간 협력 MOU 체결 등 추진</li> <li>• (남·북·러) 관련기관(한국 측 한정, 러측 로세티) 간 협력 및 공동 연구 양해각서(MOU) 체결(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li> </ul>
북극 항로	북극항로 상업운항 경험 축적을 통해 새로운 물류루트를 개척·선점하여 국내 해운·물류 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항실적) 2013년 현대 글로벌비스의 시범 운항(나프타 운송)을 시작으로 차례 북극항로를 이용한 운항(1회성 Spot 운송) 실시</li> <li>• 대우조선해양 건조 세계 최초 쇄빙 LNG선 러·평택항 시범 운항</li> <li>• 한·러 북극협의회 개최(2017년 11월)</li> <li>• 한·러 국제 공동연구센터 설립·운영(2018년 5월, 블라디보스토크)</li> <li>• '북극해 선박운송 및 수송인프라 수요 분석' 관련 다개국 공동연구(2018년 7월~)</li> </ul>
조선	기술협력 강화 및 협력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중(2017년 5월, 유조선 건조를 위한 J/V 설립) 건조, 삼성중(2018년 6월, J/V 설립 계약), 디섹은 즈베즈다 조선소 건설·운영 컨설팅 진행 중</li> <li>• 해양플랜트 공동 설계·건조 추진, 한·러 해양기자재센터 설치 합의</li> </ul>
산업 단지	연해주 산단 현지 실사 등 타당성 조사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연해주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2018년 1월)</li> <li>• 나, 연해주 한국 산업단지 사업설명회 개최(2018년 7월)</li> <li>• 나, 극동·러 프로젝트 파트너십에서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 발표(2018년 9월)</li> </ul>
농업	동북아 식량공급기반 확보와 남·북·러 경제협력의 마중물로서 극동지역 농업개발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간 교류를 통해 합작 등 투자기회를 탐색하고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한·러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2018년 4월)</li> <li>• 농촌진흥청과 러시아 극동농업연구소 간 극동지역 품종 적응성 검증 공동연구(벼, 감자, 옥수수) 진행 중(2017~18년)</li> </ul>
수산업	'수산물류기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수산투자 협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수산 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지모프곶 수산물류기공복합단지* 사업을 러측이 사업자 선정 절차를 미루면서 러 기업에 사업권 부여 가능성을 표명(2018년 6월 경제 과학기술공동위)한 이후 사업자 선정 지연</li> <li>* 한국기업들은 러측 제안 대체부지를 검토했으나, 투자의향 없음.</li> <li>• 극동지역에서의 실효성 있는 중장기 수산자원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한·러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li> </ul>

표 5-9. 계속

분야	목표	내용
환경	폐기물 관리, 대기 질 개선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마스터 플랜 수립 단계에서 PPP 방식의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종량제) 러시아에 한국의 선진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한국형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2019년)</li> <li>• (폐기물 관리) 폐기물 매립 사업장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러 정부와 협력하여 PPP 방식의 사업 추진</li> <li>* 한·러 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2017년 9~12월, 하바롭스크시)</li> <li>** 하바롭스크시 및 콤소몰스크나야무레시 폐기물 마스터플랜 수립 (2017년 11월)</li> </ul>
보건·의료	한국형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산하고 원격의료 등 러시아 디지털 의료, 의료기기 시장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병원급 특성화 센터* 및 건강검진센터 설립** 추진</li> <li>* 분당 서울대 병원이 모스크바 스크코보 국제 의료특구 내 추진 (2021년 개원 목표/2017년 9월 MOU 체결)</li> <li>** 세브란스 병원이 모스크바 롯데호텔 내 설립 추진(2018년 4월 러 MEDSI 그룹과 MOU 체결)</li> <li>• ICT 기반 의료기술을 활용한 양국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등 미래의료분야 협력 강화</li> <li>* KT·러시아 철도청 간 모바일진단기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2018년 6~12월)</li> </ul>
교육	한·러 간 학위 상호 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북방지역 교육협력 사례 구축·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러 양국 학위 상호 인정 공동연구진 구성(2018년 1~3월) 및 1차 협의(2018년 4월 19일/모스크바)</li> <li>* 우리나라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위를 인정하고, 러시아는 국가가 학위를 인정하는 등 양국 고등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점 도출 연구</li> </ul>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2); KIEP 비공개 인터넷 자료(2018. 10. 31, 이메일 참고 재구성).

시너지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최근 한·러는 환경, 보건·의료, 교육을 추가적인 협력 분야로 정했다. 한국은 극동 E-Health 마스터플랜 수립, 의료인력 교류, 병원 진출 등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등 도시인프라 개선 분야 협력도 주요 관심사이다.

[표 5-9]는 상술한 9개 다리 플러스알파 협력의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2018년 6월 정상회담에서 한·러는 '9개 다리 행동계획' 마련에 합의하고 현재 이를 위한 협의과정 중에 있다.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 확보를 위해 환경, 보건·의료, 교육 분야 외에도 추가적인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 ICT 등 혁신협력과 관광 분야를 주요 협력 의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러는 혁신 플랫폼 구축 등 기술협력을 기반으로 양국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 나. 남·북·러 3각협력

남·북·러 3각협력은 한국과 러시아 간에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주요한 경제협력 이슈들 가운데 하나이다. 가스관, 철도망, 전력망 등 3대 인프라 분야에 대한 메가 협력 프로젝트는 대내외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특히 이 거대 프로젝트는 지전략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한반도와 러시아·유라시아 간의 에너지 및 교통물류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의 큰 기대와 많은 관심과는 달리 현재까지 남·북·러 경제협력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이는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이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성격상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및 핵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안보변수가 남북 관계를 악화시킴과 동시에, 남·북·러 3각협력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2016년 3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을 위한 시범사업이자, 남·북·러 경제협력의 상징적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러 3각협력 프로젝트는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2018년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이었다.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기점으로 남북간에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그로 인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평창올림픽 종료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진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자들(한국, 미국, 중국, 북한 등) 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됨으로써 역내 주요 현안 이슈들에 대한 논의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북한 체제보장과 대북경제제재 완화의 대전제인 북한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남북과 북·미 간에 고위급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결과적으로 2018년 한반도에서는 2017년에 촉발된 전쟁 위기로 대신에 남북간 대화를 통한 화해와 긴장 완화,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정세 변화 속에서 최근 남·북·러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남·북·러 협력의 당사국인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변화와 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경제협력 방향과 과제를 이해함과 동시에, 양자 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남·북·러 3각협력에 대한 러시아와 한국의 시각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중점과제들 중의 하나인 남·북·러 3각협력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남·북·러 3각협력사업은 본질상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따른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여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방향에 기초한 북·러 및 한·러 관계의 진전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1) 러·북 관계 변화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방향

2018년은 러시아와 북한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소련 시기 사회주의 동맹국가로서 긴밀했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한·소 수교 이후에 상당히 소원해졌다. 그러나 2000년 푸틴의 집권과 함께 러·북관계는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 확대와 신뢰 회복

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북한 정상들의 순방외교(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 2001년 7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 2002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등)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우호적 환경 속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새로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난과 대러시아 채무 미상환문제가 경제협력 증진에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sup>158)</sup> 게다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여 한반도에 첨예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2012년 9월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 탕감 합의, 2013년 9월 나진~하산 철도 연결, 2014년 7월 나진항의 화물터미널 개통, 2015년 러시아중앙은행과 북한중앙은행 및 대외무역은행 간 루블화 결제시스템 도입에 관한 합의, 2015년 12월 러시아와 북한 간 에너지협력협정 체결 등 양국은 상호 협력관계의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sup>159)</sup> 하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융합형 핵폭탄' 실험과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됨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관계 역시 경색되었다.

이와 같이 특정 시기와 제반여건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여러 차례 부침을 경험해왔다. 그렇지만 최근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된 러시아의 대북 물자 지원, 북한과 러시아 간 화물수송선(만경봉호) 운항 개시,<sup>160)</sup> 러시아의 북한 인터넷망 개설 지원 등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 진전의 대표적 사례들이다.<sup>161)</sup> 또한 최근 북한과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 간의 상호 방문이 다시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58) 강태호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8. 10. 30, 세종).

159) 상동.

160) 「북한·러시아 잇는 화물여객선 만경봉호 첫 취항」, *VOA*(2017. 5. 19), <https://www.voakorea.com/a/3860033.html>(검색일: 2018. 10. 7).

161) 「러 통신업체, 대북 인터넷망 제공 개시」, 『자유아시아방송』(2017. 10. 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w-10022017153306.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w-10022017153306.html)(검색일: 2018. 10. 7).

2017년 1월 러시아 철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망 확대문제를 협의했으며, 북한 철도 기술자의 러시아 대학 연수 기회 확대에도 합의한 바 있다.<sup>162)</sup> 2018년 3월 21일 평양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시 알렉산드르 갈루쉬카(Alexander Galushka)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교통, 에너지, 농업, 수산업, 교육,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sup>163)</sup> 또한 로두철 북한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북·러 간 자동차 도로 건설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sup>164)</sup> 이에 대해 갈루쉬카 장관은 두만강을 잇는 부교 건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러시아와 북한 협력의 긍정적 사례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거론하면서 남·북·러 3각경협 재개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했다.<sup>165)</sup>

또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018년 4월 9~12일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외무장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Nikolai Patrushev)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의 공식 만남을 통해 양자관계 및 국제관계 주요 현안들(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와 안정, 남북 정상회담의 발전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sup>166)</sup> 양자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북한 측에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월 초에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 외교 현안과 함께 수교(1948년 10월 12일) 70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sup>167)</sup>

162) 「러시아 “북한은 내 친구”… 평양서 北주민 노동이민 협의」, 『뉴스핌』 (2017. 3. 27),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327000140>(검색일: 2018. 10. 7).

163) 「북·러 밀착 가속… 평양에서 양국 ‘경제협력 조인식’ 가져」, 『서울신문』 (2018. 3. 2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1500152>(검색일: 2018.10. 7).

164) 「북·러, 경제협력위 의정서 조인… 양국 경제협력방안 논의(종합)」, 『연합뉴스』 (2018. 3. 22), <http://www.yonhapnews.co.kr/nk/2018/03/21/4807080000AKR20180321175651014.HTML>(검색일: 2018. 10. 8).

165) 상동.

166) 「북 리용호 러시아 도착… 안보회의 서기·외무장관 잇단 회담」, 『한겨레』 (2018. 4. 10),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39890.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39890.html)(검색일: 2018. 10. 8).

러시아 측은 2018년 5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009년 이후 9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했으며,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 관계에서 북·러 양국의 공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sup>167)</sup> 또한 라브로프 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와 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한반도 안보 논의의 시작이 대북제재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sup>169)</sup> 라브로프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희망했으며, 20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 김 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2018년 10월 12일 러·북 우호협력 관계 70주년을 맞이해서는 발렌티나 마트비엔코(Valentina Matviyenko) 상원의장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이런 흐름은 한반도 정세 변화를 기점으로 러시아와 북한 관계의 결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켰다. 남북, 북·중,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 것과 비교하면 북·러 관계는 다소 완만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019년 들어서 북·러 정상회담이 가장 우선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18년 대선에서 승리한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2018~24년)에도 원칙적으로 기존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러시아 지도부는 이전부터 주장해온 기본 원칙(북핵문제의 외교적·평화적·단계적 해법 추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창설, 중국과의

167) 「북한 외무성 국장, 모스크바 방문… 양국 협력 현안 논의 예정」, *KBS NEWS* (2018. 2. 5), <http://mn.kbs.co.kr/news/view.do?ncd=3601928>(검색일: 2018. 10. 8).

168) 「김정은, 방북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종합)」, 『연합뉴스』(2018. 5. 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1/0200000000AKR20180531142451080.HTML>(검색일: 2018. 10. 8).

169)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대북제재 해제없이 핵문제 해결 못해」, *NEWSIS* (2018. 5. 3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31\\_0000323778](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31_0000323778)(검색일: 2018. 10. 8).

전략적 공조 아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추구해나갈 것이다.<sup>170)</sup> 둘째,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러·북 간 양자 경제협력의 증진을 바탕으로 남·북·러 3각협정의 복원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를 최우선적인 협력사업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북한에 가장 많은 금액(약 3억 달러)을 투자한 대표적 경제협력사업이며, UN의 대북제재 조치에서도 예외로 간주된 사안이기에 더욱 그렇다. 셋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기(Ukrainian Crisis)와 시리아 사태 격화, 미국 대선 개입과 해킹 스캔들 등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러·미 관계 악화 등 외교적 곤경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도래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협상과정에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하여 견해차이들이 종종 표출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추진 결과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을 감안하여 러시아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에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운신의 폭과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170) 고상두(2018), 「러시아의 외교정책과 한국의 과제」, 2018년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방향, 국회 입법조사처, p. 119.

## 2) 남·북·러 3각협력에 대한 러시아와 한국의 시각

상술했듯이 남북과 북·미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핵화 논의의 진전은 한반도에서 안보문제 해결을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과 정치적 안정, 경제적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 확대는 물론이고, 남·북·러 3각협력사업 추진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중대한 현안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 단계별로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 러시아는 서방의 선진 기술과 설비 도입에 대한 금지뿐 아니라 에너지와 금융 부문에서 경제적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미국 대신 개입 의혹 등이 발발하여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그런 이유로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의 경우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프로젝트 진행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렇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매개로 한 남·북·러 3각협력 프로젝트의 현실화는 전략적 및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실현해줄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종단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전력망 연결(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TSR-TKR 철도 연결 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가동 등이 한국과 러시아 양측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 ‘나인 브리지’(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등 9개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사업 추진)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sup>171)</sup> 그런데 이 정책은 한·러 경제협력, 남·북·러 3각협력사업과 밀접

171) 「[전문] 文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극동 개발은 또다른 북핵 해결법”」, 『중앙일보』 (2017. 9. 7), <https://news.joins.com/article/21915527>(검색일: 2018. 11. 1).

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여부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2018년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남·북·러 3각협력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협력사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sup>172)</sup>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남·북·러 3각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3자가 함께 착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sup>173)</sup> 그 뒤 러시아를 공식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22일 한·러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러 간 3각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동연구와 사업 타당성 점검에 착수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sup>174)</sup>

푸틴 정부가 집권 3기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은 극동지역의 투자환경 개선과 사회경제적 발전 등에 핵심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 지도부도 극동지역 개발의 대외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프로세스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서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남·북·러 3각협력의 추동력을 견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시각에서

172) 「한·러 정상 서로 덕담... “러시아 덕에”, “남·북·러 삼각 협력 하자”, 『서울신문』(2018. 4. 2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29500081&wlog\\_tag3=daum](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29500081&wlog_tag3=daum) (검색일: 2018. 11. 1).

173) 상동.

174) 「[전문] 文, 한·러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한·러 FTA·남·북·러 3각협력 강조, 『이데일리』(2018. 6. 22),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21046619244344&mediaCodeNo=257&OutLnkChk=Y>(검색일: 2018. 11. 1).

남·북·러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러 양자협력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의 입지 구축과 영향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바실리 미헤예프(Vasily Miheev) 박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남·북·러 3각협력을 한·러 양자협력 체제를 중심으로 북한을 참여시키는 형태로 여기고 있다.<sup>175)</sup> 미헤예프는 또한 남·북·러 협력이 자본집약적인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중소형 프로젝트(특히 나진항 개발, 산업시설 현대화, 정보기술 협력, 접경지역 협력, 건설 및 농업 분야 협력 등)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고민하면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sup>176)</sup> 이를 통해 볼 때, 남·북·러 3각협력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여건, 여전히 상존하는 제반 리스크를 감안해 한·러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당사국간 제도를 조율해 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러 3각협력사업의 실현은 중요한 국정과제들 가운데 하나다. 특히 신북방정책의 중점추진과제로서 남·북·러 3각협력은 한반도 접경지역의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 및 초국경협력을 토대로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작업이며, 역내 협력의 '진공' 상태인 북한을 포함하여 평화와 번영의 신북방시대를 선도하는 실행 프로그램이다.<sup>177)</sup> 한국에 남·북·러 3각협력 프로젝트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함의가 있다.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협력사업은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정착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둘째, 안보적으로 3각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다자안보체제 확립에도 유용한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다. 셋째, 경제적으로 남·북·러 협력은 한반도 전체와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적 연계성과 통합성 강화 작업을 통해 한반도와 북방

175) 이재영 편(2018),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러 3각협력』, p. 9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6) 위의 책, p. 108.

177) 성원용 인천대학교 비공개 발표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8. 8. 2, 서울).

유라시아지역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한 남·북·러 3각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남·북·러 3각협력은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제반작업을 준비할 시점이다.

### 3) 남·북·러 3각협력방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정부의 국가전략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한국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상대적인 약점에 해당하는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작업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역사적(발해의 땅) 및 사회문화적(한인 이주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지, 고려인의 거주지 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공간이다. 또한 이 지역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 첫째,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유라시아대륙과 한반도를 이어주는 남·북·러 경제협력의 중심축이나 다름없다. 그런 이유로 극동지역은 한국과 북방유라시아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미래 경제성장동력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의 동부 축으로 연결되는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북극항로 개발에서도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sup>178)</sup> 특히 나진·하산 지역은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유라시아 대륙철도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공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러 3각협력에 대한 전략 구상은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간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대륙과의 통합성(integration)

---

178) 이재영 편(2018), p. 12.

과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데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sup>179)</sup> 특히 3자간 협력 프로젝트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천연자원과 에너지), 남한(자본과 기술), 북한(노동력과 지리적 입지)이 보유한 강점과 비교우위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sup>180)</sup> 이러한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 시기부터 논의되었던 3대 장기 메가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제반 검토작업과 더불어, 사업의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와 동시에 남·북·러 3각협력사업에 대한 인식과 개념 정의, 추진규모와 공간적 범위, 공동협력 프로젝트의 발굴 등을 새로운 시각과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러 경제협력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존 남·북·러 협력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작업과 동시에, 대내외적 상황 변화를 반영한 남·북·러 3각협력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북한 비핵화 과정의 진전과 대북경제제재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남·북·러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내외적 제반여건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관련 당사국 및 미국의 남·북·러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입장(러시아와 북한: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 수요, 미국: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남·북·러 경제협력사업 추진 시 제재 예외 가능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 이에 기초한 남·북·러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러 경제협력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1단계에는 3각협력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나진·하산 사업 재추진, 2단계에는 북한 노동자를 활용한 연해주 농업 또는 수산업 프

---

179) 위의 책, p. 57.

180) 이재영(1999), p. 97 재인용.

젝트 진행, 3단계에는 극동지역에 공동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건설, 4단계에는 남·북·러 3대 메가 프로젝트(철도, 전력, 가스관) 진행 등 단계별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러 3각협력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즉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남·북·러 3각협력사업을 단순히 한반도 접경지역이나 북한 영토를 통과하는 사업으로만 국한하려는 기존의 시각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sup>181)</sup> 특히 남·북·러 협력은 참여국가의 경제 및 지역 발전전략 방향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나선 경제특구, 한국의 개성공단, 러시아의 극동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특정 지역과 국가에 대한 3국의 공동 투자와 협력 프로젝트, 제3국이나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남·북·러 3각협력 사업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sup>182)</sup>

셋째, 3각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남·북·러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또는 개발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 및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각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조사 또는 공동연구, 정책 조율을 위한 3자 협력기구 창설, 남북한 및 러시아 3국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CEPA 등) 체결,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의 직·간접적 지원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의 소프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83)</sup> 예를 들면 남·북·러 국책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러 경제협력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러 경제협력 정책방향 수립과 재원조달방안 마련, 사업 추진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3자 경제협력 기구 창설(부총리급 또는 장관급, 블라디보스토크 또는 나진에 협력 사무국

181) 이재영 편, 앞의 책, p. 39.

182) 위의 책, p. 59.

183) 위의 책, pp. 59~60.

설치)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의 전략적 접점을 발굴해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매년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을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협의를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포럼에서 3각협력에 대한 특별 세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방안과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하고, 남·북·러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여 남·북·러 경제협력 정책 추진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넷째,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남·북·러 3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관계 진전 가능성,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우회 여부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남·북·러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기업들의 대북투자 기회는 극동지역 진출에 대한 관심도를 축소시킬 개연성이 클 뿐 아니라, 악화일로에 처해 있는 러·미 관계로 인해 대러제재가 앞으로도 상당시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감안하여 러시아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3각협력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볼 때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경제활동분야는 크게 네 가지이며, 이는 산림 협력(조림, 벌목, 목재 기계가공과 화학처리 분야 등), 수산업 협력(조업 및 수산물 생산, 양식장 및 양어장 개발, 수산물 가공 및 통조림 생산, 보존처리식품 및 수산식품 생산 분야 등), 농업 및 축산업 협력(채소 재배 및 쌀농사, 채소 통조림 생산, 콩 및 쌀 가공식품, 돈육 및 가금육 가공 산업 분야 등), 건설업 협력(인프라 시설, 주거 및 공공 시설 건설, 건축자재 및 구조물 생산 분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184)</sup>

---

184) 위의 책, pp. 89~90.

## 제6장

K

# 결론: 극동 신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제언



이 보고서는 극동지역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신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작업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데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의 전략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둘째, 푸틴 정부 3기 및 4기 극동개발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특징, 주요한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셋째, 동북아 주요국인 중국과 일본의 극동지역 진출전략을 상세하게 비교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상술한 연구 내용과 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한국의 극동지역 진출전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면서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 작업은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 간의 전략적 접점을 모색하려는 학술적 시도다.

앞장에서 논술한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최근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 등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환경을 고려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시점이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은 전략적 함의를 갖는 중대한 현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대외전략으로 제시한 신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증진은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한반도와 북방유라시아지역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 증진,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 남·북·러 3각협력,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북극항로 개척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기존에 추진되었던 양자(한·러) 및 다자(남·북·러)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과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 간에 극동지역

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신뢰구축 및 공동번영을 이룩함과 동시에, 미래 통일한국 건설에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작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관련한 신경제협력방안 마련은 신북방정책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나 마찬가지다.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 신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협력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8개 연방관구 중에서 극동 연방관구의 경제적 위상과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극동 연방관구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극동지역 9개 지방들에 대한 차별화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개별 지방들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극동지방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경제협력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앞 장에서도 지적했듯이, 극동 연방관구 소속 9개 지방별 경쟁력 지표에서 다소간의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수산업(캄차트카 변경, 프리모리에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 마가단 주, 사할린 주), 채굴업(사하 공화국, 아무르 주, 마가단 주, 사할린 주, 추코트카 자치구), 건설업(사하 공화국,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주), 호텔·요식업(캄차트카 변경, 프리모리에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 교통·통신업(프리모리에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 아무르 주) 등에서 산업경쟁력이 높은 지방들을 각각 구분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극동 9개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의 개발 현황과 주요 특징,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경제협력 부문을 선정하고, 이에 기초한 극동지역 진출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방안으로 ‘나인

브리지 플러스알파(9-Bridge+α)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 포럼에서 제시한 9대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삼고, 극동지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적 분야에서 양국간 산업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자는 러시아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경제현대화와 산업다각화, 현지화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들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9개 협력 분야 중에서 우선적으로 농업, 수산업, 조선업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러시아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부문에서 양자간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방향과 대한국 협력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의 생활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관광 등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간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과 노하우(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 경험, 상품화 역량, IT 등 혁신기술 및 디지털 경제 노하우 보유 등)뿐 아니라 비교우위 경쟁력(한반도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가치 등)과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한 극동지역 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러시아와 다양한 형태의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기반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 경제협력 분야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일본정부는 철저한 정경분리원칙 아래 8개 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기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극동지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 즉 미래협력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극동 발전구상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과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제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일종의 실험대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동북아 주요국인 중국과 일본의 극동진출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한국의 차별화된 극동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한국은 2017년 9월에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대외경제은행 간에 체결된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현실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금융협력 기금을 바탕으로 공동투자 사업들(수산업 클러스터, 산지 곡물터미널, 양자 산업 R&D 프로그램, 스타트업 지원 등)을 발굴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는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증진에 필요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내에 혁신 산업단지 조성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거점 구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 관계 발전가능성 등 북한 요인에 대한 유효적 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 변동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대응전략 마련 역시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주요 행위자들인 러시아, 중국, 일본의 전략적 행보와 그에 대한 함의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중국과 미국의 통상전쟁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추가적인 대러시아 제재 여파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북아 주요 국가들간에 새로운 관계설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가일층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도 북방 4개성 협상 등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9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최초로 참석하여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음은 물론이고, 이 행사 기간에 러시아와 중국은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양국의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엔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중·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회담에

서 양국 지도자는 일본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중·일 간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게다가 2019년은 중·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다. 중국과 일본은 이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는 2018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러·일 정상회담에서 북방 4개섬(쿠릴 열도) 협상을 통해 양국간 국교 정상화로 나아간다는 데 합의했다. 이처럼 최근 동북아 국제관계의 주요한 흐름은 미국과 중·러의 대립구도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대러 접근 강화 및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움직임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주요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한국도 동북아 주요국의 이러한 대외 전략 방향을 감안하면서 극동지역 및 러시아 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남·북·러 3각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3각협력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핵심 토대를 구축하는 것 역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정에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접근법에 기반을 두면서 남·북·러 3각협력사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가 한국 측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면서 협력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 바로 나진·하산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재개 여부, 세부적 협력방안에 대한 검토작업과 동시에, 사업 추진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이 3각협력사업의 경우 기존의 철도 노선과 나진항을 통한 복합물류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향후 나진항과 연계하여 패키지(항만 배후 산업단지, 물류 클러스터, 크루즈 관광 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남·북·러 3각협력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확장 역시 가능하다. 이밖에

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의 완화 가능성을 전제로 상정한다면, 개성공단과 나선 경제특구에 한국과 러시아 기업들 간의 합작 진출,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남·북·러 공동참여,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극동 경제특구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의 북한 인력 활용 등을 대표적인 남·북·러 3각협력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sup>185)</sup> 이와 함께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 재개에 따라 상호 대체 및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과 북한 경제특구 간의 보완적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남·북·러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농업, 수산업, 축산업, 식품 생산, 관광업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sup>186)</sup> 끝으로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계성과 연결성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초국경지역에 남·북·러 협력 센터를 설치하거나, 남·북·러 3각협력 방향과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한·러 전략대화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다.

여섯째, 한국은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등)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양자(한·러) 및 다자(남·북·러) 차원의 중점협력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 토대 구축 및 환경 조성작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조기에 실현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극동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극항로 개척과 북극지역 개발협력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양자 협의체 또는 협력 플랫폼 구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사안은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에 산업협력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해줄 것임은 물론이고, 북극지역 개발협력 진행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증장

---

185) 이재영 편, 앞의 책, p. 54.

186) 위의 책, p. 29.

기적 차원에서 '나인브리지(9-Bridge)' 전략과 남·북·러 3각협력에서 제시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준비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 여부에 따른 효과적 대응방안, 즉 경제협력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일곱째, 한국은 러시아와 중앙정부간 협력뿐 아니라, 지방정부간 협력을 증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상호간 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양국 지자체간의 협력사업은 본질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국제정세와 주변국의 대외정책기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외협력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서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단위의 실제적인 협력사업들(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에서 가공 및 기술협력, 농촌 현대화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협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극동지역과 환동해 거점 지방들 간의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2018년 11월 포항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은 지방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토대라고 하겠다. 향후 이 모임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방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양국 지방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함과 동시에, 상호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특히 극동지역과 환동해지방들 간에 양자 기업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 지방 기업들 간의 상호 접촉을 통한 신뢰구축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발굴이 양자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 중소기업들은 현지 시장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지 사업 진행 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 신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대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효율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책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신북방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서 정부 각 유관부처와의 업무협조를 토대로 극동지역 대상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8년 6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제시된 극동지역 관련 제반 경제협력사업들에 대한 단계적인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러시아 측 협력 파트너인 극동개발부와의 상시적인 실무협의채널을 구축하여 극동지역 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극동지역과 연계된 초국경 및 환동해 지역과의 협력사업 발굴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체계적인 사업의 진행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와 러시아, 그리고 북방유라시아를 연결시키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간의 연계협력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명구. 2016. 「러시아의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TASED) 지정과 시사점」. *Weekly KDB Report*. pp. 1~11.
- 강부균. 2018.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산업협력」. 13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 자료집.
- 고상두. 2018. 「러시아의 외교정책과 한국의 과제」. 『2018년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p. 119.
- 고재남. 2015. 「한·러 외교관계 정상화 25주년의 평가와 과제」. 2015 한러정경포럼 세미나자료.
- 김덕주. 2014. 「최근 러·일 관계의 현황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4-40.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김부용, 임민경. 2013.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10년 평가와 전망」.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8월 1일). Vol. 4, No.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찬호. 2013. 「제1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개최에 대하여」. 계간 『해양수산』, 3권 2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2017. 「러·일 경제관계 진전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17-1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정호, 민지영, 김초롱. 2018.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18-2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3~20.
- 박지원. 2018.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8-028. KOTRA.
- 변현섭. 2016. 「러시아 자유항 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와 협력방안: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32권 1호. pp. 1~30.
- 염동호. 2018. 「극동지역에서 일·러 경제협력 사례 연구」. 13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 자료집.
- 윤익중. 2015. 「러시아·중국 간 신 밀월관계의 발전과 한계: 푸틴과 시진핑 체제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Vol. 39, No. 3.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이승신, 이현태, 현상백,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오윤미.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7-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영. 1999.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간 경제협력방안」. 『국제지역연구』, 제3권 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_\_\_\_\_. 2015. 「푸틴의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점과 협력 방향」. 한리정경포럼 발표문. pp. 65~84.
- 이재영 편. 2018.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러 3각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현태. 2018. 「극동지역에서 중·러 경제협력 사례 연구」. 13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 자료집.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 2015.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연구보고서 15-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세르게이 루코닌. 2014.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4-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정원. 2018.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중 경제협력: 극동지역의 성과를 중심으로」. 『러시아 연구』, 제28권 제1호.
-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

#### [영문자료]

- A. V. Moshkov. 2016.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The Social Sciences* 11(5). pp. 6896-6904.
- Alexander Lukin. 2018.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John Wiley & Sons.
- Biren Nanda. 2017. "Japan-Russia Rapprochement: Why Abe-Putin Summits Failed to Deliver DPG Policy Paper." Vol. I Issue 2. Delhi Policy Group.
- Dan Su and Yang Yao. 2016. "Manufacturing as the key Engine of Economic Growth for Middle-Income Economies." *ADB Working Paper Series*.
- Eastern Economic Forum 2017. "The Far East: Creating a New Reality." Roscongress.
- Eastern Economic Forum 2018. Roscongress.
- Henderson, James and Tatiana Mitrova. 2016. "Energy Relations between

- Russia and China: Playing Chess with the Dragon.” OIES PAPER: WPM 67.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 Valdai Discussion Club. 2017. “Toward the Great Ocean-5: From the Return to the East to Greater Eurasia.” September. Valdai Discussion Club Report.
- \_\_\_\_\_. 2018. “Toward the Great Ocean-6: People, History, Ideology, Education, Rediscovering the Identity.” September. Valdai Discussion Club Report.
- Willy Wo-Lap Lam. 2015. *Chinese Politics in the Era of Xi Jinping: Renaissance, Reform, or Retrogression?* 1st Edition, Abingdon: Routledge.
- World Bank. 2015. “World Bank Group Engagement in Resource-Rich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s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Kazakhstan, Mongolia, and Zambia.” Clustered Country Program Evaluation Synthesis Report.

#### [논문자료]

-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2018.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й тинг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климата в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 Октября 2018. pp. 10-18.
- Н. В. Кашина. 2016.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овый инструмент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Финансы Региона 12(2). с. 569-585.
- INFRAONE. 2018.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рынк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InfraONE Research. 2018a.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России: индекс развития.” pp. 1-24.
- О.М. Прокапало, А.Г. Исаев, М.Г. Мазитова, Д.В. Суслов. 2018.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НЪЮНКТУР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В 2017 г.” p. 93.
-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2018.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йтинг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зультаты Рей тинга 2018 года регионов ДФО.” Июль 2018 г. p. 5.

- В. К. Заусаев, Н. А. Кручак, В. П. Бежина. 2017. “Новая модель рос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ЭКО 2, с. 27-35.
- ВЦИОМ. 2016. Социалогический мониторинг миграционной ситуац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pp. 1-15.
- Доклад о комплексном развит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017. Сентябр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온라인 자료]

- 강태호. 2016. 「기획 푸틴의 동방외교와 극동개발의 국제정치」. (7월 29일). [http://2korea.hani.co.kr/?mid=media&act=dispMediaListArticles&tag=%EA%B7%B9%EB%8F%99%EA%B0%9C%EB%B0%9C%EA%B8%B0%EA%B8%88&document\\_srl=428161](http://2korea.hani.co.kr/?mid=media&act=dispMediaListArticles&tag=%EA%B7%B9%EB%8F%99%EA%B0%9C%EB%B0%9C%EA%B8%B0%EA%B8%88&document_srl=428161)(검색일: 2018. 9. 27).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검색일: 2018. 10. 19).
- \_\_\_\_\_. 2016. 「제1차 한·러시아 투자 촉진 실무그룹회의 개최」. 보도자료. (3월 4일).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697&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697&menuNo=4010100)(검색일: 2018. 10. 21).
- \_\_\_\_\_. 2018. 「제1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 (6월 7일).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J3xkZ-XdpoQMfQEPwjsPnWMU.node4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7630&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J3xkZ-XdpoQMfQEPwjsPnWMU.node4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7630&menuNo=4010100)(검색일: 2018. 11. 10).
- 북방경제협력위원회(a). 비전·정책. [http://bukbang.go.kr/bukbang/vision\\_policy/vision\\_policy/](http://bukbang.go.kr/bukbang/vision_policy/vision_policy/)(검색일: 2018. 10. 22).
- \_\_\_\_\_(b). 「[북방경제협력위원회-보도자료(15)]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http://www.bukbang.go.kr/bukbang/issue\\_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5&mode=view&cntId=17&category=&pageIdx=](http://www.bukbang.go.kr/bukbang/issue_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5&mode=view&cntId=17&category=&pageIdx=)(검색일: 2018. 10. 22).
- \_\_\_\_\_(c). 러시아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 [https://www.bukbang.go.kr/bukbang/info\\_data/national-info/?boardId=bbs\\_000000000000016&mode=view&cntId=118&category=%EB%B6%84%EB%A5%98%3A%EA%B5%AD%EA%B0%80%EA%B0%9C%ED%99%A9%3A%EA](https://www.bukbang.go.kr/bukbang/info_data/national-info/?boardId=bbs_000000000000016&mode=view&cntId=118&category=%EB%B6%84%EB%A5%98%3A%EA%B5%AD%EA%B0%80%EA%B0%9C%ED%99%A9%3A%EA)

A%B2%BD%EC%A0%9C%3A%EB%AC%B4%EC%97%AD%3A%ED%88%AC%EC%9E%90%3A%EB%B9%84%EC%A6%88%EB%8B%88%EC%8A%A4%3A%EC%9B%B9%ED%88%B0%3A%EA%B8%B0%ED%83%80 &pageIdx=2(검색일: 2018. 10. 23).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외교활동포털. 「한·러시아 극동개발기금 간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https://president.globalwindow.org/kz.info.MouDetail.do?mou\\_seq=1142](https://president.globalwindow.org/kz.info.MouDetail.do?mou_seq=1142)(검색일: 2018. 10. 21).

외교부. 2015. 「김홍균 차관보, 동방경제포럼 계기 제9차 한·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 주제」. 보도자료. (9월 4일).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56181](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56181)(검색일: 2018. 10. 22).

\_\_\_\_\_. 2017. 「한·러 지방협력포럼 창설 합의」. 보도자료. (9월 11일).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660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8](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660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8)(검색일: 2018. 10. 23).

\_\_\_\_\_. 보도자료. [http://www.mofa.go.kr/www/brd/m\\_4080/list.do](http://www.mofa.go.kr/www/brd/m_4080/list.do)(검색일: 2018. 10. 20).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2013. 「2013년 한·러 정상회담 개최 결과」. 정책자료. (12월 17일). [http://overseas.mofa.go.kr/ru-ko/brd/m\\_7340/view.do?seq=103741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http://overseas.mofa.go.kr/ru-ko/brd/m_7340/view.do?seq=103741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검색일: 2018. 10. 20).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5. 「제14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정책자료. (10월 30일).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9/view.do?seq=119947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9/view.do?seq=119947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검색일: 2018. 10. 19).

청와대. 국정과제.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5>(검색일: 2018. 10. 22).

「강경화, 러 극동개발장관 면담… “극동지역 교류·협력 확대”」. 2018. 『중앙일보』. (11월 9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109145>(검색일: 2018. 11.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제1차 한·러 혁신 워킹그룹 회의 개최」. 보도자료.

- (9월 12일).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293>(검색일: 2018. 10. 22).
- 「김정은, 방북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종합). 2018. 『연합뉴스』. (5월 31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1/0200000000AKR20180531142451080.HTML>(검색일: 2018. 10. 8).
- 「달리 의존 줄이자”… 중·러, 금융협력 강화한다. 2018. 『매일경제』. (11월 22일).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year=2018&no=733143>(검색일: 2018. 11. 23).
- 「대우조선해양 러시아서 ‘세계 최초 쇄빙 LNG선’ 명명식… 푸틴도 참석. 2017. 『조선비즈』. (6월 4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4/2017060400391.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4/2017060400391.html)(검색일: 2018. 11. 5).
-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대북제재 해제없이 핵문제 해결 못해”. 2018. *NEWSIS*. (5월 31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31\\_0000323778](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31_0000323778)(검색일: 2018. 10. 8).
- 「러 통신업체, 대북 인터넷망 제공 개시. 2017. 『자유아시아방송』. (10월 2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w-10022017153306.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w-10022017153306.html)(검색일: 2018. 10. 7).
- 「러시아 “북한은 내 친구”…평양서 北주민 노동이민 협의. 2017. 『뉴스핌』. (3월 27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327000140>(검색일: 2018. 10. 7).
- 「러시아, 신동방정책 추진… 미·중 경쟁 균형자될 수도. 2014. 『통일한국』. (10월 1일). <http://unikorea21.com/?p=5263>(검색일: 2018. 8. 10).
- 「러·일관계, 평화조약을 향해일보 전진. 2013. 『Russia 포커스』. (5월 3일). <https://kr.rbth.com/politics/2013/05/03/41905>(검색일: 2018. 10. 13).
- 「文대통령 “한·러 ‘나인 브릿지 전략’으로 동시다발적 협력 제안”. 2017. 『뉴스시스』. (9월 7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7\\_000008923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7_0000089234)(검색일: 2018. 8. 11).
- 「문재인의 신북방정책, 북핵 위기 넘어설까. 2017. 『세계일보』. (8월 13일).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13001103>(검색일: 2018. 8. 10).
- 「북 리용호 러시아 도착… 안보회의 서기·외무장관 잇단 회담. 2018. 『한겨레』. (4월 10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39890.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39890.html)(검색일: 2018. 10. 8).
- 「북한 외무성 국장, 모스크바 방문… “양국 협력 현안 논의 예정”. 2018. *KBS NEWS*. (2월 5일). <http://mn.kbs.co.kr/news/view.do?ncd=3601928>

- (검색일: 2018. 10. 8).
- 「북한·러시아 잇는 화물여객선 만경봉호 첫 취항」. 2017. *VOA*. (5월 19일). <https://www.voakorea.com/a/3860033.html>(검색일: 2018. 10. 7).
- 「북·러, 경제협력위 의정서 조인… 양국 경제협력방안 논의(종합)」. 2018. 『연합뉴스』. (3월 22일). <http://www.yonhapnews.co.kr/nk/2018/03/21/4807080000AKR20180321175651014.HTML>(검색일: 2018. 10. 8).
- 「북·러 밀착 가속… 평양에서 양국 ‘경제협력 조인식’ 가져」. 『서울신문』. (2018. 3. 2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1500152>(검색일: 2018.10. 7).
- 「[전문] 文, 한·러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한·러 FTA·남·북·러 3각협력 강조」. 2018. 『이데일리』. (6월 22일).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21046619244344&mediaCodeNo=257&OutLnkChk=Y>(검색일: 2018. 11. 1).
- 「[전문] 文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극동 개발은 또다른 북핵 해결법”」. 2017. 『중앙일보』. (9월 7일). <https://news.joins.com/article/21915527>(검색일: 2018. 11. 1).
- 「[전문]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8. 『국민일보』. (6월 22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64261>(검색일: 2018. 10. 19).
- 「제4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 기조연설」.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0713&call\\_from=rsslink](http://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0713&call_from=rsslink) (검색일: 2018. 10. 22).
- 「푸틴 대통령, 극동개발 대표 전격 경질」. 2018. 『연합뉴스』. (8월 27일).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9/01/0606000000AKR20130901060500080.HTML>(검색일: 2018. 8. 23).
- 「한·EAEU FTA 체결 추진경과와 그 전망」. KOTRA 해외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8901>(검색일: 2018. 10. 21).
- 「한·러 기업협의회 출범… CJ대한통운 등 86개사 가입」. 2017. 『연합뉴스』. (12월 7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7036400003>(검색일: 2018. 10. 21).
- 「한·러 정상 서로 덕담… “러시아 덕에”, “남·북·러 삼각 협력 하자”」. 2018. 『서울신문』. (4월 29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29500081&wlog\\_tag3=daum](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29500081&wlog_tag3=daum)(검색일: 2018. 11. 1).
- 「한·러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관련 운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briefing/blueHouseView.do;JSESSIONID\\_KOREA=-OZa1jsXs9HBnnT8Tsq31ilZ\\_Ar1LafBAG2bmrJF34ylWstCllK4!-950821880!386662958?newsId=148842169](http://www.korea.kr/briefing/blueHouseView.do;JSESSIONID_KOREA=-OZa1jsXs9HBnnT8Tsq31ilZ_Ar1LafBAG2bmrJF34ylWstCllK4!-950821880!386662958?newsId=148842169)(검색일: 2018. 10. 21).
- 「한·러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전망」. KOTRA 해외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4045&searchNationCd=101093>(검색일: 2018. 10. 18).
- 「한·러 투자 촉진 실무그룹 내년부터 가동… 2월 첫 회의」. 2015. 정책브리핑. 『매일경제』. (12월 11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72726>(검색일: 2018. 10. 22).
- 「현대글로벌비스, 국내 첫 TSR 블록트레인 운영」. 2018. 『해사신문』. (8월 15일).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484> (검색일: 2018. 11. 5).
- 「현대重, 러시아 고압차단기 공장 매각」. 2017. 『울산제일일보』. (11월 23일).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024>(검색일: 2018. 10. 24).
- 「LG상사, 사하공화국에 비즈니스센터 설립」. 2011. 『중앙일보』. (6월 23일). <https://news.joins.com/article/5682953>(검색일: 2018. 8. 23).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a). “Japan-Russia Relations (Archives).” <https://www.mofa.go.jp/region/europe/russia/archives.html> (검색일: 2018. 10. 16).
- \_\_\_\_\_(b). “Initiative for the Strengthening Japan-Russia cooperation in the Far East Russia and Eastern Siberia.” <https://www.mofa.go.jp/region/europe/russia/initiative0706.html>(검색일: 2018. 10. 17).
- \_\_\_\_\_(c). “Japan-Russia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https://www.mofa.go.jp/region/europe/russia/economy/jric.html>(검색일: 2018. 10. 17).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fmprc.gov.cn/mfa\\_eng/wjb\\_663304/zzjg\\_663340/dozys\\_664276/gjlb\\_664280/3220\\_664352/3222\\_664356/](https://www.fmprc.gov.cn/mfa_eng/wjb_663304/zzjg_663340/dozys_664276/gjlb_664280/3220_664352/3222_664356/)(검색일:2018. 9. 26).
- P. Luzin. 2016. “Putin’s Far-Eastern Plan” Intersection. <http://intersectionproject.eu/article/russia-world/putins-far-eastern-plan>(검색일: 2018. 8. 21).
-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ЙТИНГ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СУБЪЕКТАХ

- РФ. <https://asi.ru/investclimate/rating/>(검색일: 2018. 9. 3).
-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ртал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https://invest.khv.gov.ru/Biznes-predlozhenie/Svobodnyj-port-/2639>(검색일: 2018. 8. 24).
-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 2017. “Отчет за 2017 год.” <https://erdc.ru/about/>(검색일: 2018. 8. 29).
-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Investment Map. <https://investmap.erdc.ru/app>(검색일: 2018. 11. 5).
-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a).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увеличивает товарооборот с Китаем.” [https://minvr.ru/press-center/news/19611/?sphrase\\_id=689725](https://minvr.ru/press-center/news/19611/?sphrase_id=689725)(검색일: 2018. 10. 14).
- \_\_\_\_\_(b). “Агентство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и поддержке экспорта откроет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 КНР.” [https://minvr.ru/press-center/news/18661/?sphrase\\_id=689725](https://minvr.ru/press-center/news/18661/?sphrase_id=689725)(검색일: 2018. 10. 12).
- \_\_\_\_\_(c). “Китай планирует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 импорта из России.” <https://minvr.ru/press-center/news/15735/>(검색일: 2018. 10. 12).
- \_\_\_\_\_(d). “Россия и КНР планируют развивать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s://minvr.ru/press-center/news/19653/?sphrase\\_id=678898](https://minvr.ru/press-center/news/19653/?sphrase_id=678898)(검색일: 2018. 10. 13).
- \_\_\_\_\_(e). “Россия и Китай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взаимных поставках молока и птицы.” [https://minvr.ru/press-center/news/19656/?sphrase\\_id=689725](https://minvr.ru/press-center/news/19656/?sphrase_id=689725)(검색일: 2018. 10. 13).
- \_\_\_\_\_(f). “Си Цзиньпин: Китай всегда остается активным сторонником и участником в развит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s://minvr.ru/press-center/news/18688/?sphrase\\_id=689725](https://minvr.ru/press-center/news/18688/?sphrase_id=689725)(검색일: 2018. 10. 15).
- \_\_\_\_\_(g). “Россия и КНР планируют развивать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s://minvr.ru/press-center/news/19653/?sphrase\\_id=689402](https://minvr.ru/press-center/news/19653/?sphrase_id=689402)(검색일: 2018. 10. 23).
-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a).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ая комиссия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http://economy.gov.ru/minec/activity/sections/investcoop/ruschin> (검색일: 2018. 9. 27).
- \_\_\_\_\_(b). “Алесьей Улюкаев: Наша задача-создать наилучшие условия для российского и японского бизнеса.” <http://economy.gov.ru/minec/>

- about/structure/depasiaafrica/2016031106(검색일: 2018. 10. 17).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2013.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http://www.kremlin.ru/news/19825>(검색일: 2018. 8. 28).
- \_\_\_\_\_. 2014. “Совещание о господдержке инвестпроектowi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www.kremlin.ru/news/46522>(검색일: 2018. 8. 29).
-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a). “Документы, подписанные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визита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Си Цзиньпин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http://kremlin.ru/supplement/5341> (검색일: 2018. 9. 26).
- \_\_\_\_\_(b).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ом.”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8528>(검색일: 2018. 9. 25).
- \_\_\_\_\_(c).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о развитии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http://www.kremlin.ru/supplement/1446>(검색일: 2018. 10. 16).
- \_\_\_\_\_(d).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и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по итогам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18000>(검색일: 2018. 10. 16).
- “2nd China-Russia Innovation Dialogue held in Moscow.” [http://www.chinadaily.com.cn/m/safea/2018-11/02/content\\_37188963.htm](http://www.chinadaily.com.cn/m/safea/2018-11/02/content_37188963.htm) (검색일: 2018. 11. 3).
- “Address by H.E. Mr. Shinzo Abe at the 4th Eastern Economic Forum Plenary Session.” [https://japan.kantei.go.jp/98\\_abe/statement/201809/\\_00003.html](https://japan.kantei.go.jp/98_abe/statement/201809/_00003.html)(검색일: 2018. 10. 23).
- “China to buy more Russian soybeans amid trade war with US.” 2018. *Global Times*. (September 13).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19561.shtml>(검색일: 2018. 10. 12).
- “China, Russia pledge to explore new areas of investment cooperation.” 2018. *Chinadaily.com.cn*. (September 18). <http://europe.chinadaily.com.cn/a/201809/19/WS5ba128c7a31033b4f4656cc7.html> (검색일: 2018. 11. 4).
- “China, Russia to boost regional cooperation.” 2018. *Xinhuanet*. (August

- 21).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08/21/c\\_137407999.htm](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08/21/c_137407999.htm)(검색일: 2018. 9. 27).
- “China’s new president arrives in Moscow for state visit.” 2013. *People’s Daily Online*. (March 22). <http://en.people.cn/90883/8179573.html> (검색일: 2018. 9. 24).
- “Chronology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2017. *China.org.cn*. (January 5). [http://www.china.org.cn/china/2017-01/05/content\\_40044651.htm](http://www.china.org.cn/china/2017-01/05/content_40044651.htm)(검색일: 2018. 9. 26).
- “First China-Russia Innovation Dialogue Held.” [http://www.most.gov.cn/eng/pressroom/201707/t20170720\\_134147.htm](http://www.most.gov.cn/eng/pressroom/201707/t20170720_134147.htm)(검색일: 2018. 9. 27).
- InfraONE Research. 2018b.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рынк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pp. 20-45. <https://infraone.ru/#analitika>(검색일: 2018. 10. 26).
- “Invest in Russia.” <http://investinrussia.com/about>(검색일: 2018. 10. 10).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xternal\\_economy/regional\\_affairs/russia\\_cis/russia.html](http://www.meti.go.jp/english/policy/external_economy/regional_affairs/russia_cis/russia.html) (검색일: 2018. 10. 17).
- “RMB Clearing Bank in Russia Officially Launched.” <http://www.icbc.com.cn/icbc/en/newsupdates/icbc%20news/RMBClearingBankinRussiaOfficiallyLaunched.htm>(검색일: 2018. 10. 11).
- “Russia and China launch new joint tech investment fund.” 2016. *East-West Digital News*. (November 10). <http://www.ewdn.com/2016/11/10/russia-and-china-launch-new-joint-venture-fund/>(검색일: 2018. 10. 10).
- “Russia and China to form \$1 bln industrial investment fund.” 2018. *Reuters*. (June 8). <https://www.reuters.com/article/russia-china-rcif-chengtong/russia-and-china-to-form-1-bln-industrial-investment-fund-idUSR4N1T1058>(검색일: 2018. 10. 10).
- “Russia and Japan Set Up a Joint Venture to Implement Investment Projects in the Far East.” <https://investvostok.ru/en/news/1541/>(검색일: 2018. 10. 17).
- “Russia, China Set up New RMB Investment Fund to Support Far East Russia and North-East China.”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russia-china-set-new-rmb-investment-fund-support-far-east-russia-north-east-china.html/>(검색일: 2018. 10. 10).
- “Вперёд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сем бесплатный гектар!” ГОСНОВОСТИ.

2016. (10 June).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етодическое пособие для граждан «Объединения граждан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ах».” <https://hcfе.ru/services/programm-far-east-hectare/settlement/>(검색일: 2018. 8. 30).
- “Глава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Козлов задумался о душе– о душ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018. *Regnum*. (9 June). <https://regnum.ru/news/2429273.html>(검색일: 2018. 8. 13).
-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https://minvr.ru/activity/razvitie-msp-i-konkurentsii-dalnevostochnyy-gektar/>(검색일: 2018. 8. 20).
-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итоги 2017 года.” 2017.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28 December). <https://minvr.ru/press-center/news/11684/>(검색일: 2018. 8. 20).
- “Евгений Чекин: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растет стабильно.” 2018. *ysia.ru*. (27 February). <http://ysia.ru/evgenij-chekin-sotsialnye-obyzatelstva-ispolnyayutsya-v-polnom-obeme/>(검색일: 2018. 8. 20).
- “Засе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2018.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10 August). <http://government.ru/news/33607/#kozlov>(검색일: 2018. 8. 16).
- “Земля даст волю.” 2018.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 February). <https://rg.ru/2018/02/01/reg-dfo/vladelcev-dalnevostochnogo-gektara-osvobodiat-ot-nalogov-do-2035-goda.html>(검색일: 2018. 8. 30).
- “Иностранцы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2018. Парламентская газета. (20 June). <https://news.rambler.ru/other/40143276-inostrantsy-smogut-poluchit-dalnevostochnyy-gektar/>(검색일: 2018. 8. 20).
- “Иностранцы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2018. Парламентская газета. (4 June). <https://www.pnp.ru/economics/inostrancy-smogut-poluchit-dalnevostochnyy-gektar-2.html>(검색일: 2018. 8. 20).
- “Исполн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и бюджетов бюджетн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2017 год.”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Ф.

- www.minfin.ru(검색일: 2018. 7. 25).
- “К 2020 году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войдут в топ-30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й тинга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2017.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8 September). <https://minvr.ru/press-center/news/8411/>(검색일: 2018. 9. 3).
-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Козлова лишь продублирует ошибки Галушки?” 2018. *Regnum*. (22 May). <https://regnum.ru/news/2418618.html> (검색일: 2018. 8. 13).
- “Наш премьер ждет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открытой душой.» 2016. Коммерсантъ. (8 November). <https://www.kommersant.ru/doc/3136227>(검색일: 2018. 10. 17).
- “Обнародована программ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https://www.infpol.ru/174760-obnarodovana-programma-sotrudnichestva-mezhdu-rossiey-i-kitaem/>(검색일: 2018. 9. 27).
-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Китая.” Руксперт. [https://ruxpert.ru/%D0%9E%D1%82%D0%BD%D0%BE%D1%88%D0%B5%D0%BD%D0%B8%D1%8F\\_%D0%A0%D0%BE%D1%81%D1%81%D0%B8%D0%B8\\_%D0%B8\\_%D0%9A%D0%B8%D1%82%D0%B0%D1%8F](https://ruxpert.ru/%D0%9E%D1%82%D0%BD%D0%BE%D1%88%D0%B5%D0%BD%D0%B8%D1%8F_%D0%A0%D0%BE%D1%81%D1%81%D0%B8%D0%B8_%D0%B8_%D0%9A%D0%B8%D1%82%D0%B0%D1%8F)(검색일: 2018. 9. 26).
-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й подкомиссии по сель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пиво «Хамовники пильзенское» получило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руководства МСХ КНР Нью Дуня.” <http://barley-malt.ru/?p=11006>(검색일: 2018. 9. 27).
-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0864>(검색일: 2018. 9. 22).
- “Программ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Северо-Востока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https://www.fmprc.gov.cn/rus/wjb/zzjg/dozys/dqzzywt/t709788.shtml>(검색일: 2018. 9. 28).
- “Программ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исполнилось 2 года.” 2018. *Sakhalin.info*. (1 June). <https://sakhalin.info/news/152884>(검색일: 2018. 8. 20).
- “Путин назвал подъе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приоритетом на XXI век.” 2013. Взгляд. (12 December). <https://vz.ru/news/2013/12/12/664026.html>(검색일: 2018. 9. 22).

- “Путин призвал создать большое Евразий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2016. ТАСС. (17 June). <https://tass.ru/ekonomika/3376295>(검색일: 2018. 9. 22).
- “Путин: Вектор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 на Восток.” 2012. Взгляд. (12 December). <https://vz.ru/news/2012/12/12/611487.html> (검색일: 2018. 9. 22).
- “Путин: проект Большого Евразий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открыт для новых участников.” 2017. ТАСС. (9 November). <https://tass.ru/ekonomika/4712621>(검색일: 2018. 9. 21).
- РИА Рейтинг. 2017а.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РФ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 2016.” pp. 24-25. <http://riarating.ru/regions/20170220/630056195.html>(검색일: 2018. 10. 26).
- \_\_\_\_\_. 2017b. “РЕЙТИНГ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СУБЪЕКТОВ РФ ИТОГИ 2016 ГОДА.” pp. 31-32. <http://riarating.ru/regions/20170530/630063753.html>(검색일: 2018. 10. 26).
- \_\_\_\_\_. 2018а.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РФ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 2017.” pp. 1-59. <http://riarating.ru/infografika/20180214/630082471.html>(검색일: 2018. 10. 26).
- \_\_\_\_\_. 2018b. “РЕЙТИНГ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СУБЪЕКТОВ РФ ИТОГИ 2017 ГОДА.” pp. 29-30. <http://riarating.ru/infografika/20180523/630091878.html>(검색일: 2018. 10. 26).
-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й агрофонд позволит привлечь инвестиции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https://www.agroinvestor.ru/regions/news/23834-rossiysko-kitayskiy-agrofond-pozvolit-privlech-investitsi/> (검색일: 2018. 10. 10).
-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ая компания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в ТОР появится в феврале 2018 года.” 2018. ТАСС(15 February). <https://tass.ru/forumsochi2018/articles/4959649>(검색일: 2018. 10. 18).
- “Си Цзиньпин на встрече с секретарем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подчеркнул: развит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партнерства с Россией –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й приоритет Китая.” <https://www.mfa.gov.cn/rus/wjdt/wshd/t1004356.shtml>(검색일: 2018. 9. 22).
-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s://minvr.ru/>

- activity/territorii-operezhayushchego-razvitiya/(검색일: 2018. 8. 23).  
 “Федеральные округа России.” [http://russkg.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132:2013-02-21-17-32-43&catid=12:2010-08-03-15-47-39&Itemid=16](http://russkg.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132:2013-02-21-17-32-43&catid=12:2010-08-03-15-47-39&Itemid=16)(검색일: 2018. 11. 19).
- ФРП. “Специаль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контракты (СПИК).” pp. 14-17, <http://frprf.ru/download/prezentatsiya-mekhanizma-spetsialnykh-investitsionnykh-kontraktov-po-postanovleniyu-pravitelstva-708-ot-16-07-2015.pdf>(검색일: 2018. 11. 30).
-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в ДФО.” Департамент Росгидромета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http://dalgidromet.ru/index.php/o-sluzhbe/44-spravochnaya-informatsiya/243-kharakteristika-prirodnnykh-resursov-v-dfo>(검색일: 2018. 8. 21).

#### [DB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http://www.kita.net)(검색일: 2018. 11. 27).
- Russia-China Investment Fund. <http://www.rcif.com/>(검색일: 2018. 10. 10).
- Russia-Japan Investment Fund. <http://rjif.org/>(검색일: 2018. 10. 18).
- World Bank. Population Density(people per sq. km of land are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N.POP.DNST>(검색일: 2018. 11. 1).
- Банк России.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го сектора. <http://www.cbr.ru/statistics/?PrtlId=svs>(검색일: 2018. 9. 4).
-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Таможенная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http://dvtu.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267&Itemid=90](http://dvtu.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267&Itemid=90)(검색일: 2018. 9. 20).
-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форма 6-ТС страна-товарные группы(5).xls” <http://dvtu.externalzone.portal.customs.ru/statistic/2017/opera/document/165097>(검색일: 2018. 11. 27).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2017.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138625359016](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138625359016)(검색일: 2018. 7. 13).

- \_\_\_\_\_. 2018a.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ведения мониторинг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номинальная начислен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работников организаций.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246601078438](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246601078438)(검색일: 2018. 8. 22).
- \_\_\_\_\_. 2018b.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ведения мониторинг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оимость фиксированного набор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для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опоставлений покупатель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246601078438](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246601078438)(검색일: 2018. 8. 22).
- \_\_\_\_\_. 2018c.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19. ТРАНСПОРТ. [http://www.gks.ru/free\\_doc/new\\_site/region\\_stat/sep\\_region.html](http://www.gks.ru/free_doc/new_site/region_stat/sep_region.html)(검색일: 2018. 7. 13).
- \_\_\_\_\_. 2018d.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БЩАЯ ПЛОЩАДЬ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ПРИХОДЯЩАЯСЯ В СРЕДНЕМ НА ОДНОГО ЖИТЕЛЯ. [http://www.gks.ru/free\\_doc/new\\_site/region\\_stat/sep\\_region.html](http://www.gks.ru/free_doc/new_site/region_stat/sep_region.html)(검색일: 2018. 11. 2).
- \_\_\_\_\_. 2018e.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Удельный вес расходов домашних хозяйства оплату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http://www.gks.ru/free\\_doc/new\\_site/region\\_stat/sep\\_region.html](http://www.gks.ru/free_doc/new_site/region_stat/sep_region.html)(검색일: 2018. 8. 22).
- \_\_\_\_\_. 2018f. “Численность и миграция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7 году.” Площадь территории и плот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по суб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http://www.gks.ru/bgd/regl/b18\\_107/Main.htm](http://www.gks.ru/bgd/regl/b18_107/Main.htm)(검색일: 2018. 7. 25).
- \_\_\_\_\_. <http://www.gks.ru>(검색일: 2018. 7. 13, 11. 23).

#### [정책 및 법령 자료]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6 июля

- 2015 г. N 708 г. Москв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контрактах для отдельны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5. 7. 21. <https://rg.ru/2015/07/21/kontrakt-site-dok.html>(검색일: 2018. 8. 30).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201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15 апреля 2014 № 308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pp. 1-27.
- \_\_\_\_\_. 201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9 августа 2016 № 757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 pp. 1-109.
- \_\_\_\_\_. 201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30 марта 2017 г. № 365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 pp. 1-103.
- \_\_\_\_\_. 201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30 марта 2018 г. № 362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 pp. 1-116.
-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9 декабря 2014 г. N 473-ФЗ.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rg.ru/2014/12/31/territorii-dok.html>(검색일: 2018. 8. 29).
- \_\_\_\_\_. 201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3 июля 2015 г. N 212-ФЗ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https://rg.ru/2015/07/15/fz212-dok.html>(검색일: 2018. 8. 29).
- \_\_\_\_\_. 201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 июля 2016 г. N 25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https://rg.ru/2016/07/06/territ-dok.html>(검색일: 2018. 8. 29).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 296. 2014. “О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Ф.” <http://static.kremlin.ru/media/events/files/>

41d4d8e8206d56fc949d.pdf(검색일: 2018. 7. 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асти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реал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отдельны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09.2013 N 267-ФЗ.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152473/3d0cac60971a5111280cbba229d9b6329c07731f7/](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152473/3d0cac60971a5111280cbba229d9b6329c07731f7/)(검색일: 2018. 8. 3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 мая 2016 г. N119-ФЗ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ражданам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находящихс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ли муницип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располож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я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ходящих в соста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6. 5 .6. <https://rg.ru/2016/05/05/uchastki-site-dok.html>(검색일: 2018. 8. 3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3 мая 2016 г. N 14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6. 5. 25). <https://rg.ru/2016/05/25/kodeks-dok.html>(검색일: 2018. 8. 30).

## [기관 홈페이지]

Агентств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и поддержке экспорта. <https://investvostok.ru/en/>(검색일: 2018. 8. 16).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s://hcfе.ru/>(검색일: 2018. 8. 16).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erdc.ru/>(검색일: 2018. 8. 16).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https://minvr.ru/about/polnomochiya-i-funktsii/>(검색일: 2018. 8. 23).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м из руководящих сотруднико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dfo.gov.ru/polpred/status/>(검색일: 2018. 8. 13).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вопроса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http://government.ru/department/284/about/>(검색일: 2018. 8. 23).

Фонд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www.fondvostok.ru/about/>(검색일: 2018. 8. 16).

Фонд развит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http://idfrf.org/>(검색일: 2018. 8. 30).

#### [회의 및 인터뷰 자료]

세르게이 루코닌 IMEMO 선임연구위원, 올가 쿠즈네초바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교수 면담(2018. 10. 3, 모스크바).

전략기획청 이고르 쿠스타린 과장, 파벨 드로닌 프로그램 매니저, 알렉세이 골디치 선임분석가 면담(2018. 10. 2, 모스크바).

## Far East Development Policy in Putin's Fourth Term and New Directions for Korea – Russia Economic Cooperation

Joungho Park, Boogyun Kang, Jiyoung Min, Sergey Lukonin, and Olga Kuznetsova

In July 2017,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its New Northern Policy, aimed to create a new northern economic space and strengthen connectivity between Korea and the Eurasian continent. Vitalizing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realizing the policy. In this regard, Korea needs to come up with new economic cooperation measures which correspond to Russia's socio-economic conditions, industrial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This study focuses on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policies and Korea's measures to cooperate in the region. The Russian Far East has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is situated relatively close to Korea. However, high living costs and poor housing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conditions deteriorate the quality of life in the Far East, resulting in chronic depopulation. Moreover, the commodity-dependent industrial structure has to be improved and diversified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this study suggests to seek cooperation in the Far East's key and growing industries such as the mining, transport, fishery sectors. In addition, Korea can foster new

cooperation projects in the high technology and services sectors.

The Far East development policy carried out in Putin's third term was targeted mainly at region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promotion. The major achievements of th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base, such as with the advanced development zones, Vladivostok free ports and the Far East Hectares. The challenges in the coming years will be to specify development plans and investment projects, improve the business climate, and raise the quality of life, among others. The policy will continue in a similar manner during Putin's fourth term as well, but with more focus on increasing the quality of life. Whether the ultimate goal of the policy will be successfully achieved is now up to whether the authorities can find appropriate ways to distribute benefits from development while efficiently managing the institutions that have been adopted.

China's strategy towards the Far East has expansionary features, focusing on transport connectivity. China and Russia relations became stronger after the imposition of Western sanctions on Russia. The two nations formed a foundation for more detailed and practical economic cooperation by establishing funds for investment projects in various fields. The two sides are seeking new projects in the high-tech, manufacturing, agriculture and tourism sectors.

Japan's strategy towards the Far East is to expand a business model that has been domestically successful and applying this to the Far East. Japan has traditionally concentrated its investment in the energy sector, especially in Sakhalin Oblast. Recently, however, the country is trying to employ its comparative advantage and know-how in the region, based on an 8-point cooperation plan.

Korea established a joint investment platform with Russia in 2013. Based on this, various projects such as the Vladivostok cold storage project, Zarubino port development, Nakhodka fertilizer plant, and Sovcomflot's oil-tanker support services projects have been discussed. However, these projects were blocked from progress due to the West's sanctions, lagging investment climate, and lack of experience in the Far East. Responding to this, Korea proposed the "9 bridge" strategy at the 3rd Eastern Economic Forum in September 2017. The strategy is under discussion between Korea and Russia.

Korea's key cooperation directions towards the Far East are "9-bridge +  $\alpha$ " and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ussia, North and South Korea. The former is in the making for tangible results. The latter holds strategic importance toward forming the base for vitalizing Korea and Russia cooperation and joint prosperity in North East Asia. In fact, the trilateral cooper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the "9 bridge" strategy because the two already overlap in some sectors, namely in the areas of gas, railroad, electricity, etc.

Our policy suggestions are to: 1) prepare economic cooperation action plans by sectors and by stage (short-term, mid-term, long-term) under the umbrella of the "9-Bridge+ $\alpha$ " strategy, 2) design Korea's cooperation strategy towards the Far East, 3) formulate comprehensive strategy for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the NEA, 4) seek new forms of trilateral projects, 5) enhance cooperation between regional governments, and 6) construct channels for sustainable cooperation.

---

### 박정호(朴正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정치학 박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전임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現, E-mail: jounho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공저, 2016)

『중양아시아 개발과제와 한·중양아 신흥력 방향』(공저, 2017) 외

---

### 강부균(姜扶均)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bgkang@kiep.go.kr)

저서 및 논문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공저, 2016)

『중양아시아 개발과제와 한·중양아 신흥력 방향』(공저, 2017) 외

---

### 민지영(閔智英)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ymin@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양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경험 확대방안』(공저, 2016)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공저, 2017) 외

---

## 세르게이 루코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경제학 박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러시아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교수

(現, E-mail: sergeylukonin@mail.ru)

저서 및 논문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이후 러시아의 아태지향』(공저, 2013)

『통일 후 동아시아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전략』(2016) 외

---

## 올가 쿠즈네초바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교수

(現, E-mail: kouznetsova\_olga@mail.ru)

저서 및 논문

“The Role of Public Policy in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s to the Russian Far East,” *Contours of Global Transformations*, 2018.

“The Eastern Vector of Russia’s Investment Relationships,”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018.

#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8년
  - 18-01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 정영식 · 김경훈 · 김효상 · 양다영 · 강은정
  - 18-02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 이수영 · 최혜린 · 김혁황 · 박민숙 · 남시훈
  - 18-03 디지털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 최낙균 · 이규엽 · 김혁황 · 장윤중
  - 18-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 강태수 · 김경훈 · 서현덕 · 강은정
  - 18-05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 광성일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 김미림
  - 18-06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 윤덕룡 · 김소영 · 이진희
  - 18-07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 문진영 · 나승권 · 이성희 · 김은미
  - 18-08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 조동희 · 김종혁 · 김홍중 · 문성만 · 윤여준 · 임유진
  - 18-09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유애라
  - 18-10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8-11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18-12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 조남훈 · 이정균 · 김범환
  - 18-13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세르게이 루코닌 · 올가 쿠즈네초바

- 18-14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최유정 · 임소정 · 이효영
- 18-15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 윤지현
- 18-16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  
현상백 · 박민숙 · 박진희 · 조고운 · 김부용
- 18-17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배찬권 · 엄준현 · 정민철 · 이장완
- 18-18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  
이규엽 · 조문희 · 강준구 · 강민지
- 18-19 한 · 중 · 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 전자상거래 ·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규판 · 이현태 · 오윤미 · 김승현 · 이정은
- 18-20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김종택 · 박지현 · 김민성 · 안덕근
- 18-21 개방경제하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  
안성배 · 김효상 · 신평비 · 김지수 · 장희수
- 18-22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  
정영식 · 최혜린 · 양다영 · 강은정 · 고덕기
- 18-23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  
라미령 · 신민이 · 신민금 · 정재완 · 김재국
- 18-24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문희 · 김영귀 · 구경현 · 박혜리 · 금혜윤
- 18-25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최보영 · 이수영 · 이형근 · 이보람 · 이정은
- 18-26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  
이상훈 · 김홍원 · 김주혜 · 최재희

■ 2017년

- 17-01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  
정형곤 · 방호경 · 이보람 · 백종훈
- 17-02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7-03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승신 · 이현태 · 현상백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오윤미

- 17-04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  
곽성일 · 김재완 · 김재국 · 신민이
- 17-05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  
김상겸 · 박순찬 · 강민지
- 17-06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최장호 · 임수호 · 이석기 · 최유정 · 임소정
- 17-07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 김규판 · 이형근 · 김종혁 · 권혁주
- 17-08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강준구 · 이홍식 · 한치록
- 17-09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윤덕룡 · 김효상
- 17-10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 · 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김효은
- 17-11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 김경훈 · 김소영 · 강은정 · 양다영
- 17-12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김민성 · 곽소영 · 정민철
- 17-13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17-14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 · 중 관계를 중심으로 /  
윤여준 · 김종혁 · 권혁주 · 김원기
- 17-15 한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  
박정호 · 염동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 17-16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 유애라 · 윤상철 · 이종욱
- 17-17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 · 인도 협력방안 /  
이 용 · 배찬권 · 이정미
- 17-18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황운중 · 이수영 · 김혁황 · 강영호
- 17-19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이규엽 · 배찬권 · 이수영 · 박지현 · 유세별

- 17-20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철광석)을 중심으로 / 임수호·양문수·이정균
- 17-21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현·이상훈·오종혁·박진희·이하나·노수연
- 17-22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남시훈·김혜윤·김낙년
- 17-23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이현태·최장호·최혜린·김영신·오윤미·이준구
- 17-24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조문희·김종덕·박혜리·정민철
- 17-25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 김규판·이형근·이정은·김제국
- 17-26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조충제·정재완·송영철·오종혁
- 17-27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안성배·김기환·김수빈·이진희·한민수
- 17-28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동희·이철원·오태현·이현진·임유진
- 17-29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최보영·이보람·이서영·백종훈·방호경
- 17-30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지역별 분석 / 이상훈·정지현·김홍원·박진희·이하나·최지원·김주혜·최재희
- 17-3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 문진영·한민수·송지혜·김은미
- 17-32 투자주도 성장정책의 이론과 정책의 국제비교 / 표학길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I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b>S</b> 발간물일체	<b>A</b>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Far East Development Policy in Putin's Fourth Term and New Directions for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Joungho Park, Boogyun Kang, Jiyoung Min, Sergey Lukonin, and Olga Kuznetsova

이 연구는 푸틴 집권 3기와 4기 극동개발정책의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의 극동진출 전략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 신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신동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전략적 접점을 모색하면서 경제협력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극동지역에서의 신경제협력은 한반도와 러시아, 그리고 북방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간의 연계 협력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SBN 978-89-322-1712-3  
978-89-322-1072-8(세트)

정가 7,000원